

月刊

미사일

1961年 12月 23日 印刷
1961年 12月 31日 發行

1962

1월호

特輯 年輪의 溪谷에 서서

〈送舊迎新〉

◇ 1962 年에 期待한다 ◇ 1961 年을 돌아보다.

座談會 생각나는 대로...



제9호

2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4일 본부 강당에서는 본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이 거행되었다. →



김(金)참모총장(金參謀總長)은 지난 1월 1일 본부(本部) 참모(參謀) 및 재경부대장(在京部隊長)을 대동(帶同)하고 국군묘지(國軍墓地)를 참배(參拜)하였다.

←

지난 12월 19일 본부 제1회 의실에서 김 참모총장(金參謀總長) 주재하에 단대장 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작년도 대무 전반에 걸친 분석 평가와 신년도 부대 운영 계획이 논의되었다. →



지난해 12월 23일 본부 강당에서 X마스 축하(祝賀) 음악예배(音樂禮拜)가 베풀어졌다. 사진(寫眞)은 동예배(同禮拜)에서 축하(祝辭)하는 김 참모총장(金參謀總長)

←



지난 12월 28일 김 참모총장은 본부 참모(本部參謀)를 대동(帶同)하고 백령도를 순시(巡視)하고 위문품(慰問品)을 전달(傳達)하였다. 사진(寫眞)은 기지(基地)에서 장병(將兵)을 격려(激勵)하는 김 참모총장.

←



김 참모총장은 지난 12월 21일 공군병원(空軍病院)을 방문(訪問)하고 박정희(朴正熙) 최고회의(最高會議)의장(議長)이 보내주신 라디오와 담배 등(等)의 위문품(慰問品)을 전달(傳達)하였다.

←



위문품(慰問品) 전달(傳達) 후(後) 입원중(入院中)인 장병(將兵)을 위무(慰撫) 격려(激勵)하는 김 참모총장

←



본부에서는 지난 12월 29일을 기하여 전국 감실(全局監室) 및 영내(營內) 사병(士兵)에 대(對)한 내무사열(內務查閱)을 실시(實施)하였다. ←사진은 동 사열광경(同查閱光景).

미사일

1월호
제9호
<송구영신호(送舊迎新號)>

표지 민철홍(閔哲泓)
문비 유시원

<목차(目次)>

연두사(年頭辭) 참모총장(參謀總長)·공군중장(空軍中將) 김신(金信)
◇권두시(卷頭詩)·희망과 승리의 새아침 오상순(吳相淳) (4)

특집(特輯)

1962년에 기대(期待)한다 (6)

△도덕(道德)	정두석(鄭斗石)
△경제(經濟)	최치륜(崔致倫)
△사회(社會)	조효원(趙孝源)
△외교(外交)	김기수(金基洙)
△생활(生活)	양재모(梁在謨)

1961년을 돌아보다 (16)

△경제(經濟)	김효록(金孝祿)
△문화(文化)	백철(白鐵)
△교육(教育)	정태시(鄭泰時)
△사회(社會)	윤중현(尹宗鉉)
△외교(外交)	문철순(文哲淳)

송년
좌담회 생각나는 대로 (48)

수술대(手術臺)에 오른 구악(舊惡) (40)

감투논(論)	조풍연(趙豐衍)	강패론(論)	성배선(成白善)
공짜논(論)	정비석(鄭飛石)	백논(論)	이녕희(李寧熙)

◇일기(日記)
◇속담춘추(俗談春秋) 고객자(孤客子) (30)

재건논단(再建論壇)

민족성(民族性)의 개조(改造)와 국가재건(國家再建)	김성식(金成植) (28)
공중도의(公衆道義)와 개인(個人)의 자각(自覺)	권순영(權純永) (32)
서비스 정신(精神)과 사회생활(社會生活)	박술음(朴術音)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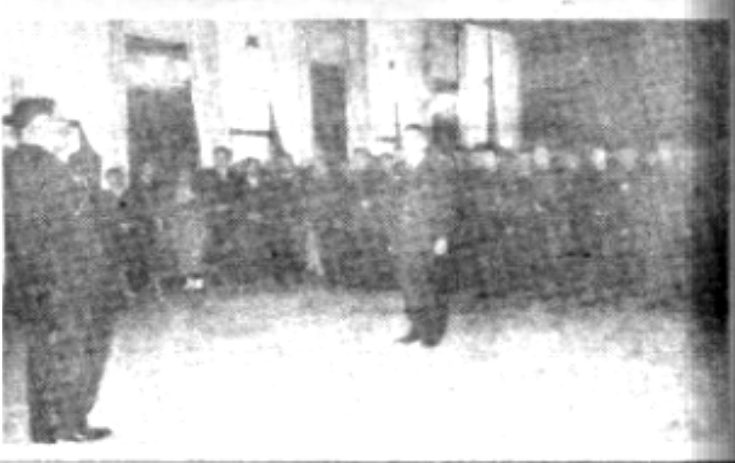
세계신문(世界新聞) 이야기 <동독편(東獨篇)> 김기점(金基漸) (53)
방공구국(防空救國) 3개월 ④ 외지(外誌)에서 (56)
세계(世界)의 경이(驚異)를 찾아서 ⑥ 하리바튼 (65)

수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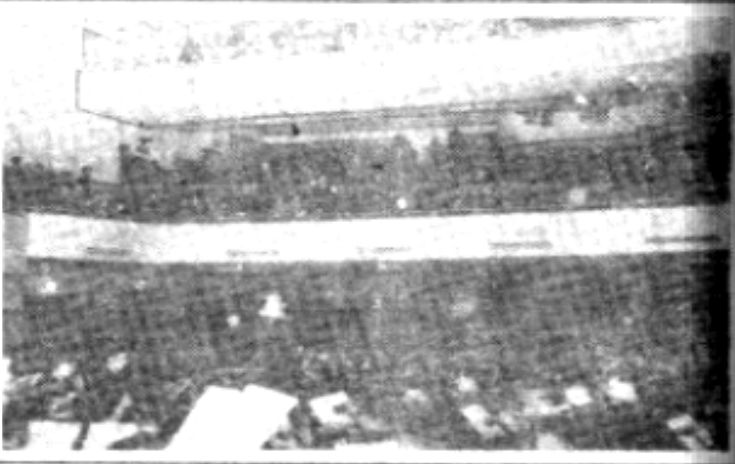
새해에 살려서 마음	조경희(趙敬姬) (61)
하늘	정연희(鄭然喜) (62)
신작로(新作路)에서 만난 제트기(機)	박홍근(朴洪根) (64)

시(詩)·<희망(希望)에 대하여> 이영순(李永純) (62)
화(畵)·<새해> 백영수(白榮洙) (45)
공군(空軍) 미술전(美術展)을 보고 박세원(朴世元) (15)
◇후기(後記) (68)

공군장교부인회(空軍將校婦人會)에서는 지난 12월 14일 시민회관(市民會館)에서 공군무의 탁사병(空軍無依託士兵)에 대한 가족 결연(家族結緣) 및 위안 행사(慰安行事)를 개최(開催)하였는데 사진은 동 행사(同行事) 후(後) 청와대(靑瓦臺)로 윤 대통령(尹大統領)을 예방(禮訪)한 광경(光景). →



공군교향악단에서는 지난 12월 15일 국민회당(國民會堂)에서 연말(年末)과 X마스를 앞두고 조국 재건(祖國再建)과 혁명 과업 완수(革命課業完遂)를 위해 건투(健鬪)하는 시민(市民)을 위안(慰安)하고 아울러 국민 친선(軍民親善)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한 시민 위안 연주회(市民慰安演奏會)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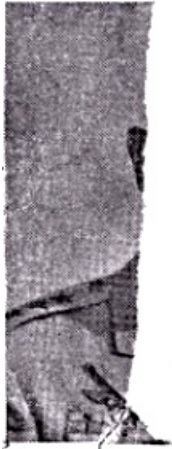
유달영(柳達永) 재건 국민 운동 본부장(再建國民運動本部長)은 지난 12월 23일 공군 병원으로 입원중인 장병을 위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



공군장교부인회(空軍將校婦人會)에서는 지난 12월 23일 X마스를 맞이하여 벽고지장병(僻高地將兵)에게 보내는 위문품을 김 참모 총장에게 전달하였다. →



공군참모총장 · 공군 중장 김신(金信)



민중의 생활을 찾은 혁명의 해 1961년을 보내고, 과감한 전진과 성공이 약속된 1962년의 새아침을 맞이하여 본관은 친애하는 공군장병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충심으로 기원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전 국민이 혼연히 몸과 마음을 바쳐 찬란한 역사 창조의 역군됨을 더욱 굳게 다짐하는 이 엄숙한 시점에 서서 본관은 장병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에게 부하된 벽찬 역사적 사명과 자세를 재확인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공군이 지난 1년 기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K× 기지의 건설 항공창의 확장 작전사령부의 창설 그리고 신장비 도입의 추진 등 획기적인 사업들을 모든 난관과 고난 속에서도 예정대로 성취할 수 있었고 나아가 혁명 과업을 수행 지원함에 왕성한 의욕과 실천 궁행(躬行)으로 임할 수 있었음은 실로 장병

여러분의 애국적이고 헌신적인 충성심의 결정이라고 본관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이면에는 아까운 우리들의 전우들의 희생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통분한 마음으로 회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병 여러분들 자신이 통절히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조국의 현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에게 피땀 어린 멸사적 봉사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터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천리를 각골명심(刻骨銘心)해서 자기를 다스려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자손만대의 지척을 면할 수 있을 것이며, 진정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골쇄신(粉骨碎身)의 각오와 과감한 실천만이 우리 공군으로서 이해 안으로 성취시켜야 할 항공창의 완성이나 다음 해로 다가온 신예(新銳) 도입(導入) 등 군내의 제반 연차 목표를 돌파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우리의 임전태세(臨戰態勢)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새해는 국사 건설을 비롯한 경제 5개년 계획의 착수 등 허다한 건설과 실천의 과제로 충만되어 있는 혁명 제3단계의 시발이 되는 중대한 해입니다. 우리는 혁명 초기 단계에서 보여주었던 과감한 결단과 용기를 무한한 인내와 실천적 정세로 전환시켜 조국과 민족이 우리에게 부여한 선봉적인 역할을 더욱 명예롭게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 세계 적화의 야망을 품고 부단히 계속되는 단말마적(斷末魔的) 공산주의의 도량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는 당면의 정신적 자세로서 크게 자각된 생활 긍지(矜持)를 견지하여 사치와 낭비를 일소하고 모든 정신과 노력과 창의를 총화를 이룬 가운데 국가재건과 승공통일(勝共統一)의 길로 총궐기해야 하겠으며, 더욱이 우리 군인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휘관된 사람들의 자기를 초탈한 솔선수범과 부하된 사람들의 자발적 행동구현으로 그 결실을 거두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재건을 위한 건설과 실천의 과정은 막연한 기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으며, 조국을 위한 피와 땀 하나하나에 우리의 전력과 조국의 장래가 매여 있음을 크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을, 또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서 힘차게 내디딘 우리의 과업이 이 한 해로 하여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보람찬 날로 민족사에 아로새겨질 수 있게끔 장병 모두가 혼연일치 불굴의 투지와 인내로써 이해의 과업을 완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장병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1962년 원단(元旦)

<권두시(卷頭詩)>

희망과 승리에의 새 아침
-임인년(壬寅年)의 새 아침에 부쳐-

오상순(吳相淳)

보라.
동방의 찬란한 새아침,
너의 늠름한 어깨 너머로
아. 희망에 넘친 승리에의 저 원광(圓光)을…….

회오리 치는 용솨음이어.
그것은 너, 힘찬 진군.
이 작렬하는 눈부심 속에는
원한의 피의 땅과

그 창공을
뚫고 가는
저 북쪽 피발을
뚫고 가는
너 보라매 눈초리와
눈물겨운 옛 이야기가 펠럭인다.

아. 다시는 피의 산하로 화(化)하지
말아야 할



그 어떤 이유로 봉쇄해야 할…….
우리 슬픈
북창의 소식이어
그 안타까운 메아리여.

다시 한번 밝아 오는
이 새 아침에,
너여,
한없이 푸르른 희망의 너여.
저 봄비는 승리의 깃발을 보는가.

두 어깨로 잇닿은
너와 나와의 끝없는 하늘,
그 하늘에 수없이 번져가는
결의의 프로펠라,
프로펠라의,
아. 장엄한 진동이어.
너와 나와의 영원한 외침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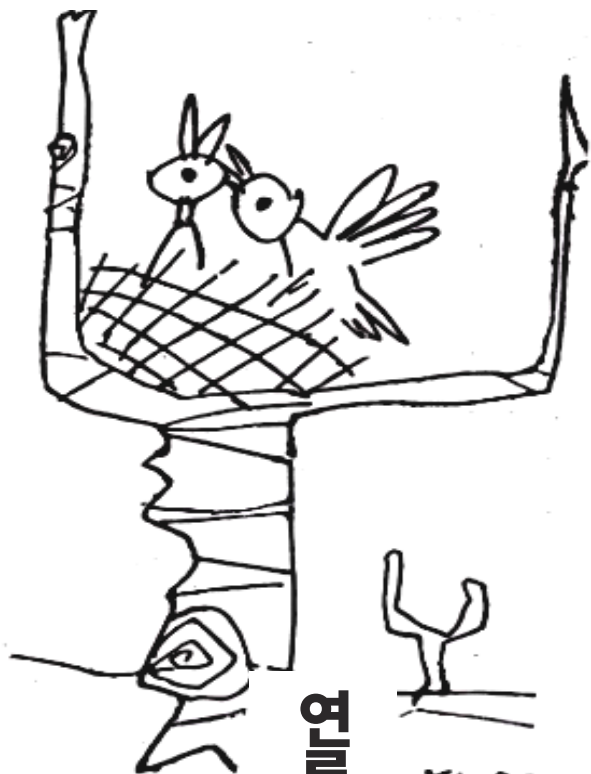
동방의 찬란한 새 아침,
너와 나와의 어깨 너머로 내다보이는
평화의 하늘에 원무(圓舞)하는 비둘기 떼를 보라.

이것은 하늘을 찌르는
너와 나의 몽매간에
불러보고 싶던
아. 동방의 새 아침.

한없이, 한없이 부르고픈
우렁찬 너 노래의 아우성!
그 우람함이어!

헌신정신(獻身精神) 기르자

정두석(鄭斗石)



연륜(年輪)의 계곡(溪谷)에서

1962년에 기대한다

- <도의>.....헌신정신 기르자
- <경제>.....잘 살 수 있는 기반
- <사회>.....자조 정신의 전개
- <생활>.....계획성 있는 살림

1961년을 돌아보다

- <경제>.....비약의 토대를 마련
- <사회>.....새 세대 역사의 제1장
- <문화>.....획기적 정리와 개편
- <교육>.....과감한 재정비
- <외교>.....적극 외교를 지향

1962년은 한마디로 해서 제반 혁명 과업을 본격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해라고 본다. 이와 같은 확증은 지난 8월 12일에 행하여졌던 국가재건 최고 회의 박정희 의장의 특별 성명에서 굳게 천명된 바 있었던 것이다. 동 특별 성명에 접하고 1962년이야말로 제반 체제의 개혁 및 육성 단계이며 또한 5개년 경제 계획의 제1차적 시행 단계라고 하는데 더욱이 중대시 되고 있는 것이다.

5·16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원인이 여러 가지 있었을 것이나 어떤 이유가 중대한 이유였다고 가려서 지적하기는 어려우나 혁명 직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부정부패 등의 제약(諸惡)이 성행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한 제약 중에서도 특히 필자의 생각한 바로서는 도의의 추락과 도덕심의 지리멸렬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었던가 하고 보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천성적으로 구속과 제한을 싫어한다는 것은 본능이라고 보아야 하겠는데 원시 삼림(森林) 속에서 제멋대로 살 수 있었던 시대라면 몰라도 공동생활을 해야만 되고 오늘날 문명국가에서 제 마음 내키는대로 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6 군사혁명 직전까지는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부류의 집단이나 개인이 얼마든지 횡행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일반 국민—선량한 시민—은 그들을 누구보다도 싫어했고 무엇보다도 미워했던 것이다. 그러나 착하고 어진 국가들은 그들의 온갖 횡포에 억눌려서 말 한마디 못하고 참고 견디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5·16 군사혁명은 모든 요소에 철퇴를 가하고 과감히 이를 소탕하였음은 우리들이 그동안 보아 온 바이다.

혁명정부가 구 정치 기구의 완전 개혁을 끝내고는 재빨리 도의 개혁에 착수한 것은 시기적절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민주주의와 도덕! 도덕의 확립이야말로 한국의 국가재건의 근본 지표가 되어야 하겠다 함은 필자가 평소부터 생각해 오던 터인지라 더욱 절실한 바 있다.

고금 동서를 막론하고 도덕 없는 민족의 역사가 어떠했든가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가까이는 8·15 해방 이후 군사혁명이 일어나기까지의 소위 민주주의의 역사가 어떠했든가를 건전한 도덕의 확립 없이 이 나라의 정치가 참된 민주주의의 발달을 바라다거나 산업 경제의 발달이나 교육·종교의 건실한 융성을 바란다는 것이야말로 연목구어격(緣木求魚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재건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또한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확신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재건이 몇몇 특정인이나 일부의 국민이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 전체가 이에 동일 보조를 취하고 일치단결하지 않으면 그 거대한 과업이 이룩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결국 나의 주장은 정신의 혁명 없이 도의의 확립 없이 심곡(心曲)의 개발 없이 국가와 민족의 융성 발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그 한 마디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심곡의 개발, 도의의 확립, 정신의 혁명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개인이 자기의 직분을 다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성 있게 언행만 한다면 어려운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적으로 우리들 재건 도상(途上)에 있는 한국민이 최저 지녀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제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적어보면

첫째로 우리는 헌신하는 또 헌신할 줄 아는 국민이 되어야 하겠다. 헌신이라는 데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것이다. 국가와 겨레를 위하여 자기 한 몸을 바치는 헌신도 있을 것이고 덕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 헌신, 가르침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 헌신 등 여러 가지 있을 것이나 우선은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국민 기풍이 양성되어야 하겠다.

둘째는 자신을 가지고 모든 악의 요소에 도전하여 이길 수 있는 투지 가득한 국민이 되어야 하겠다. 부정과 타협하는 일이 우리 일상생활에 가끔 발현할 수 있거나 자아와 크게 관련 없는 일이면 말하기도 귀찮고 또는 보복이 두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체로 목살해 버리는 경향이 농후하다. 악의 순환을 차단하는 데 과감하여야 하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도의 심현양(心顯揚)에 과감히 투쟁하여야 하겠다.

부정과 싸우고 이긴다는 것은 우리들 개인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아가서는 국가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데 절대 필요한 것인바 부정과 부패를 보고 묵인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이를 적발하고 교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셋째로 단결하는 국민이 되어야 하겠다. 개인이건 가정이건 국가이건 간에 분열은 파멸 외에 아무 소용 없다 함은 우리들이 잘 보아 오고 있다.

가정이 분열하면 그 집안은 패가망신하지 않았던가. 직장이 분열하면 분쟁이 생기고 그 직장은 망해 버리지 않았는가. 종교가 분열하면 참다운 신앙은 제쳐놓고 사교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종교는 신도들의 신망을 잃고 멸망해 버린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단결을 싫어하고 분열을 조장한 민족치고 발전한 민족이 어디 있었던가. 합하면 흥하고 깨지면 망한다는 것은 하나의 원리이고 천칙(天則)이 아닌가.

또 우리는 분열의 원인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구명하여 이를 시정하는 데 과감해야 하겠다. 지금까지의 분열의 원인을 보면 각자의 마음속에

자고심(自高心)과 탐욕과 증오심이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씩 분열되어 끝내는 파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니었던가.

1962년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데 가장 기초적이고 제1차적 시행 단계이니만큼 온 국민은 혁명 정신에 입각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될 해인줄로 확신한다.

(필자·동국대학교(東國大學校) 총장)

<경제>

끈기와 인내(忍耐)로 잘 살 수 있는 기분들

최치륜(崔致濩)

급속한 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개발 계획의 문제는 오늘날 전 세계 특히 후진(後進) 국가들이 한결같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소위 빈곤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중요한 경제 활동을 구체적으로 모형화하고 가용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하여 투자 효율의 극대화를 기한다는 프로그램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는 후진의 일반적 속성을 탈피하지 못하였고 사회적으로는 반봉건적인 체제를 아직도 지니고 있으며 영세한 가족적 경영하에 있는 소농을 위주로 한 원시 산업 중심의 경제 기반을 지닌 채 자원의 개발과 자급도에 대비하여 과잉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구조적 후진성은 기업의 활동을 가로막고 ‘프라이스 매커니즘’의 작용을 임비(癱痺)시키고 화폐적인 유통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악조건으로 생산력 확대의 불가결한 요소인 생산·자본·유통·시장 등의 제반 조건이 경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후진적인 특질에다가 설상가상으로 경제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정권을 담당했던 구 자유, 민주 양당 정부는 정권의 쟁탈과 연장에만 급급한 결과 중요점적인 경제의 후진적 여건인 자본 형성의 원시적 산업 구조의 불균형, 가용자원의 퇴장,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압력과 실업 등에 대하여는 하등의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무위 무능하고 부패한 위정자들의 횡포로 국민들은 기아 선상에서 방황하게 되었으며 민생은 나날이 도탄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되어 백적간두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참상을 좌시할 수 없어 필기한 군사혁명만은 절망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한다는 이념하에 당연한 6개 항목의 긴급 경제 시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전기(前記)한 6개 경제 시책을 개요하면 긴급 실업자 대책 재정금융의 원활화, 단일 환율의 유지, 외자 도입 촉진 방안, 탈무 행정의 개선, 경제 활동의 자유 분위기 조성 등인데 재정 금융 면에서는 예산의 과학적인 편성, 탈세의 미연 방지, 인정 과세의 폐지, 사치 생활의 억제, 물가의 상승 방지, 금융의 정상화 등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였다. 기간 산업의 건설 면에서는 동력 자원의 개발, 전업(電業) 삼사의 통합, 농림 어업 면에서는 농어촌 고리채 정리, 영농 자금 방출, 농은(農銀)과 농협외 통합 어업 정책의 혁신, 합리적인 행정 기구 개편의 단행 등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면에서는 중소기업 은행의 설립과 서민 금고를 전담할 국민 은행의 발족 준비, 외자 도입 촉진을 위한 관민 혼합 경제 사절단의 해외파견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과감한 시책은 국민들에게 청신한 희망과 기업 의욕을 주입시켜주는 ‘네오’ 강심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주체적인 욕구와 이에 부수되는 객관적인 제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므로 정부는 동시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허다한 난관과 애로에 봉착할 것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요컨대 중대한 난관이란 긴급 시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방법과 운영과 조직면에 있어서의 행정적인 기능 등에 세심한 배려와 끈기있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정된 긴급 시책이 원활히 실시되지 못하였을 경우에 초래될 경제·사회·문화 등 전역에 파급될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식견도 필요한 것이다. 이 시책의 실효를 획득하기 위한 전제로서 한국 경제의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후진성과 현실적인 제약을 좀 더 엄밀히 분석하는 가운데 시책 여건의 기본적 과제의 당위와 방향인 경제 활동의 정당화와 긴급 실업자 대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실업의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 문제가 근대 경제의 중심과제이며 궁극적인 목표이므로 혁명정부는 과거의 자유, 민주 양정부가 즉흥적으로 실시한바 있는 국토 건설 사업 등은 일종의 구호 사업에 불과했으므로 이러한 외식적인 방법을 단호히 지양하고 항구적이고도 지속적인 생산 부문에 정착성의 고용 증대르 도모해야 될 것이다. 또한 오는 62년을 기점으로 66년까지의 향후 5개년을 기간으로 하는 경제 개발 계획은 낙후된 우리나라의 경제를 향상 발전시키는 바로미터가 된다는데서 국내외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기한 경제 개발의 원대한 계획이 긴급 시책과 병행하여 과연 어느 정도까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런지의 여부는 현재 혁명정부가 전 역량을 경주하여 이 계획을 완수하도록 만전의 대책을 강구소에 있으므로 순조롭게 진보되리라고 관측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동계계획의 수행을 위한 핵심적인 키는 중소기업의 조달 여부에 있으므로 과연 총 투자액(지난 55년도의 불변 가격) 2조 5천 6백 50억 원액을 여하히 조달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총 투자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간주하더라도 전기한 숫자와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건의 우렁찬 노래와 더불어 밝아오는 새해는 5개년 경제 개발의 기초가 되는 모델·케이스가 될 것이다.

정부가 자금 조달의 일환책으로 경제 외교의

☆ 특집 · 연론의 계곡에 서서

강화와 과거의 무정견(無定見)하고 패시브한 수월 태세를 지양하고 거시적인 견지에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 무상 원조와 차관의 획득에 치중하여 외자 도입 센터를 설치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외자 투자 활동의 안내와 투자 기회를 해외에 선전하고 있다. 한편 한일 경제 협정을 비롯하여 태국 월남 마래(馬來)와의 무역 협정의 체결을 촉진하고 중립국과의 통상 교역 확대를 시도하고 있음은 적의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0월부터 재개된 한일 회담은 10년 동안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던 양국 간의 현안문제가 박(朴)·지전(池田)의 정상 회담을 계기로 획기적인 타협의 기운이 조성되어가고 있어 늦어도 내년 초에는 한일 국교가 정상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회담의 성공을 쌍방이 다 숙망하고 있고 우리 역사의 전환점이 될 5개년 경제 개발 계획의 시발 연도인 62년도의 사업 자금 수급에도 원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년 일본의 동정을 보면 일본 외무성의 이관(伊關) 아시아 국장은 자민당의 한·일 문제 간담회에서 박·지전 회담의 내용을 설명하는 가운데 대일 배상 청구권은 법률상 근거가 확실한 것에 한하여 지불토록 합의를 본 바 있다고 말하고 그 액수가 5,000만불 선의 내외일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고 한다. 물론 이와 같은 보도가 아전인수만을 위한 고무줄식 애드·바룬 공세임에는 틀림없으나 외교에는 신의와 양식(良識)이 앞서야 하는데 적당히 채색된 발언을 일삼는 인색한 처사는 자중해야 될 것이다. 여하튼 62년은 우리 정부와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자손만대가 번영을 위하여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하여 과거의 방관적이고 무기력한 습성에서 벗어나 자조 정신에 입각한 창의와 인내 그리고 권면으로 경제재건의 반석이 되는 5개년 장기 경제 개발 계획의 제1차 연도를 결실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는 경제재건의 진로를 명시하는 완전무결한 계획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나열적인 통계와 비현실적인 탁상식 소요 자금의 염출(捻出) 방법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금 조달에 있어서 첫째로 미국의 무상 및 유상 원조 획득에 치중해야 된다. 이번 박 의장의 방미로 한미 간의 유대가 가일층 밀접해졌으며 케네디 대통령은 혁명정부의 긴급 경제 시책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은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한 원조를 계속할 것이며 혁명정부가 적극 추진 중에 있는 5개년 경제 개발 계획도 훌륭한 착상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신년도의 대한 원조 규모가 금년도의 1억 8만불 선에서 3,000천 불이 삭감되리라고 전해지고 있는 반면에 차관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도 아무런 시사가 없다는 것은 심히 답답한 일이다. 또한 민간 외자의 도입을 위해 도미(渡米) 중에 있는 민간 경제 사절단이 활발한 교섭 중에 있으나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가급적이면 외자 도입의 촉진을 위한 방법을 좀 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재검토하여 신년도의 개발 계획에 차질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바이·아메리칸 정책같은 것도 액티브하게 워싱턴 원조 당국과 수정 교섭을 진행해야 된다. 미국 상품 구매 정책이 미국의 국제 수지의 균형을 위한 일환책임은 긍정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반공의 보루로 자유 세계의 전초기지로서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60만 대군의 추지 등은 참작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 역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5개년 경제 개발 계획을 성공리에 수행하기 위하여는 동떨리지가 수행되어야 한다.

(필자·산업경제신문사 경제부장)

<사회>

자조(自助) 정신으로 생활 환경 개선(改善)

조효원(趙孝源)

(1) 제2차 세계 대전이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의 승리로 그 종언을 고하자 식민지의 오랜 생활에서 주체성을 상실했던 대부분의 약소국은 저마다 나라를 다시 찾았다는 견해를 수 없는 환희에서 동포의 따뜻한 정을 축배로서 나누기에 여념이 없었다. 마치 국가의 번영이 일시에 그들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그러나 극히 순간적인 화려한 격동에서 깨어났을 때 그렇게도 낙관했던 조국의 앞날에 난마와도 같은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른바 경제적 압력이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식민지 시대의 정치적 압력에 대신하여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빈곤과 질병 등이 차츰 평균화해가고 영산주의(英產主義)의 독소가 틈틈이 만연해 가기 시작하자 드디어 국내 문제의 범주를 벗어나 선진적인 자유 진영 국들의 중대하고도 시급한 당면 문제로 클로즈업하게 되었으며 후진국 또는 저개발 국가라는 어색한 대명사 아래 가지가지 그 극복책이 강구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이들 후진국의 불행한 최대 공약수로는 인구의 과대 무지 빈곤 실업의 범람 질병의 만연, 생산 기술과 생산성의 저열, 자본 형성의 미숙, 교통 및 통신 기관의 미비 등이 지적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보아 우리 한국 또한 유감스럽게도 이 범주 속에 끼여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 한국과 같이 인구의 8할 이상이 농촌에 살고 있으며 거기에는 도시와 농촌의 기형적인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정부의 관심 또한 농촌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 주민들에게 인간 이하의 생활 상태를 탈피하게 하고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과거 가지가지 대농촌진흥사업이 분산적으로 시도되어 왔으나 어느 것

하나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농촌 지역 사회에 잠재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의 다각적 상호 관련성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종합적 시도로서의 지역 사회 개발 사업이 다목적적인 사업으로서 효율적인 농촌 진흥을 위한 최후의 수호자로 등장하게 된 그 필연적인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2) 아무튼 지역 사회 개발 사업이란 일정한 지역 내의 주민이 그들의 생활의 개선과 향상을 위해서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것을 실천 수행하는 사회에 발전 사업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부락 내의 주민 스스로가 외부적인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그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건전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적인 자립 자조 정신의 한 표현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사업의 근본 원리는 어디까지나 부락민의 적극적인 공동 참여로써 그들의 공통 욕구에 기한 문제는 다수자의 활발한 의견 교환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과거의 농촌 부흥 사업이 농민의 자조 정신을 배양하지 못하고 따라서 농촌 지역 사회의 구체적 운제자인 그들로 하여금 선도 위치에서 물러나 오히려 피동적인 방관자의 역할을 담당케 함으로써 예산과 시간 낭비만을 제재했던 사실을 상도할 때 본 사업의 탄생이 그들 농민들에게 얼마나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의욕을 진작시켰던가 하는 것은 본 사업이 지닌 정신적 기초와 그 민주적 원리에서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지역 사회 개발 사업이 지나치게 정부만을 믿고 의존하던 지난날의 퇴폐적인 타성을 대신하여 자조 정신과 창의력을 길러 부락의 문제를 부락민 스스로가 현명하고도 건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적인 사회 개혁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날 지역 사회 개발 사업은 후진 여러 나라에 있어서는 주로 미국의 재정적 원조를 중심하여 거의 유행적으로 채택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및 중동 여러 나라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가적 사업으로 크게 전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필리핀이나 인도같은 나라는 대통령 또는 수상의 직속 기관으로서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을 받아 예산면에 있어서의 비중도 대단한 실정이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이 사업이 처음으로 채택된 것은 1957년 6월의 한미 합동 경제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한미합동 지역 사회 개발 실시 준비 위원회가 설치되고 이것을 모체로 하여 필요한 제반 준비를 갖추어 다음해인 1958년 9월 2일자 대통령령 1,384호로 지역 사회 개발 위원회 규정이 공포됨으로써 구체적인 실현을 보게 된 바 그 황을 약술하면 1958년 11월에 한국 초기의 시범 부락으로서 경기도 광주군, 충남 연기부, 경남 울산군과 경주도의 남제주 및 북제주군의 5개군 12부락을 선정하여 이른바 시범 사업에 착수하였다. 사업의 성과는 의외로 큰 바 있어 이에 용기를 얻은 지역 사회 개발 중앙 위원회는 1959년에 전국 9개도 20개 군 121부락으로 확장하였으며 또한 1960년도에는 40개군 274부락, 그리고 1960년도인 올해 말까지는 85개군 804부락으로 대폭 확장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이에 종사하는 지도원은 그동안 5기에 걸쳐 456명이 5개월 이상의 현지 실습을 포함한 교과 과정을 이수하여 그들이 습득한 바 이론과 실재를 부락민과 더불어 기거를 함께 하면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만3년 남짓한 기간에 걸친 실적을 일정한다면 농산물 산업 가공사업으로 계정 공장, 전분 공장, 단무지 공장, 고공품 시설, 기타 가내수공업 시설 등이며 개간 사업, 산린 사업, 과수 재배와 문화관 산업회관 등의 건설 사업, 기타 중 축산 사업, 수산사업, 보건 위생 사업 등 그야말로 다각적이며 다목적인 사업이 이루어진 것을 대충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할 것은 이들 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락민의 자체 부담이 사업 총액의 50% 이상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 사회 개발 사업은 부락의 이용할 수 있는 인적 및 물적인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외부적인 원조는 이들 사업에 활력을 주기 위한 일종의 촉매 작용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지역 사회 개발 사업도 이미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기에 무색하지 않을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 구체적인 예로는 올해 5월 6일부터 12일에 걸쳐 서울에서 ICA와 우리나라 공동 주최로 지역 사회 개발 국제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사업 총개는 물론 당면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한 토의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외국 무대에도 진출하게 되어 필자는 올해 9월 한국을 대표하여 ECAFE 지역 사회 개발 국제회의에 참석할 영광을 얻게 되어 그 자리에서 한국의 지역 사회 개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주었으며 그밖에 전반적인 세미나도 가졌다.

이리하여 한국의 지역 사회 개발 사업도 사실상 올해 5월의 국제회의를 고비로 하여 시범 단계를 탈피하여 이제는 전개 과정으로 들어가도 좋다는 자신을 얻게 되었다. 다만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그 추진체인 사업 기구가 정부 각 기관의 강력한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잡아 그 안전성과 영구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구 자체가 부단한 유전의 과정을 밟았다는 것은 다소 유감된 바 없지 않으나 이것 역시 발전을 위한 한갓 과도기적 현상으로 자위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혁명정부의 주요 시책에 발맞추어 본 기구가 농림부의 한 내국으로 되었으며 사업의 전망은 지극히 희망적이라 할 것이다.

어떻든 전개 과정에 들어선 지역 사회 개발 사업이 더구나 혁명정부의 1962년도부터 시작되는 제1차 5개년 계획에 어깨를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도 좀 더 의욕적이고 야심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역 사회 개발 5개년 계획이 이의 구체적인 뒷받침이라 하겠다.

(3) 첫째, 1962년부터는 지역 사회 개발 사업의

전개 과정 돌입 제1단계로서 그리고 전국 3만 20여의 자연 부락을 전부 커버하기 위한 일단으로서 시범 부락의 대폭적인 확장과 지도원의 확보이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782개 부락의 신설 또는 확장과 지도원 500명을 훈련 양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시범 부락 수는 도합 1,568개가 되고 지도원은 956명이 되는 셈이다.

둘째, 지방 분리 내지는 지방 자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락 자치 지도자의 대폭적인 철저한 양성이 다. 따라서 첫 단계로 1958년도에 선정되었던 12개 시범 부락을 부락 자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그야말로 부락민 스스로가 부락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고 우리는 주의 깊은 검토를 할 것이다.

셋째, 이 사업에 종사하는 지도원의 채용, 교과목, 훈련(현지 훈련 포함) 및 지도 활동 등 전반에 걸쳐서 효과적인 재검토를 실시할 것이다.

넷째, 지역 사회 개발 사업의 방법을 도시 지역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그것이 또한 과연 가능한가 한데 대하여 세밀한 연구를 할 것이다. 올해에는 그에 대한 한갓 측면적인 시도로서 귀농 정착 사업에 지도원을 종사토록 하고 있다.

다섯째, 정부 보조금의 교부에 있어 그 대상 사업 종목에 프라이어리티(Priority)를 설정할까 한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일정한 틀에 잡힐 것을 염려하여 회의적인 비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체의 운영 및 관리를 비롯해서 생산증 증가에 주력을 두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여섯째, 농촌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 사회 구조에 대한 좀 더 깊고 체계적인 연구는 물론 우리 사업이 농촌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을 냉정한 입장에서 비판적인 조사 평가를 우리 직원을 비롯하여 사계(斯界)의 횡위자(橫威者)와 공동으로 시도할 생각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업의 보다 뚜렷한 진로가 파악될 것이다.

일곱째, 동계 농어민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특히 문맹 퇴치에는 재건국민운동본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적어도 시범 부락 만큼은 내후년의 총선거에 혹시 나도 실시될지 모를 기명 투표에도 손색 없도록 각별 유의하여 시범 부락으로서의 긍지를 과시할 것이다.

여덟째, 지역 사회 개발 관계국과의 긴밀한 유대를 도모할 것이다. 특히 아시아·아프리카·중동 여러 나라의 중립국과의 상호 긴밀한 관계는 우리나라의 외교 활동에도 커다란 기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그 좋은 예를 보였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지역 사회 개발 사업을 주요국책의 하나로 하게 하는 문제다. 이것은 20세기의 행정국가·복지국가·문화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사업이 일종의 범 국민운동으로 요청되는 바 이는 장구한 시일을 두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4) 민주 정치가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정치를 의미한다면 치치자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부를 불신한다는 것을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하든지 이 피치자인 대중에 그 뿌리를 박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의 대다수가 농민이고 보면 이들 농민의 건전한 불만을 해결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부락민의 공동 참여로서 그들의 문제를 그들 스스로가 성취하고자 하는 자립 자동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지역 사회 개발 사업이며 이 사업을 통합함으로써 지나친 정부 의존적인 불합리한 타성이 해소될 것이며, 한편 정부는 신뢰받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과로서 성급한 판단을 내릴 것이 아니라 수목의 성장과도 같이 불굴의 끈기와 인내로서 조심스레 가꾸어 나갈 때 자립 경제의 확립 또한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필자·농림부 지역 사회 국장)

<외교>

국제사회에의 적극적 참여를

김기수(金基洙)

1. 과거 자유당 정권 10여년의 한국의 외교적 기초는 미국과의 협조에 그쳤고 그의 외교 형식으로 나타난 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한미 통상 조약이다. 그러나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아시아적 입장과 국제 사회적 입장에서 우리의 외교적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혁명 정권이 자유 세계와의 유대를 위하여 대륙 각국에 친선 사절단을 파견하였고 또한 한국과 직접 관계국인 일본과 미국에 박 의장 일행이 방문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의 외교적 기초를 위하여 획기적 방법이었다고 본다.

우리는 1957년 11월 5일 미영 수뇌 회담을 하기 위하여 워싱턴으로 급행한 맥밀란 영 수상이 미국 하원에서 성명 보고한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소련이 스푸트니크 제1호 발사 직후의 회담이었는데 그는 하원에서 “나는 지의(遲疑) 준수(逡巡)하지 않고 지금은 역사적으로 참으로 전환기라는 것을 믿는다. 러시아 및 소련 공산주의의 위협이 오늘날과 같이 큰 적은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각국은 단결할 필요가 오늘날같이 절박한 적도 없다고 나는 믿는다.”고 성명하고 또한 미국인은 자국과 같은 대국도 동맹국과 일체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그의 생존을 확보할 수 없으며 하물며 그의 옹호하는 이상을 견지할 수 없다고 믿는다고 보고하였다. 이와같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주권 국가의 자주

독립, 자급자족이라는 사고 방식은 시대 착오이고 자유 세계의 각국은 참다운 협력과 힘의 분담과 임무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의 지금까지의 외교 기조는 이러한 의미에서 너무나 소극적이었고 고립적이었고 미국 의존주의였다고 본다. 우리는 후진국으로 또 약소국으로 자처할 것 없이 자유 세계의 분담을 가지며 그의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적극적인 외교 시책이 필요하다.

2. 한국의 평화 달성을 대내적으로 공산 침략의 위협의 제지와 경제 5개년 계획의 수행에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국제적 지위의 향상에 있다. 이 양자는 상호 유관하며 대내적 평화의 달성은 대외적·국제적 지위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 정세와 국내 사정으로 보아 대내적 평화의 달성은 한국의 독자적 방법으로도 이룩할 수 없는 형편이며 그것은 자유 세계와의 유대에서만 가능하다. 오늘날 평화라는 것은 세계적 평화라는 이상론에서 아니고 노벨 평화상의 수상자 레스터·피아슨이 지적한 것과 같이 각기 자국의 방법으로 이룩한 자국자신을 위한 평화이다. 한국의 평화는 한국의 입장에서 고찰해야 하며 그의 이익적 방침을 발현해야 한다.

한국의 대외적 시책으로서 고려되는 것은 자유 세계의 각국과의 행동적 협조 아시아의 자유제국과의 방공 형성 및 경제적 조정 일본과의 정상적 국교 개시 미국의 좀 더 적극적인 군사적·경제적 원조의 조성 등이다. 한국은 약 3천만의 인구를 가지며 역사적 전통의 주권 국가이다. 지금 자유 세계의 각국에 비교해서 3분의 2 이상의 존재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오늘날 자유 세계에 있어서 그의 국위와 발언권이 열등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한국이 과거 10년 동안에 있어서 자유 세계와의 접촉이 결여했다는 데 원인이 있다. 이제 한국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유 세계의 각국과 접촉하여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행동 노선을 취할 필요가 있다. 자유 세계의 각국과의 공동적 노선을 취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지위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의 방법으로서 자유 세계의 각국과의 정식 외교 관계의 수립과 국제 연합의 가입과 자유 세계의 각종 국제회의의 적극적 참여가 요청된다.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오늘날 공산국은 어느 때보다도 군사적 공세와 경제적 공세를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그의 공세를 제지한다는 것은 아시아 각 자유국의 공동적 사명이이며 그것은 결코 어떤 당면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그의 직접 간접의 공세는 아시아 제국의 집단적 자위와 공동적 경제권의 형성에서만 제지될 수 있다.

그의 방법으로서 한국이 동남 아시아 조약 기구(SEATO)에 가입하든가 또는 아시아 자유 제국과의 별개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산국의 경제적 공세를 제지하기 위하여 또는 아시아 자유 제국의 경제적 확립을 위하여 유럽 공동 시장과 같은 지역적 경제 협력체를 아시아 자유 제국에서 가지는 것이다. 우리는 영국이 이번 자기의 자치령과 결별하고 유럽 공동 시장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선진국이며, 우리의 인방국(隣邦國)이며 한국과의 역사적 관여국이다. 이러한 일본이 자유 노선을 가지는 한해서 한국은 그와 정상적인 국교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대등적 입장에서 상호 협조하는 방향이다. 우리 지도자들은 과거의 경험에서 선밀(線密)한 판단력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일본과의 국교 조정은 한국의 5개년 경제 계획의 점차적 성공과 평행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은 한국의 현상의 군사적·경제적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좀 더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된다. 한국의 자유 세계에 있어서의 분담과 임무를 재인식하고 혁명 이후의 한국의 의욕을 다시 검토하여 공산 침략의 위협을 제지하기에 충분한 군사적 협력과 경제 5개년 계획의 수행에 충분한 경제에 협력이 요청된다. 우리는 그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 대미 정책을 감행해야 한다.

3. 1957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연두 일반교서에서 “공산 제국주의 정권은 최근 점차로 직접 무력에 의뢰하여 확장하고자 하는 기도에서는 큰 좌절을 보았다. 그의 결과로 그들은 정치적 지배의 전제로써 특히 새로 개발도상에 있는 여러 나라의 경제적 침투에 크나큰 집중을 개시하였다.……그의 비군사적 활동을 과소평가하면 그것은 우리들의 군사력에 불구하고 자유세계는 패배되고 말 것이다. 우리들의 대부분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혹은 인식하고자 하지 않는 그것 자체로 인하여 그의 위협은 점차로 강화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 교서를 다시 상기하여 명심해야 한다. 소련의 경제적 공세를 제지하기 위하여서는 자유 세계의 대표인 미국이 저개발 자유국을 적극 원조해야 하며 동시에 저개발 자유국의 자각과 상호 연결이 필요하다. 영국의 소련 문제 통인 하리·윌튼은 그의 근저 「제3차 세계 대전」에서 새로운 전장은 무역과 산업이라는 별체를 부치고 있으며 소련의 새로운 경제 선전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제3차전을 무역과 산업의 전장으로 보고 있다. 이 전장에서 패배하면 그의 국가는 경제적으로 멸망한다. 이 점에서 대표국은 일본과 영국이다. 그것은 사회주의 제도가 자본주의 제도를 압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현재 군사 동맹 기구를 경제 협조 기구로 전환하고 있는데(NATO SEATO 등) 그것으로 족하지 않고 자유 세계 전체의 경제적 협조를 위하여 자유 세계의 일체적인 무역 대책과 산업 대책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자유 세계의 군사적 유대에서 경제적 유대로의 전환은 긴급하다. 한국도 이 점을 인식하고 우선 5개년 경제 계획을 수행하며 자유 세계의 제국과의 무역 대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결코 자금 자족에 있지 않을 것이며 우방과의 경제적 협조를 등한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영국과 일본의 과거와 현재의 경제 성장과 무역 대책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

4. 현재 한국은 군사적으로 미국과 방위 조약을 하나 가지고 통상적으로 미국·필리핀 등과의 조약을 가질 뿐이고 적극적인 경제 협조 조약은 거의 없다. 이와 같은 빈약한 외교적 기조로서 어떻게 주권 국가의 행세를 할 수 있으랴.

우선 한국은 현상을 타개하고 국제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유 세계의 각국과의 통상 우호 조약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 NATO·SEATO 등에서 취한 것과 같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중에 경제 협력에 관한 확고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을 권고하고 싶다. 또한 상술된 바와 같이 아시아 자유 제국과의 전체적 또는 개별적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한국의 국제적 협력이 노정되며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의 주권국으로서 행세가 가능하다.

한국은 3차의 정권을 가졌으며 과거의 무질서와 무능 부패의 정권에서 위영된 불행은 가졌었다. 이제 한국은 재건에 착수하였다. 한국과 한민족의 번영의 특혜는 이제 다시 없다고 본다.

오늘날에 한국이 요구되는 것은 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의 한국민이 그의 통찰력과 조국애를 철저히 가지는 것이다. 정부측으로서는 단호한 결의와 원숙한 외교가 요청되며 또한 국민으로서 용기와 책임과 단결이 필요하다. 모든 국가와 국민이 다 잘 살고 있는데 우리만이 이렇게 고행을 겪고 있느냐 경험과 이지의 결여에 있으나 책임과 단결이 없는 까닭이나 한국의 평화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다같이 노력할 때가 왔다고 본다. (필자·동국대학교 교수)

<생활>

계획(計劃) 있는 생활(生活)로 오붓한 살림을

양재모(梁在謨)

인간 생활 중에는 식생활·의주 생활·성생활·사회생활·경제생활·문화생활·종교신앙 생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족계획은 이 모든 생활과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이처럼 가족계획이 우리 생활의 합리화와 향상을 위하여 중대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정부가 이에 대하여 무관심 또는 무책임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욕구는 묵살되어 왔었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19일 국가재건 최고 회의 박 윗아의 가족 계획에 대한 분석 성명을 계기로 지금껏 막아 두었던 수문이 터진 듯 그야말로 3천리 강산이 가족 계획의 홍수로 뒤덮이고 말았다. 우리는 군사혁명정부 지도자들에게 감사하는 동시에 이 수문이 트일 때까지 여러 숨은 공로자가 있음을 잊지 않거니와 여기서 특기할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카톨릭 주교단에서 가족 계획을 오해한 나머지 반대 성명을 신문지상에 발표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한분도 반대하는 이가 없고 오히려 만시지탄으로 모두 다 적극 찬성하였다는 것과 또 하나는 정작 수문이 트이고 보니 가족 계획에 대한 수요의 홍수가 대단함에는 새삼스레 놀랄 정도다. 작년 이맘 때에 국제 가족 계획 연맹(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n) 회장과 특별사단 Cadbury씨 내외가 다녀간 후 몇 차례의 발기 회합을 가진 후 올해 봄에 대한 가족 계획 협회(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Korea)의 창립 총회를 열었을 적만 하여도 참석한 회원은 50명에 미달하였었다. 그러던 것이 요즘은 가족 계획의 일대 선풍이 불었으니 Cadbury씨 내외가 다시 와보면 놀랄 것이다.

1. 1962년은 중요한 해다.

1961년 중에 우리는 가족계획 사업의 터전만을 잡아놓았다. 이 터전에 어떤 집을 설계하고 세우느냐는 순전히 1962년에 달렸다. 한번 지은 집을 마음 안둔다고 뜯어 고치기란 힘든 일이다. 정부가 어느 정도의 예산 규모로 이 사업에 투자하느냐도 1962년부터 정해지는 것이고, 정부는 어느 정도로 나서고 민간 단체가 어느 정도로 참여하느냐도 1962년에 달렸고 앞으로 이 사업의 성부를 좌우하는 분수령도 1962년에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1962년에 기대도 크지마는 한편 상당히 조심이 된다. 만약에 쓴살같은 가족 계획의 격류가 그릇된 방향으로 뻗쳐 나갈 적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두렵다.

2. 올바른 가족 계획의 목적과 정의를

일본이 지난 2차 대전 전까지 그 국민들 보고 다산 증식을 고취하다가 종전 후부터는 180도 전환하여 인공 임신 중절까지 포함한 산아 제한을 권장하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창하는 가족 계획은 시대 여건에 따라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불변하는 목적과 정의를 가져야 한다. 특히 (가), 가족계획은 오직 국가의 인구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위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국가 목적의 수단이 아니라 국가가 곧 국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계획도 국민 개개인과 각 가정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있을진대 국가의 인구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위하여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가족계획으로 말미암은 개인의 이해와 국가의 이해는 일치된다. 따라서 어느 편을 위해서 하나 이익은 양편에 다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지마는 개인과 가정을 위한 것으로 가족계획을 표방했을 때와 국가 목적을 위한 가족 계획으로 표방했을 때 간에는 이 사업 성공 여부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국가정책을 논할 때를 제외하고 일반 국민 대중에게 대하여서는 우리나라의 높은 인구밀도, 낮은 국민소득, 영세화된 농가의 대가족, 다산소사의 생산성이 낮은 인구형, 3%란 고율(高率)의 자연 증가가 초래하는 국가 자본 조성의 지체, 사회불안의 증가 등에 관한 논의는 될 수 있는대로 피하고 개인 가정의 행복행과 가족계획을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나), 가족계획은 산아제한이 아니다. = 많은 사람들이 가족계획과 산아제한이란 두 용어를 혼동하고 있다. 이러한 혼동은 많은 지역 특히 아시아 후진 지역에서는 실지 부모들의 건강과 경제 능력 및 교육 책임 능력에 비해서 과분한 많은 자녀를 두는 폐단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근세에 들어서 사망률의 급격한 저하로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인구 증가의 억제를 강조한 나머지 이 산아 제한이란 소극적인 용어가 널리 퍼지고 말았으나 말은 아주 편협하고도 오해받기 쉬운 용어니 인구 정책을 다룰 때 이외에는 될 수 있는대로 안쓰는 게 좋겠다.

기실 우리가 말하는 가족계획이란 부모 각자의 건강 상태와 경제 능력 및 산수의 교육 책임 등에 알맞게 계획적으로 가족을 이룩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계획사업 내용 중에는 결혼 문제에서 시작하여 초산의 시기, 불임증의 지도 및 치료, 출산의 간격과 회수, 임신의 이상적 계절, 임신중 영양(榮養)되는 것이 지 덮어놓고 일률적으로 자녀 몇 명 이상은 낳지 말자든가 아들 몇 명에 딸 몇 명이 좋다든가 하는 따위의 산아 제한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족계획은 생활 운동이고, 공중 보건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다), 가족계획은 인공 임신 중절(유산)을 피임으로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 가족계획이 인공 임신 중절을 수단 방법으로 권장하는 것처럼 말하는 오해가 아니면 중상모략이다. 이미 수태(受胎)로써 생겨난 생명체를 타단(墮胎)시킨다는 일이 도의적으로 좋지 못함은 물론이고, 모체의 건강을 위하여서도 유해무해하기 때문에 가족계획에서는 피임법으로써 원치 않는 임신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 대신에 일단 생겨난 생명은 이를 존중하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 피임법 사용에 대하여서도 논란이 없지 않다. 그 논란의 첫째는 화학적 또는 기계적인 피임법을 사용하여 정자나 난자 같은 생명체를 죽인다는 것은 인공 피임 중절이나 마찬가지로 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자와 난자는 서로 결합되어야 비로소 생명체를 이룩하지 그 전에는 생명체가 될 가능성만 가지고 있지 아직 생명체는 아니다. 또 남자나 한번 사정할 적만 하여도 5억에 가까운 많은 정자가 사출(射出)되는 것이니 이 무수한 정자를 다 살릴 도리도 없거니와 실지 오랜 금욕으로 사정하지 않고 둔다 할지라도 그 정자들은 성기 내에서 파괴 흡수되는 것이다.

둘째의 논란은 성교는 수태를 위한 것인데 피임으로 성형락(性享樂)만 함은 자연의 섭리에 배치된다는 것인데, 이 논란은 인간을 동물의 경우와 혼동한 때문이다. 동물에 있어서는 암컷이 수태하려 할 적이 아니면 발정(發情)하지 않으며 또 그때가 아니면 교미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인간에 있어서는 부부 간의 성교는 반드시 임신에만 선행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논란은 피임법의 보급으로 성도덕의 문란을 초래할 거상라는 점이다. 일찍이 페니실린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을 적에 그 성병 치료에 대한 탁월한 효과는 좋으나 그 결과 성도덕이 문란해질 것을 우려하였으나 오늘날 그것이 기우였음이 알려졌다. 간혹 식도를 강도가 살인 혐박용으로 오용한다해서 모든 부엌에서 식도를 없앨 수는 노릇이나 마찬가지로 성도덕의 별도로 다루어질 문제이다. 설혹 불의의 성관계에 피임법이 악용된다 하더라도 피임하지 않아서 피임된 것을 낙태시킴으로써 악이 악을 낳는 불행보다도 낫지 않을까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인공 유산은 공공연히 해도 좋은 듯이 착각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하겠으나 한편 모체의 건강 또는 사회 경제적 이유로 인공으로라도 그 피임을 중절시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측이나 의사측이나가 다 떳떳이할 수 있도록 양성화해줄 필요가 있다.

3. 관(官)이 직접(直接) 일선(一線)에 나서는 것은 고려할 문제이다.

가족계획이야말로 관권이나 명령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백성의 관에 대한 책임이 두텁지 않은 경우에는 관이 나서면 오히려 반발적으로 나올 우려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관이 못 미답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관이 못 미더웠기 때문에 그 여과가 아직 대중의 뇌리에서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일의 성과를 위하여 일선에 나가는 민간단체를 내어 세워서 자발적 민간 운동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관은 막후에서 재정적으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를 밀어주어야 하며, 외국에서도 그렇게 한 나라가 성공하였고 관이 직접 나선 나라에서는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극담구호 대상층(極貧救護對象層)에 대하여는 민간의 자원과 인재를 동원 참여시키지 않고서는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4. 좋은 피임제(避妊劑)가 보급(補給)되어야 하겠다.

가능하면 국산품을 애용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그 품질이 우수하지 못하면 모처럼 가족계획 하려던 사람이 국산품을 사용하다가 실패하는 경우에는 가족계획 전체에 화가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검정을 엄격히 하여야 하며 국산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으로서도 외래품 수입을 조절해가면서 허용하여야지 무제한 허용도 불가하고 전적 금수(禁輸)도 불가한 줄 안다. 지금 일본서는 콘돔은 초입구는 약간 좁고 구석 즉 첨단 쪽은 직경이 넓은 성형(成型)으로 내년부터 제작해 내는 모양이고, 발포성(發泡性) 피임(避妊) 질정제(膠錠劑)도 루프(가락지)형으로 된 것을 권장하고 있다.

5. 개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 먹일 수는 없다. 대가족을 가지게 되는 문화 인류학적 요인은 다남다복의 사상, 과거 경험한 사회불안과 고율의 영아 사망률, 아직도 자녀를 믿고 노후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소위 자가 보장 제도, 자립 자족적인 농촌 사회 경제 생활 체제, 너무도 낮은 생활 수준과 교육수준, 종교·윤리·습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따라서 이런 문화적 인자들을 바꾸도록 해주지 않는 한, 아무리 당신은 이미 딸이 다섯이나 있는데 무엇하러 또 더 낳으려고 하느냐?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데 문화의 개변이란 쉬운 일이 아니고, 일조일석에 되는 일도 아니다. 오랫동안 지녀온 문화적 특질이란 비록 그것이 낡아서 소용없는 것이라도 버리기 아까워하는 애착을 가지는 것이 인성이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국민 대중이 새 것에 대한 반신반의의 주저하는 태도를 양해하고 변경에 대한 고통이 있으리라는 것을 이해하는 아량을 갖고 국민을 대해야 한다.

6. 지도에는 연구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각기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에 따라 무엇이 가장 환영받는 피임법인지 모르고 있다. 딴 나라에서 성공한 방법이라고 반드시 우리나라에서도 환영받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 지도 요원도 일본서는 조산원으로서 63시간의 자격 인정 강습을 받아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루 이들의 강습만 받아가지고 과연 올바르게 지도할 능력이 있다고 보겠는가 의문이다. 그러므로 연구와 지도는 긴요한 일이다.

“낳기만 하고 잘 기르고 교육시키지 못하는 것도 죄다.” 이는 인도의 간디 옹의 말이다. 우리는 1962년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책임을 지는 신(新) 생활로서 이 가족계획을 추진하여 복되고 명량하고 윤택한 가정생활을 이룩할 것을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필자·의학 박사 연세대학교(延世大學校) 교수)

공군미술전(空軍美術展)을 보고

박세원(朴世元)

지난가를 중앙공보관에서 발표된 공군미술전은 건군 이래로 처음 시도된 조그마한 향연이었으나 비교적 질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이 관중의 적지 않은 관심을 모아 크게 성공하였다. 군에서 직접적으로 사병의 미술 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있다는 즐거운 사실은 공군밖에도 누차에 걸친 해병대의 미전에 의하여 실증되고 있는 바이지만 그 횡수가 거둬지고 겸하여 표현 방법과 기교면에 있어서 슬기롭게 향상하는 과정을 볼 때마다 깊은 감명을 받아 왔다.

다사분방한 군무의 여가를 틈타서 보람 있는 작품들이 제작되고 동시에 그것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수다한 관객의 심안을 값있게 자극해줄 수 있었다면 그 기쁨은 유독 군 자체만의 경사로서 그칠 성질의 것은 아닐상 싶다.

하나의 작품을 조형할 경우 제3자의 입장에서 방관한다면 매우 용이할 것 같고 대수롭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실상 작품을 창작하고 다루는 작가에게는 항시 적지 않은 오뇌·고민 그리고 인내와 노력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러한 진통의 과정을 남달리 많이 겪은 작품일수록 관람자는 그것에 대하여 더욱 친밀감을 가질 수 있고 또 거기서 발산하는 작가의 개성과 인격까지 감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군미술전이 한결같이 위대하여 적지 않게 모색한 자족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먼저 전시장 어귀에서 동양화 전공 김원세 군은 목매·목죽에 난숙하면서도 자유분방한 운필을 구사하여 온화하게 마련된 분위기를 더 한층 호뜻하게 양성해 놓았다. 영예의 대학원장상을 획득한 바 있는 김군의 이번 작품에서는 과거의 평범한 기법을 과감하게 탈피하려는 의욕이 엿보인다. 특히 목해에서 수묵만이 가질 수 있는 운선법(暈渲法)을 요령있게 요리한 솜씨가 솔직 담대해서 더욱 좋다. 다만 유감이 있다면 작자 자신이 지나칠 정도로 도취적인 기교 면에 치중한 점이라 할까, 자칫하면 오만해지기 쉬운 기술 본위의 관능적 함정 안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었으면 한다.

전시 작품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수채화에서는 대체로 3인이 똑같은 기법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작가의 개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수채 본연의 생명일 번짐의 묘미를 작품마다 적절하게 써서 신기한 효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불투명한 수채의 색조 혼련이 결핍되어 도리어 중요시되어야만 작가의 개성이 표현될 수 있도록 가능한다면 진부한 색깔은 제거하거나 피해보면 어떻까.

조희도군의 유화 「국토개발지」는 기성 작가의 기능을 충분히 능가하고도 남은이 있을 작품이다. 작년 한국 미술가 협회 공모전에 응모하여 특상을 차지한 조군은 이번 작품에서 더욱 활자하고 집착성있는 색의 조화와 터치를 구사하여 성공하고 있다. Semi-Abstrat한 구성을 시도한다는 것은 평범한 노력만으로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실과 추상 사이에 개재하는 반추상이란 이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기술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이비적인 작품이 나오기 알맞은 연고이다.

조군은 특히 이 점에 주의하여 제작에 더욱 고민하고 사색하며 밀고 나아가 주기 바란다.

김무부군의 선전 포스터는 전문가 아닌 디자이너로서의 훌륭한 능력을 과시한 작품이다. 어떤 면에서 군민의 생활 감정을 직접적으로 보다 긴밀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다닌 선전 포스터의 강대한 위력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의 규율 권위를 더욱 능률적이고 효과있게 선양시킬 수 있는 하나의 무기이기도 한 것이다. 이번에 전시된 김군의 포스터는 아직도 미숙한 진통의 작품이기는 하나 그것이 못군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자못 크 의미가 있다 할 것이며 관중 역시 이 포스터를 통하여 공군의 뚜렷한 존재를 새롭게 재인식하였으리라고 믿는다. (필자·동양화가)

1961년을 돌아보다 비약(飛躍)의 사대(士臺)를 마련

김효록(金孝祿)



<경제계(經濟界)>

다사다난하였던 신축년도 거의 해가 저물어가고 있으며 머지않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과거 1년간의 우리나라 정치계의 급격한 변혁에 대하여는 별반 언급하고자 하지 않는 바이나 정치적 변혁에 따라 생기게 된 경제계의 변동도 결코 적지 않다. 사소한 것은 제쳐놓고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한 큰 사실 몇 가지만 들추어 보건대 첫째로 민주당 정부가 유아무야로 돌리려고 하던 부정축재자에 대한 처리 문제는 군사혁명정부에 의하여 전광석화적으로 조사처리가 종결되었으며 말썽만 일으키고 있던 전력 3사의 통합도 완성되어 한국 전력 회사는 연생하게 되었다. 둘째로 한국 경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의 생활 안정과 구매력 증진을 위한 방책으로서 농어촌의 고리채 정리, 영농 자금의 방출, 미곡 매상책 등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궁핍 생활을 면하지 못하던 농민들에게도 앞날의 포망(希望)을 주는 좋은 자극제가 되게 되었다. 셋째로는 특정 외래품 판매 금지법을 제정 실시함으로써 지금까지 서울을 위시한 각 도시에서 범람하던 PX 상품 내지 밀수입품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도로 일소하게 되었으며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방출된 중소기업 자금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활로를 개척하게 하는 청량제가 되게 되었다. 넷째는 대규모의 국토 건설 사업의 과감한 실천은 수많은 부동 노무자들에게 일시적이거나 일터를 공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게 되었다. 이 밖에도 혁명정부에 의하여 과거 반개년 동안 실천되었으며 많은 성과를 올린 경제 시책은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게 하는 경제 정책 중의 하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제1차 5개년 경제 개발을 위한 계획안의 완성일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 당국으로서 이 계획의 완전한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가들도 정부의 이와 같은 계획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정(丁)상공부장관(商工部長官)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 사절단을 유럽 자유 진영 각국에 파견하여 외자 획득에 열중하고 있으며 민간 경제 사절단도 동시에 파견되어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 최고회의의장은 자신이 직접 미 케네디 대통령과 일본 지전 수상의 초청을 수락하고 그들 양 거두와 회담을 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제 원조에 관한 많고 많은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위에서 적은 몇 가지의 사실만 보더라도 혁명정부가 비교적 단시일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을 위하여 경주(傾注)한 노력과 그 성과가 결코 적지 않은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것과 달라서 그 효과가 일조일석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며 자칫 잘못하다가는 도리어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말미암은 혼란을 야기하기 쉽다. 뿐만 아니라 자립 경제의 확립은 우리 국민의 지상 과제로 되어 있으며 이 숙원을 달성하기 위한 제1차 5개년 경제 개발 계획은 내년 1월을 기하여 실천 단계에 돌입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중대한 국면에 당도하고 있는 만큼 허심탄회 몇 마디의 사견을 개진함으로써 목표 달성의 일조가 되어 볼까 한다.

첫째로 경제 계획이란 용이한 일이 아니지만 더군다나 장기에 걸친 계획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그 계획이 과학적 기초 위에서 입안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과학적이라는 것은 쉬게 말해서 숫자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인데 과거의 경험을 미루어 보건대 대체로 우리 국민들은 숫자에 대한 관념이 문명 제국의 국민들에 비하여 매우 박약한 듯하다.

보통 우리들 사이에는 '적당'이라는 말이 적용되고 있으나 적어도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적당주의를 채택한다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과거 우리 정부나 민간 기업가들이 가장 소홀히 하여 온 것 중에 하나는 조사 자료의 수집인데 이 꼴로 만들게 한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거창한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초년도의 예산에 있어서는 조사비의 항목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지 않으면 안될까 한다.

둘째는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나 기업가의 대부분은 선자본 후경영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듯하나 자본과 경영은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되며 오히려 선경영 후자본이 아니면 안 된다.

과거 우리나라의 살림살이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한국은 독립 이후 2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립하여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원조가 부족하였다고 탓하는 것이 사실 아니겠는가?

그러나 서독에 있어서는 이와 정반대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서독에 있어서는 패전 이후 폐허화된 국사를 재건 부흥함에 있어 외국 원조에 기대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본이나 노동자는 합심하여 황폐한 공장 부지를 정리하는 한편 나온 기계를 모아 쓸만한 것은 모조리 재이용할 방법을 강구하며 이것으로써 상품 생산에 착수하고 제품의 판로 개척을 꾀하는 데 전력을 경주하였다. 이리하여 판로가 개척되고 점차 확대되는 동시에 새로운 기계도 이와 보조를 같이 하여 설비됨으로써 자본의 낭비란 찾아 볼래야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자본도 타인 자원에 의존하느니 보다는 자기 실력에 알맞은 자본으로 시작하고 거기에서 축적되는 자본으로 공장 규모의 확대를 도모하였을 뿐 아니라 정부도 자본 축적에 대하여는 면세 등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오늘의 부흥을 이루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언필칭(言必稱) 자본의 부족이며 외원(外援)의 간청, 차관의 교섭이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의 대부분이며 ICA불의 불하(拂下), 은행으로부터의 거액 대부(貸付)를 받는 것이 기업가들의 유일한 경영 방법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계 설비를 완료하고도 이동치 못하는 공장의 수를 증가시켰고 거액의 은행 대부를 받은 기업체일수록 그 경영이 불건전하여 대부를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그 운영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오늘날의 실상이다. 원래 민족 자본이 빈약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나 아마 자본의 낭비가 우리나라와 같이 많은 나라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건국 이후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만 하더라도 무려 30억불이라고 하는데 현재 자기 자본만으로 능히 경영을 계속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업체의 수는 과연 몇 개나 되는가, 우리나라 대기업체의 자본 구성에 있어 자기 자본이 평균 0.9%에 불과하다고 하니 이리고서야 어찌 산업의 발달을 기대할 수 있으리오. 연전(年前)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간 서독 경제상 엘할트 교수는 외원(外援)을 바라는 나라에는 경제 부흥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갔다고 하거니와 우리나라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자본도 자본이려니와 이보다도 더욱 필요한 것은 경영을 합리화하여 적은 액수라도 축적을 함으로써 자기 자본을 형성하는 데 국민은 합심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음 끝으로 한마디 할 것은 임금 정책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위정 당국자나 기업가들의 전통적인 사고 방식은 어떻게 하면 중업원들의 임금을 멸하시킴으로써 생산비를 낮추어 볼까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고 방식은 결과적으로 생산의 능률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망각하여서는 안 된다. 자본가적 양식의 생산에 있어서는 물품 생산 그 자체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물품을 상품화하여 시장에 공급하며 공급된 상품이 소비자의 소유인 화폐와 교환되어 생산자의 수중에 환원함으로써 재생산은 가능한 동시에 생산의 확대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은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력이며 풍부한 소비자들의 매력을 토대로 하지 않고 산업의 발전만을 기대하는 것은 결국 연목구어에 불과한 것이다. 서독의 부흥이나 미국의 번영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위정 당국자들이나 기업가들이 이와 같은 진리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임금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일반 중업원들의 구매력을 풍부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노무자들의 능률을 극대함으로써 항상하게 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자 경영을 계속하면서까지 고임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겠으나 후자 경영이 가능한 기업체에까지 저임금의 지불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정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

두서없는 말을 횡설수설하여 대단 죄송하나 우리나라 자립 경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 다소 참고가 되면 다행이겠다. (필자·고려대학교(高麗大學校) 교수)

<문화계>

획기적(劃期的) 정리(整理)와 개편(改編)

백철(白鐵)



5·16의 혁명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 뒤에 진행된 문화계의 동태가 무엇이던가를 살펴볼 때에 한 마디로 설명해서 개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개편을 해간 방향이라던가 진도에 대하여는 결국 혁명 뒤의 정부 당국이 내놓은 혁명 공약과 그 실천 계획으로서 건설적인 5개년 계획의 발표 그 실적의 성적 등과 견주어서 이해되고 계산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런 관련에서 볼 때에 그동안 실제적인 건설의 방면에서는 벌써 주목되는 성적이 숫자적으로 나타난 면도 눈에 띄는 데 그 실제의 성적표와 비교하여 문화계의 진도에는 적어도 현상적으로 보아서 손색이 있다고 느껴진다. 문화계의 움직임이 실제적인 방면의 템포를 감당할 수 없는데는 실은 양자의 성질의 큰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서 그 진도에 거리가 생겨지는 것은 부득이한 사실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선 우리는 상호 이해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즉 문화 예술이라고 하면 그것이 다른 실제성의 행정 분야와 달라서 가령 같은 행정성으로써 그 시책에 운용한다 하더라도 다

새 세대(世代) 역사(歷史)의 제1장

윤종현(尹宗鉉)



<사회>

1961년의 사회도 세월의 바닷속으로 흘러간다. 신문이나 메모를 간추려 지난 일을 더듬어 보는 동안 캘린더의 끝장이라도 남겨두고픈 충격을 가눌 수 없는 한 해였다. 울어도 시원스럽지 않았던 5·16 전의 안타까움이나 불안 혼미, 그리고 15년간의 모든 때와 악과 폐를 벗어놓고 보여준 혁명 후의 정열 의욕 격동상 등……

이런 감격 속에 어느덧 사람과 제도가 달라져 가고 새 세대 역사의 제1장은 엮여졌다. 혼미 속에서 질서와 방향을 찾아 새 사회 건설의 소지를 닦아놓고—

이제 혁명의 고동과 재건의 맥박 소리를 똑똑히 들으면서 새해 입구에 다가서서 역사의 호흡을 느낀다.

× × ×

초하룻날 지면부터 데모 폭력에 관한 뉴스가 실렸다. 청원에서 47명의 부랑 나병 환자가 그곳 요양소를 습격, 집단 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요양소를 점령하기 위해서였다. 전주에선 3백명의 시민당원이 도지사 선거 부정 규탄 데모를 일으켰다. 두 사건은 모두 지난해 그믐날 하오의 일이다. 그 후 전주의 데모는 새해 4일부터 민선지사 취임 거부 농성 데모로 발전, “올해에도 또 데모만 다른 분야에서처럼 수단과 척도를 기계적으로 써서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합리적으로 개편 성장되는 일과 모순이 생기는 경우도 우리는 예산에 넣으면서 항상 문화 예술이란 그 자체의 본성과 또 과거의 질서를 더 존중해서 그 자신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주력으로 되도록 의도하는 것이 문화 예술 운동을 추진시키는 데 방법론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우선 금년도 문화계의 동태를 그런 시책면과 관련해 볼 때에 방법론적인 의미에서 이해도 약하고 척도도 좀 어긋나서 도리어 혼란과 침체 같은 것의 부작용을 일으킨 경향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현상도 눈에 띄는 것이다.

그 문화계라는 범위를 더 확대해서 가령 문교 시책과 대학교육제도의 개편 같은 것을 한 예로 취해 본다면 본시 문교 당국이 한 시책적인 의도는 동 방향의 종래의 부정 불합리를 제거 극복하는 데서 극히 정당한 것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대학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문화적인 것, 그 중에서도 문학 예술의 분야에서 그 동태를 개관하는 것이 더 주요 부분을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우선 그 행정 시책 면에서 보면 이번 혁명정부 이후 공보부(公報部)를 두고 문화 선전국을 신설하였다는 것이 올해 문화계에 대한 커다란 포석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이것으로서 혁명정부는 과거의 정부들과 달라서 문화 육성과 그 선전에 커다란 의사 표시를 한 것이 되며 또 공보 당국자도 이런 문화 행정 기관을 통하여 특히 우리 문화 예술의 해외 선전에 주력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한 것이다. 또 그 한에서는 벌써 일부 성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가령 지난 세계 시인 대회에 한국 대표가 나갈 때에 한국 현대시 영역집을 만들어 가지고 참석을 하여 우리 현대시의 해외 선전을 한 점, 또는 이번 펜클럽에서 한국 단편 소설 영역집을 간행하게 되어 근간에 해외의 주요한 문화 기관으로 배포를 하게 된 것 등이다. 이런 민간의 일들이 문화 기관의 작품 번역의 출판이 가능하게 된 것은 결국 문화 선전국 등이 생겨져서 그런 출판의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먼저 그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금년도의 한 성과라고 보고 싶은 것이다.

다음에 또 하나 시책 면에서 문화계를 향하여 크게 던져진 암시는 이 기회에 문화 예술계를 우선 외형 기강상에서 통합시켜 본다는 시도였다고 본다. 이 시도도 기본적으로 중대하기도 하고 또 그만치 과거의 부정적인 폐단을 제거하는 뜻도 확실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서는 먼저 말한바 문화 예술계의 미묘한 특질과 사정이 개재되어 하루아침에 급한 변모를 가져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보부가 중심이 되어 2차나 문화 예술의 각 분야인을 초청하고 그 자리에 정부의 책임자들까지 참석을 하여 민간인들과 환담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 등은 문화 예술계의 통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본다. 그만치 정부 당국이 문화 예술계의 사람들을 대우한다는 일이 커다란 심리적인 감정적인 친화감을 이룩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금년도 하반기의 문화계의 동태를 본다면 이상과 같은 일들이 계기로 되어 그들이 통합의 실적도 나타나고 그 방향으로 분위기가 조성도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느껴진다. 가령 음악인들이 전국적인 통합을 보아 그 협회가 신생된 것도 한 예가 되고 또 문화계로서도 아직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으나 주요한 사람들의 발의로서 온갖 기성 문학 단체를 해체하고 전국적인 문학 단체를 구성하려는 동기가 재청과 만장일치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 상태가 아닌가 보는 것이다. 그 주요한 흔적으로 나타난 것은 지난 11월 중순에 전국 문학인의 이유로서 소련의 핵실험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낸 사실이다. 결국 문학인, 예술인의 통합이란 것은 어떤 구두 형식으로 규합이 되는 것보다 좀 더 문화적인 의미를 띤 행동성을 통하는 것이 본격이라고 보는 것이다.

나가서 문화계의 동태와 결산을 본다는 것은 결국 문학예술의 작품적인 행위를 계산하는

일하려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었다. 시민들의 마음은 지칠대로 지쳐 넘어와 정초부터 모든 것에 무관심하려는 경향이다. 이 때문에 구랍 29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장과 각 도지사 선거 투표율이 불과 38.2%, 그중에서도 서울은 20.7%밖에 안 되는 오점을 찍고 말았다. 확실히 영하 16도의 날씨와 함께 싸늘한 가슴 그리고 나라 살림에 무관심 하려는 중 4월 혁명의 기백을 잊고 제2공화국 새살림의 의욕마저 식힌 채 제야의 종소리를 거쳐 온 새해였다.

그런데도 당사자들은 데모에 열중이다. 대중과 호흡을 같이 못하는 데모—데모하는 사람들끼리만 흥분하는 데모가 5월 16일 상오 군사혁명 위원회 포고 제1호로써 옥내의 모든 집회가 엄금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4월 혁명 후 과정 때부터 5·16까지 1년 20일 간에 정당, 노련, 학교, 종교 문화 및 교원 기타 단체들의 각종 집회와 시위 수는 1914회 참가 인원 1백 3만 3천 8백 63명에 달했으니 우리는 하루 평균 다섯 번 정도의 데모나 집회 속에 묻혀 살았던 것이다.

이러니 데모를 구경하는 일은 시민 생활의 한 스케줄 같았다. 햇불, 농성, 연좌 지그재그 데모 외에 나체 데모(1월 7일 서울실업자협회원들이기도) 소년 데모(3월 3일 7세부터 15세 소년이 부산에서 쌀값 내리라고) 등…….

× × ×

지방 선거 부정을 규탄한 데 이어 데모의 꼬리를 길러준 것은 물가 파동의 위기 때문이었다.

보릿고개 절량기에 부닥쳐 출회량이 부족한 데다가 관영 요금 인상과 환율 변경(1월 1일 1천대, 2월 2일 1천 3백대 1로 단일화)의 자극으로 1월 중순부터 쌀값과 달러값 일용품 값이 뛰어 쌀 한가마에 2만 환을 호가케 되었다. 쌀을 달라, 직장을 달라, 쌀값을 내리라고 외치는 데모가 대구 부산에서 고개를 들었고 2월 초부터는 절량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면에 클로즈업되어 갔다. 그러나 이런 굶주림의 호소나 교원들의 보건의수당, 8군 노무자의 행정 협정 체결 및 노임 인상, 전업 종업원의 3사 통합 반대 등을 요구한 것은 조건이 순한 편이었다. 이런 데모 기세를 이용하여 2월 하순 대구, 부산 등지에서 터지기 시작한 경협 반대 데모와 2대법(반공법, 데모 규제법) 제정 반대 데모는 완전히 정치성을 띠고 서술이 돌기 시작하였다. 이런 데모는 곧 경찰과 충돌을 야기하고 또한 반사적으로 용공 규탄 데모를 유발시키고 말았다. ‘데모 만능관’, ‘데모 대 데모’의 대결이 일어나려는 살벌한 직전 같기도 했다. 그중 3월 22일 혁신계 정당 단체가 서울에서 열린 2대법 반대 성토 대회의 연장 데모는 지난해의 가장 난동스러운 데모였다.

데모로 옮긴 일부 청년들은 해산 선언을 듣지 않고 당시의 국무 총리집으로 해화동 로타리에서 충돌되고 말았다. 최루탄이 터지고 경관 41명 부상, 민간차 8대 파손 외에 데모 대원 109명이 그날 저녁으로 검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래도 군중들은 방관할 따름이었다. 그 후 똑같은 성격의 데모가 24·25일 대구 부산 마산 등 각처에서 연발되어 실정 규탄의 소리와 함께 세칭 4월 위기의 서곡같은 감이 들게도 했다.

× × ×

4월 위기설의 근거는 확실히 잡힌 것은 없었다. 소문으로는 ‘3·4월 위기설’, ‘4월 폭동설’이라고도 떠돌아 2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치적 애드벌룬같기도 했고 4월 혁명 1주년을 맞음에 있어 혁명 뒷수습을 잘못된 까닭에 불평이 터지고 사회의 혼란이 성장되어 또 반정 폭동이라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과 추측이 굳어져 떠도는 것 같았다. 데모나 빈곤 외에도 위기설의 배경이 된 사회 사태는 어지러울대로 어지러운 것이었다. 쌀값을 비롯한 물가 앙등에 따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도 잦아졌다. 철도의 통신문 1시간 파업(1월 27일), 부두 노조(1월 16일 부산), 부산지구 농은 7개 점포 은행 노조의 첫 파업(3월 3일 단체 계약 체결 구), 석탄 노조(5월 5일) 스트 등은 6·25 사변 이후 처음 보는 큰 규모였다.

이 필터인데 우선 올해는 정부의 시책과 아울러 외모적인 변화는 컸다고 보는 대신 작품의 성과로서는 그 실적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은 사실과 대조할 때에 작품적인 성적이 예년보다 특히 저하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가령 문학 분야에서만 해도 현대문학, 자유 문학의 문예지 또는 사상계와 및 동지에서 내는 문예 특집의 별책이 나오는 등 문단 저널리즘도 비교적 활기를 지속한 편이며 거기 따르는 작품의 양도 상당했고 또 작품의 질에서도 특히 신인들의 중편 중에서 주목할 작품들이 적지 않게 산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는 지난 국전의 작품 실적인데 내 개인으로서 불행히 국전을 보는 기회를 놓쳐 버렸으나 일반 여론이나 시평을 통해보면 기성의 작품과 전위파의 작품들이 각각 좋은 수준을 보이고 대조도 있어서 올해 국전의 성과는 평판이 컸다고 알고 있다. 이런 예 등은 올해의 문화 예술계가 외부적인 변동기였음에 불구하고 작품적인 활동도 약화되지 않은 사실이 반증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금년도의 문화계를 회고 평가한다면 처음 말한 바와 같이 하나의 개편기 또는 하나의 전환기인데 이것은 금후 새로운 현실이 더 진행되고 정치가 더 안정성을 얻으며 경제적인 건설이 이루어지는 환경의 조건과 함께 참된 작품의 실적은 이제부터가 주목된다고 보는 것이며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의 일을 가지고 문화계의 동태를 속단하지 말고 금후에 오는 움직임에 더 기대할 것이 있지 않은가 보는 바이다.

<필자·문학 평론가>

과감(果敢)한 재정비(再整備)

정대시(鄭泰時)



<교육계>

▲오(吳)문교의 퇴진

1960년 9월 민주당 내각의 문교장관으로 오천석(吳天錫) 박사가 취임하였을 때 당시 국내의 교육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였었다. 그가 정당인이 아니므로 교육의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그가 교육 전문가이므로 교육 우선의 정책을 확립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재임 9개월 동안 퇴임 직전에 향토학교 건설이라는 구호를 내어 걸었을 뿐 이렇다 할 문교 시책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사면초가 속에서 혁명을 며칠 앞두고 경쟁 상대이던 윤택중(尹宅重) 정무 차관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말았다.

오(吳)문교의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민주당 내각의 약체성이라고 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서 야기된 국회의 분열 대립과 기형적인 정무 차관 제도는 오문교의 수족을 완전히 결박하여 놓고 말았다. 그의 우유부단한 문교시책이 어쩔고 그의 교원 노조 대책이 어쩔고를 여기서 길게 말할 나위가 없다. 문교 행정면에 있어서도 혁명은 오지 않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혁명문교정책 5·16 군사혁명은 무능과 부패의 심볼이던 장면 내각의 문교 행정에도 일대 혁명을 가져왔다. 문희석(文熙奭) 문교 장관은 취임 직후 혁명 문교 정책을 명쾌히 제시하는데 이것은 문교 행정의 혁명 공약이라 할 것이다. 이제 그 요강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1. 간접 침략의 분쇄 | 2. 인간 개조 | 3. 빈곤 타파 | 4. 문화 혁신 |
| 가. 반공 및 국민 교육의 철저 | 가. 정신 혁명 | 가. 생산 기술 과학 | 가. 새로운 민족 문화의 창조 |
| 나. 학원의 부패를 일소한다 | 나. 교육 혁명 | 교육의 강화 | 문화의 창조 |
| 다. 학원의 분규를 근절한다 | 다. 교육 행정의 쇄신 | 나. 향토 및 의무교육의 실질적 강화 | 나. 새로운 문화 기구 다. 국제 문화교류의 강화 |
| | | 다. 교육 원조 도입의 강화 | |

▲국가고사제(國家考査制) 7월 15일 문교부는 획기적인 각급 학교 입학 시험 요강을 발표하였다. 즉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는

국가 공동 출제 제도를 택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 학생 거주지 관할의 특별시 또는 도내의 중고등학교에 한하여 지원하게 하여 지방학교의 육성을 촉진하고 필답고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전 과정에 걸쳐서 실시하고

신체검사를 강화하고 체능검사를 점수화하여 체위 향상을 기한다는 것이다.

대학에 있어서도 국가고사를 실시하여 이에 합격된 자에 한하여 대학 입학 자격을 인정하되 그 숫자는 대학 정원의 100%로 한정하여 대학의 질적 향상과 학원 물이의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는 중고교 입시에 있어서 81.1%가 찬성을 하고 있으며

학원의 분규는 공사립을 막론하고 그칠 줄 모르고 치안력의 약화를 틈타 강력범과 폭력배들이 백주에도 날뛰었다. 정초 11일간에 서울 시내에서 37건의 강력범 사건이 발생되었으나 잡은 것은 11건 뿐이었다. 4월 혁명 후 한때 위축됐던 양담배 흡연, 관용차 사용, 댄스 바랍도 되살아나 4월 23일밤 서울 시내 일부 카바레와 아르바이트·댄스홀에서 주부 144명을 포함한 춤바람꾼 2,524명이 적발되었었다. 사이버 언론 기관이 골목마다 간판을 내걸고 경향각지에서 행패를 부려 “공갈기자 물러가라.”는 데모까지 일어났고 결사의 자유를 얻어 생긴 266개의 정당 사회 단체 중 활동 보고를 한 것은 23% 정도였다.

정부의 부패상도 자유당 때에 진배없을 정도 같았다. 중석 부정 위탁 판매 계약 사건을 둘러싼 코미트 수취 설과 여당 국회 의원들끼리의 입서름은 이맛살이 찌푸러질 지경에 이르렀다.

그 외에도 정치자금과 부정대부를 강요했다는니 돈보따리와 뺨으로 인사가 좌우된다는니 추망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리도 도덕도 사회 정의도 이제는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구절에 불과하였다.

이럴수록 4월 혁명을 주도했던 학생드른 초비판적인 눈을 갖게 되고 기성 세대에 대한 불신과 레지스탕을 보였다. “기성세대는 물러가라.”고—

× × ×
 절망과 부패—그 속에 허덕이는 사회 환경은 치안력의 약화와 더불어 4월 혁명 후에 고개 든 혁신 및 용공 세력을 무섭게 팽창시켰다. 6·25때 부역으로 처단된 자의 유족들이 오히려 “양민을 학살했다.”고 각지에서 별 때처럼 들고 일어났다. 4·19에서 5·16까지 1년간에 혁신화, 불순벽보 23, 775장, 뼈라 1,518,800장을 내붙이는 활동상을 보였다. 집회나

☆ 특집 · 언론의 계곡에 서서

대학 입시에 있어서는 74.3%가 찬성하고 있다. 실제로 중학교 입학 원서 마감의 결과는 서울시에 있어서 중대와 같은 일류교 집중의 경향이 완화되어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가 1.8대 1이며 정원 미달교도 68개교에 달하고 있어서 새로운 제도가 입학 지역 해소에 주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교부에서는 5년 후부터 중학교 무시험제를 실시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그의 뒷받침으로 초등학교 운영요강의 제정 교원 순환 근무 제도의 이행 등 학교 차이를 없애는 데 노력하고 있다.

▲임시특별법 9월 2일 문교부는 교육에 관한 임시 특별법을 공포하여 교육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전문 22조 및 부칙으로 된 이 특별법은 국민 교육의 정상적 질서를 확립하고 그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법 및 교육 공무원 법과 기타의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의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문교재건자문위원회의 설치
2. 학교 학과 정원 등의 정비
3. 학교의 환치
4. 의무 교육 시설 예정지의 확보
5. 학총장 및 교수 임명에 있어서의 교수회 인준절차 삭제
6. 교원의 노동 운동 및 집단적 행동의 금지
7. 교원 정년의 인하(65세로부터 60세로)
8. 교감제의 정지
9. 사립 학교에 대한 감독권의 강화
10. 학사학위의 국가 관리제

▲대학교육의 정비 9월 5일 문교부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국립대학교의 정비 절차를 발표하였다. 이 조치에 의하면 서울 공주 대구에 교육대학원을 설치하고 서울 문리과대학에 교육학과를 신설하는 반면에 각 사범대학은 가정과 체육과 생물과 사회 생활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를 폐지하게 되었다. 기타 대학의 폐합도 광범하게 취급이 되었다. 또한 이보다 두달 늦게 11월 18일 사립대학 정비안이 발표되었다.

▲정년60세로 인하 임시특별법에 의하여 9월 30일자로 초중고등학교에서 415명 대학교에서 94명이라는 다수의 원로 교육자가 일제히 교단에서 물러서게 되었다.

이 조치에 대하여 일간 각 신문에서는 정년의 인하가 반드시 혁명문교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불우한 교육자의 말로를 동정하였으며 문교부에서도 정년 퇴직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

▲교육행정기구 개편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문교부의 직제가 학무 학교 관리 문에 체육의 사방으로 개편이 되었으며 지방 행정 기구의 개편에 따라 지방 교육 행정 기구도 대폭 개편을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도에 교육국 군에 교육과가 신설되고 교육위원회가 부활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종래의 교육위원회의 구약을 회상할 때에 그러한 정도로 행정 기구가 낙착된 것은 혁명정부가 교육의 자주성을 중요시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격동(激動)하는 교원단체(敎員團體) 4·19 이후 무법 천지이던 교원노조는 간부 다수가 구속되고 또는 해임됨으로써 완전히 해체되고 말았다. 교원 노조와 대항해서 민주주의 교육을 수호하여 온 대한 교련은 사회 단체법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교육 전문지 「새한 신문」, 청소년을 위한 아테네 극장 등을 새로이 발족시켰으며 세계 교육 연합 회의 아시아 상임 이사국으로서 민간 외교를 통한 한국 유엔 가입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필자·대한교사사무국장)

시위의 기회를 포착해선 영세 중립통일과 남북교류를 선동하고 일부 감수성이 예리한 학생 층에 침투하여 5월 5일 민족 통일 학생 연맹(가칭)의 이름으로 남북 학생 회담을 5월중 판문점에서 열 것을 제창하게 하였었다.

국토 통일 방안으로서 영세 중립과 남북 교류를 내세운 혁신 및 용공 계열은 그 후 완충 지대 내 우체국 설치, 남북 서신교환, 경제 및 문화교류, 언론인 문화 예술인의 상호 방문, 남북 혼성 체육팀의 구성 등 분별없는 선전 선동을 계속하였고 일부 지식인과 보수 정색을 포함한 정계 일각에서도 사건으로 이런 사조를 펴뜨려 사회에 충격과 불안을 조장했다.

그들 주장대로 하면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6·25 때 싸웠는지 반공전의 윤리와 참전 우방에 대한 신의는 훌딱 저버려지고 이리다가는 용공 통일의 함정길을 걸을 것 같은 근심이 들었다. 전체 조건이 성숙되지 못한 남북교류는 승공 통일을 가져오기 어렵다는 뻔한 사실을 굳이 묵살하고 정부나 자유민이 반대하는 남북 회담을 강행이라도 하겠다는 강경한 동향— 그 속에 간접 침략의 마수가 이미 문지방을 넘어서 어둠 속에 노크를 하는 것 같은 공포와 불안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길은 어디로 가게 되려는지—

자유민의 사회는 누가 보장할 것인지—

사회는 혼미 속에 방향을 잃었었다.

× × ×
 학생들이 피를 흘리면서 혁명을 해준 지 1년도 되기 전부터 이런 현실에 부닥친 이유는?

4월 혁명이 방향을 잃은 가담에서 연장돼 온 것 같다. 학생들의 적수 공권으로 독재 정권이 무너졌으니 혁명 주체와 뒷수습을 맡아볼 주체는 다르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①물러서는 이 박사가 임명한 과정이 뒷수습을 했고 ② 제2공화국의 헌법을 자유당 국회의원들이 개정하는 모순된 처사를 하였다. 이에 따라 과정의 선거 관리 밑에 7·29 총선을 치르고 5대

국회가 소집되어 민주당 정부는 썼지만 일부 자유당계의 세력도 진출하여 3·15 부정선거 관련자나 발표 사건 관련자 부정축재자 등의 처리는 지지부진하였다. 이에 분개한 일부 군중이 국회에 뛰어드는 사태가 발생되므로 비로소 특별법이 제정되고 61년 1월 특재와 특검이 발족되었으나 공소시효일인 11월 28일까지 593건의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결과 도합(24건) 31명만을 특재에 회부하고 4·19 1주년 기념일을 며칠 앞둔 4월 15일과 17일에 간신히 첫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공민권 제한문제는 자동 케이스 해당자 630명 정도를 처리하고 심사 케이스는 결말을 못본 채 5·16 혁명을 맞게 되었다.

독재에 항거했던 4월 혁명의 뒤처리가 이처럼 모순되고 부실하였던 역사적 과오에서 부패와 무능이 그대로 연장되어 정치 경제의 방향과 함께 사회도 전진의 지표를 잃게 된 것은 아닐지!

5월 16일 새벽 영문 모를 충성에 곤한 눈을 뜨니 어느덧 천하가 바뀌기 시작하였다. 압도적인 위력이 밀어닥쳐 서울의 시가 요소요소를 점령해 갔다. “올 것이 왔구나.”하고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진상이 궁금스러운 표정들이었다. 아침 5시 중앙 방송국에서 혁명 공약이 처음으로 보도되면서부터 시민들의 마음은 차츰 가라앉아갔다.

초여름의 짙은 안개가 밝아지면서부터 우렁찬 행진곡의 방송 사이 사이에 끼어 혁명 공약과 군사혁명의 동기 및 이념을 설명하는 프로그가 되풀이 되고 골목 골목에 모인 시민들은 다음 소식을 목말라 기다리고 있었다. 9시 비상 계엄령이 퍼지고 야간 통행과 옥내의 집회금지, 유언비어 단속 등에 관한 포고령 제1호가 나온 데 뒤이어 금융 동결령으로 은행문이 닫히면서부터 혁명은 못 사람들에게도 바짝 다가서왔다.

혁명위원회가 정권을 장악한 후 사회는 급 템포로 개혁되고 다음어져 갔다. 소란스러웠던 데모 집회, 학원 분규의 기염은 서리맞은 호박잎처럼 싹 시들어 들었다. 5·16선에서 동결된 물기는 17일부터 더 떨어져가고 하루동안 쉬었던 학교도 이날부터는 문을 열었다. 동결되었던 예금이 풀리고 서울 부산 대구지구 극빈자에겐 특배 소식이 전해졌다. 혁명은 대중에게 영합되어 갔었다.

지난 15년 동안 어진 백성들의 희생 위에서 조장되어오던 부패 퇴폐 구악—이런 것을 떨어버리는 조치와 시책이 과감하게 진행되었다. 깡패가 먼저 걸려 들었다. 혁명 이틀째인 17일까지만도 1,546명의 깡패가 울개미 속에 들어 속죄행진을 했고 39명의 시내 깡패 두목들이 모두 구속되었다. 12월 초순까지는 15,702명이 잡혔고 재판관을 거쳐 가장 먼저 처형된 것도 깡패 두목이었다.

용공 혐의자, 교통 규칙 위반자 댄스광 등 각종 범법자는 뇌물이나 사정에 이끌림이 없이 단속되어 혁명 두 달 동안에만도 통금 위반자 19,983명을 비롯하여 교통 규칙 위반자 13, 987명 비밀 댄스홀 단속 270여 건 무허가 건축 단속 790건의 기록을 냈다. 구악의 악세사리는 손 닿는데서부터 계속 씻겨져 대어 차량 보류 차량 1천 1백여 대가 회수되었고 4월 혁명 후 날뻐 사이비 언론 기관이나 공갈 기자들이 주리 때를 맞아갔다. 전국에서 일간신문 115종 중 76종이 94%로 일간 통신 316종 중 그 97%에 해당되는 305종이 등록 취소되고 주간지는 485종에서 32종만을 남기고 그리고 94%를 정리하였다. 각 지방 계엄 사령부 관하에서 공갈 기자들이 불붙여 최고 10년 징역을 받는 판결까지 내렸고 그 외 수삼 개 신문의 언론인들이 필화 사건으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구악의 무리를 따라 양담배와 커피는 어느 틈에 슬금슬금 자취를 감추었다. 그중에서도 해방 후 16년 동안 중독중에 걸렸던 양담배는 뒷구멍 거래도 없을 정도이고 국산 담배 애연으로 연말까지 30억 환의 전매 이익금이 불을 계산이었다. 특정 외래품의 수입 및 판매와 밀수품 단속이 엄해져 밀수범에게 최고 20년 징역형이 언도 (7월 12일 경남)될 정도였다.

유흥가와 요정도 시세가 없어져 갔다. 댄스홀 사창굴은 된서리를 맞았고 무슨 장 무슨 각은 대중식사 점으로 격하하여 신문에 광고를 내곤 했다. 당자들의 지각과 함께 부정대부, 부정축재, 정실인사, 중수회, 횡령, 독직 등 부패경기가 후퇴된 것도 그 큰 원인의 하나였을 것이다. 내각 사무처에서 발표된 바 구정권 (자유·민주)의 대민부채 29억 3천만 환중 유흥비만도 1억 4천 17만여 환이었고 이것이 모두 호텔과 요정에서 소비되었다는 지난날과는 판이한 대조 같다.

많은 공무원이 정리되었다. 관기 확립과 능률 향상을 위해 병역 기피자 6,700명 축첩 공무원 1,385명 병역 미필공무원 9,291명이 해면 조치된 외에 무능력자 정치 배경으로 특채된 자 고령자들이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 교육 공무원 정부 기업체 요원으로부터 물러났고 공무원들의 요정 출입 관용차 사용은 엄중 단속되었다. 특히 병역 기피 공무원에 대한 과단한 정리는 82년 병역법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요리조리 기피 생활을 해온 장정들의 관가 등용과 사회적 진출이 막힐 것 같은 충격을 주었다. 그래서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설치된 자수 기간 중 징집 기피자 240,835명과 소집 기피자 164,147명이 자진 신고를 하게 되어 병사 행정 10년간의 체증이 떨어짐과 동시에 많은 장성들이 양지를 찾게 되었다.

5·16후부터 발생한 공무원 비위 행위는 더욱 엄중히 다스려졌다. 부정축재 제1조 사단 전원과 동처리법 및 처리 요강 입안 관계자 27명이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도록 피하고 수회했다는 혐의로 공소되었고 군수품 부정 처분으로 전방계업고등군재에서는 중령1명에게 사형을 언도하였다. (9월1일) 영남 군재서도 그 후 도독질한 보초병과 민간인 두 명을 사형 판결했고 공무원이 백만 환이상 수회했을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독직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다.

전 정권의 부패상도 살살이 폭로되었다. 앞서 말한 중석위탁판매 가계약체결사건을 중심으로 한 백만 불의 커미션 추문을 비롯하여 국고 손실액 60억 환, 기업인들로부터 수탈한 정치자금 45억 환, 정치인이나 고관들이 주동된 20건의 중수회내막, 15차례에 걸친 부정이권자치 등 1백 중목을 넘었다. 그 외에도 특혜 부당특진 영전 등 정실이나 부정에 이끌린 인사 처리 건수가 2,363건이고 시중 은행의 부정 대출도 1억 3천여만 환에 달하였다. 어느 장관의 경우 자기 선거구민 80명을 촉탁 고용원 임시직원 등의 명목으로 채용 배치한 일도 있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 심의에도 먼저 국회의원들에게 교제비를 써야 심의했다는 사실 등…….

심계결과나 감찰위 검열에서도 많은 비위 사실이 탄로되었다. 심계원이 발표한 것만도 대한 중석, 시교육위 등에서 지난 수년동안 낭비한 금액이 각기 10억 대를 넘었고 한은 등 118개소 중요 기관을 심계한 결과 2년 6개월간에 531건, 854억 환의 비위 사실이 드러났는데 근무 태만 등이 그 이유라는 것이었다. 구황실 재산 관리 상태는 엉망이어서 6백 점의 유물을 망실했고 결손이 7억 6천만 환, 거기다 나라의 전매사업 부문에 있어서도 소금은 고사하고 담배 제조 판매까지 3억 환의 출혈을 냈다고 감찰위에서 밝혔다.

7월 5일 합동 수사 본부와 최고 회의 공보실은 전 국무 총리 이하 10명의 민주당 정권 요원들의 용공 정책 진상이 드러나 전원 구속한다고

적극외교(積極外交)를 지향(指向)

문철순(文哲淳)



1961년의 한국 외교는 이를 2기로 구분하여 관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960년 4월 19일의 혁명에 의하여 연생한 장면 정권의 외교 정책으로서 올해 1월부터 5·16혁명까지를 금년도 전반기 외교로 그리고 군사 혁명으로 수립된 현 정부의 외교 활동 및 정책을 후반기 외교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 금년도 전반기 외교

금년도 전반기 외교라고 하면 간단히 올해 초부터 6월경까지의 한국 외교를 총괄하여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전반기 외교만은 민주당 정권의 집권 당시부터 시작된 외교 정책으로서 금년도에 들어서도 5·16 군사 혁명 때까지 그대로 계속되었다. 그러면 전반기에 속하는 민주당 정권의 외교 목표를 살펴보면 제1로 한일간의 제 현안 문제 타협과 한일 국교 정상화 기도 제2로 대중 입국 적극 외교의 전개, 그리고 제3으로 대UN 외교의 강화를 외교 정책의 기반으로 삼았다. 민주당 정권의 외교 정책의 수립은 과거 10여년간 고립적이고 고식적인 외교 정책을 취하여 온 자유당 외교 정권을 타파하여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구상하여 수립한 것이므로 자유당 시대에는 염두에도 내지 않았던 대중 입국 외교가 포함되었던 것이다. 한일 문제 해결이나 대UN 외교 정책은 자유당 때나 민주당 때나 올해 후반기의 혁명 정부에서도 대동소이한 외교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추진과 결과에 있어서는 천양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전반기의 세 가지 외교 목표를 하나하나 더듬어 보기로 하자.

1. 한일간의 제 현안 문제 해결 및 한일 국교 정상화 문제

한일간의 제 현안 문제 해결은 한일 양국에서 10여 년간 토의를 진행시켜 왔으나 미해결된 채로 민주당 정권이 이를 이어받았다. 그리하여 1960년 10월 하순부터 제5차 한일 회담 예비 회의를 시작하여 대표단을 구성 파견하여 5·16 혁명 전까지 8개월이란 시일을 소비하면서 토의를 진행시켰다. 또 이와 병행하여 민주당 정부의 패배적 곤란을 청구권 내지 일본의 경제 원조로서 해결하고자 생각하고 정당한 확정 액수 요구와 그에 관한 회담은 제2차적으로 하고 이면 공작을 통하여 청구권의 필요한 액수 반환을 교섭하는 동시 자본 도입과 경제 차관을 비밀리에 진행시켰던 것이다. 한일 회담 자체뿐만 아니라 이면 공작도 실질적 성과를 하나도 거두지 못하고 민주당 정권이 종말을 하나도 거두지 못하고 민주당 정권이 종말을 보았던 것이나 이러한 무성과의 이유로서는 한일간의 제 현안 문제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기본적 문제 예컨대 청구권 문제와 평화선 문제 등에 대하여 확고한 정책을 수립하여 두지 않고 항상 중요 단계에 가서는 동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민주당 정권 자체의 우유부단성 약체성 때문에 야당 및 사회단체의 압력과 간섭을 받아 항시 소극성을 면할 수 없음이 주요 원인이었다.

2. 대중 입국 외교

자유당 시대와 달리 대중립외교를 창도한 민주당 정부는 대중립외교를 사실상 추진하여 보려고 대중입국 외교배척을 지양하고 적극책을 채택하여 중립제국에 친선사절파견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동남아 지역은 사정에 의하여 이를 중지하고

발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이러한 과거를 배경으로 많은 인물들이 혁명 심판에 올라섰다. 부정과 부패를 이 나라 사회에서 근절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시키려는 역사적인 이 심판을 하기 위해 7월 12일 혁검과 혁재가 발족되었다. 심판대에서 가려질 범죄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조항 중 ① 선거에 관한 살인 상해 방화 ② 특수밀수 ③ 국사 또는 군사 독재 ④ 반혁명행위 ⑤ 특수 반국가 행위 ⑥ 단체적 폭력행위죄 외에 구정권 때의 부정선거 관련자 처리법과 부정 축재 처리법 위반죄 등이다. 혁검은 공소 시효일인 12월 11일까지 도합 260건 699명의 피의자를 기소하였는데 그중에는 혁재 혁검 조직법 부칙에 의한 기소 간주 사건과 재심 청구 사건이 109건 319명이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혁명 후에 생긴 반국가 반혁명 행위 등 특수법과 부정 축재 혐의자들이다.

공소 제기 사건 중 12월 13일까지 1심 판결을 끝마친 기결 건수는 158건(452명) 심리 중인 것이 43건(114명)이다. 불기소된 것은 238건(641명)이고 그 외 36건(104명)의 민재 이송분이 포함되어 있다. 혁검에서 실형을 구형한 270여 명의 피고 중 33명이 사형을 구형 당했고 그중 1심에서 판결을 받은 자는 이미 이슬로 사라진 7명을 포함하여 14명이었다.

4월 혁명의 동기를 만든 3.15 부정 선거 관련 4대 사건(피고266명 국무위원, 자유당 기획위원, 내무부 간부, 국책은행간부)를 합쳐 중앙 발포 사건, 사회당 사건 「민족일보」 사건 등 16대 사건 피고 73명의 혁재 판결은 12월 20일 최고 회의 의장의 최종 확인까지 완전히 내렸다.

민족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심판은 죄와 벌만은 아니었다. 반국가행위 같은 중죄는 중형이 상당히 내렸지만 상명하복으로 저질러진 송사리 떼나 개전의 정이 엮보이는 피의자

아프리카 지역 여러 나라와 이란 독립 기념일 경축을 계기로 중근동지역에 전 UN대사인 임창영(林昌榮) 대사를 단장으로 친선 사절단을 파견한 바 있었다.

중립국적외교전개의 문제점은 한국 문제를 중립국에 어떻게 인식시키느냐 하는 데 있으면 북한 괴뢰에서도 중립국에 대하여서는 대한민국 못지않게 우리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을 기도하여 중립제국에다 대사관 또는 영사관 설치 추진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바 민주당 정부는 국외 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2개의 한국 개념에 대하여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민주당의 친선 사절단이 수개중립국을 방문 접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성과는 하나도 올리지 못한 결과가 되어 구호에만 그친 대중립국 외교가 되고 말았다.

3. 대UN 외교

대UN 외교에 있어서는 이정권(李政權) 시대의 무력동일 정책을 지양하고 UN이 결의하는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평화 통일 정책을 채택하여 이를 대UN 외교의 기본 방침으로 삼았다는 것이 특기할 변동이며 실제적인 대UN 활동에 있어서는 한국 문제 토의에 보다 많은 다수지지 표 획득을 목적으로 우방제국은 물론 중립국에 대하여서도 적극적 활동을 하였으나 당시 UN에서 가장 미묘한 움직임을 나타낸 아이(亞阿) 블록의 설득 공장의 부진과 미국측 스티븐슨 안의 채택으로 인하여 북괴대표의 UN 참가를 조건부로 수락하게 됨으로써 UN에서는 전반보다 일부 후퇴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러나 UN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는 처음 예정으로는 12월 중순경 토의될 것이었으나 익년인 즉 올해 1월 중순으로 연기되었다가 끝내 토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북괴와 실제적으로 동석하지는 않았으나 금년도에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생각된다.

금년도 후반기 외교

후반기 외교는 군사혁명 후 오늘날까지의 혁명정부의 외교 정책 등을 총칭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겨우 후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교적 교섭과 성과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눈부신바 있었으며 한국 외교사를 장식할 만한 거사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혁명정부에서 내세운 외교 목표는 첫째로 합리적인 한일 제 현안문제의 해결, 둘째로 대중립 적극 외교의 전개, 셋째로 대공태세의 강화, 넷째로 대UN 적극외교의 추진, 다섯째로 경제 외교의 적극 전개 등이 있는데 혁명 직후에 즉시 외교 활동을 개시한 것은 혁명정부에 대한 이해와 지지 획득을 위한 외교 활동이었으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 제국과의 유대는 더욱 강화되었다.

현 정부의 외교 목표를 민주당 정부의 외교 목표와 비교하여 보면 대공 태세의 강화와 경제 외교의 적극 추진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추상적으로는 기본 외교 정책에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며 외교의 일관성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할 때에는 당연지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교 목표의 실현화에 있어서는 민주당 정권의 1여년에 걸친 외교는 혁명정부의 약 반년 미만의 외교와는 그 성과에 천양의 차이가 있다.

혁명정부의 외교를 지면 관계상 이를 세 가지로 나누어 검토하여 보겠다.

1. 친선 사절단의 파견

친선 사절단의 파견은 전술한 바와 같이 민주당 정부에서도 계획 실천한 바 있으나 혁명정부에서 파견한 것과는 파견 목적부터 현격한 차이가 있었으며 물론 그 규모나 방문 대상국의 수는 두말할 것이 안된다. 이 사절단 파견의 목적은 혁명 정부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지, UN에서의 한국지지 그리고 중립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세계 전역에 걸친 80여 개국에 걸쳐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파견되었다.

에겐 죄와 온정도 베풀어졌다. 서울역 앞 발포 경관이나 마산 부산 지구 발포경관 수명이 혁검의 공소 취하로 석방된 실례를 비롯하여 8월 1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사이에도 부정선거 관련 혐의자 반혁명 혐의 장성 용공 혐의의 학생, 부정축재 또는 반혁명 행위 혐의의 구정권 요인들이 전후 약 10차에 걸쳐 불기소 또는 기소유에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고 전 국무총리의 연금도 해제되었다.

이런 관용 정책은 5·16혁명 직후부터 여러번 베풀어 졌었다. 혁명과중(過中)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직결 처분이나 재판에 의하지 않은 총살 처분 같은 일은 한번도 없어 5·16은 이 점에 명예성을 지니고 있다.

혁명 초기에 걸려든 부랑자나 깡패들도 주모자를 제외하고는 훈방되었고 그중 4백여명에겐 대관령 두메마을에서 개척사업에 종사도록 재생의 길이 열렸었다. 댄스죄 통금 위반죄로 실형을 받았던 일부 죄수들에겐 혁명 20일 후인 6월 6일 현충일을 기해 특사가 내렸었고 7·17 제헌절엔 용공 혐의 예비검속자 1,293명이 석방되어 앞서 나온 1,2차분 석방자들과 합쳐 2,560명에 달하였다. 5·16전의 선거사범 77명도 동시에 풀려 나왔고 그 후 광복절에는 또다시 특사 5,630명, 감형자 9,325명이나 되는 큰 은전이 베풀어 졌었다.

부정축재자는 조사 대상자 120명 중 공무원 약 20명만이 송치되었고 일반 실업인들은 구속이 풀려 모두 기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조사 결과 허물이 드러난 실업인은 통고된 부정 축재 최종 결정액을 국가에 환상도록 처리되었다. 기업주 27명(477억환)과 공무원 34명(72억환)에게 이런 통고가 내렸으며 부정 축재 처리 위원회는 그후에도 처리법을 완화하여 축재자 중 공장 건립자에게는 특혜를 주고 공익제공액은 축재액에서 제외하였다.

한해동안 사회면의 메모와 변천된 자취는 그 외에도 거창한 것이 많다. 생각나는 대로 적어도 놓여준 고리 채신고, 사회단체해산, 버스 및 이발 요금 인하, 공무원 봉급 인상, 국토 건설 사업 추진, 실업자 실태조사, 귀농희망자 1,228세대의 정착사업, 서울시 간선 도로 건설, 취업자의 증가, 여교원조산비의 지불, 표준시간개정, 전기3사통합, 남원 영주지구 홍수 피해, 장충동 축대 붕괴사건 일본인팀과의 스포츠 교환, 죽음의 재 증가(1천배)와 소련의 대형 핵폭발 항의 데모, 자매부락결연의 증가, 일부 특별법 피의 대상자의 도피 등……. 전진과 격동의

이의 파견도 혁명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았던 7월 초순에 한국을 출발하여 전술한 목적에 따라 우리의 우방 국가는 물론 중립제국과도 적극적인 교섭을 전개하여 상주 대사관의 설치를 합의한 것이 10여 개국 기타 겸 입대사 파견, 영사 교환 관계 수립 등 중립국을 포함한 30여 개국과 합의를 이루었으며 혁명정부에 대한지지 획득은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된 대로 예상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

2. 한일 제 현안문제 해결과 한일 회담

한일문제에 관하여서는 자유당 때나 민주당 때와는 달리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타결책을 강구하여 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첫째 일본 정부 당국과 일본 국민, 그리고 자유 우방 제국에 대하여 현 국제 정세하 양국의 유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긴요한 문제임을 인식시키는 데 노력하는 동시에 우리 측으로서는 지난날의 국민 감정을 가능한 한 버리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한일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도하여 지난 10월 20일부터 제6차 한일 회담을 개시하였다. 물론 회담 개최에 앞서가는 당시의 최덕신(崔德新) 대사를 단장으로 하여 일본에 초기의 친선 사절단을 파견하고 그 후 경제 기획원 김유택(金裕澤) 원장이 일본을 방문하여 회담 개최에 필요한 분위기 조성을 하는 등시 한일문제 해결의 관건인 청구권 문제와 평화선 문제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우리 측에 확고한 기본 방침을 세워 회담에 임하였다. 그러므로 어느 때의 회담보다도 이번 제6차 한일 회담에 있어서는 그 출발에서부터 쌍방 간이 조속한 문제 해결에 전례없던 노력을 하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우여곡절은 면치 못할 것이며 또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낙관만을 할 수는 없는 것이나 머지않은 장래에 성공적인 전망이 보일 것이 기대된다.

3. 박의장의 방일(訪日)과 방미(訪美)

금년도 후반기 외교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 외교사에서 일대거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박정희(朴正熙) 의장의 방일과 방미로 이루어진 지전 수상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 캐네디 대통령과의 양 거두회담이다. 박 의장과 지전 수상과의 회담은 한일회담 및 한일 국교 정상 문제와 관련하여 한일문제 타결의 근본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등시 일본의 조야 각계에서도 혁명정부만이 정권의 강력성으로 인하여 한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일 것이라는 관측을 자아내게 하였다. 박 의장의 방일 성과를 일일이 예기(例記)하느니 보다 한일 양국의 국민들이 박 의장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었느냐 하는 것만 짐작하여도 과히 그 성과를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다.

박 의장의 방미 성과에 관하여서는 한국 정부와 국민이 오늘날처럼 미국 정부와 국민과 사이에 강한 유대가 이루어진 적이 없을 것이라고 논평한 미국의 일관리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그 성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면 관계상 혁명정부의 대중립국 외교의 성과에 관하여 논할 여유가 없을 것 같으나 전술한 1961년도 후반기의 외교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진 외교 성과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효과적이고 화려한 외교를 추진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필자·외무부 정무국장)

연속이었다고만 줄여 둔다.

그 반면 낡은 질서를 고쳐가는 데는 인연 깊은 관련자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혁명의 진통과 반작용이 사회에 미치기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스승들이 직장에서 도태되고 혁명 후의 반혁명 음모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다가 비상 수단에 의한 (당시 사정으로 부득이) 혁명이었던 만큼 일반 사람들이 시초부터 직접 참여를 못 하였던 소원간도 보태져 한때는 갖가지 풍설과 비평이 돌기도 했다.

그러나 혁명의 행진은 그침이 없다. 사소한 잡음이 있어도 큰 줄거리는 방향을 찾고 건전화해 가고 있다. 첫째로 사람을 개조하려는 인간 혁명—정신 혁명이 외쳐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날 몇 번이고 정권이 갈렸지만 부패 무능은 여전하였었다.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는 인간성의 광복이 사회 중흥의 요체로 이즈음처럼 강조된 일은 해방 후 없었다. 반공 이념 강화도 청신한 기풍도 신 생활 체제의 구비도 모두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혁명 후 어느 부문보다도 교육 행정 면에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새 세대의 정신을 지도하려는 데서 온 것으로 안다. 7월 1일부터 대학생들이 유니폼을 입고 나섰다. 입시 제도가 변경되어 중교는 공동 출제제로, 대학은 국가고시제로 변했고 대학 졸업엔 학사 고시제도가 생겨났다. 입학을 둘러싼 추문과 영터리 학사를 없도록 하자는 조치였을 것이다. 국립대학을 비롯한 대학 정비도 단행되어 새해부터는 국립대학교의 5개 단과대학이 폐지되고 4개 대학이 병합되며 사람은 주간 25교 야간 8교로 줄었다. 모집 정원도 92학과 16,691명으로 제한되었다. 94년도를 교육과정 개정의 해로 결정, 초중 고교의 교과서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 중에 있고 초등학교 감실이 없어졌으며, 중고등학교의 교장과 교감도 수업을 담당토록 되었다. 교육 행정책임자들의 대폭적인 인사 이동이 단행되었고 교육 공무원의 정년은 5살이나 줄었다. 학교 주변의 유흥장 교내 판매소 철거 등, 모두가 새 세대에 새 나라 주인공의 사람됨을 참하게 겸손하게 가르치기 위해서다.

학교 교육의 개혁과 함께 재건 운동을 통한 일반의 정신 혁명과 생활 간소화도 줄기차게 외쳐져가고 있다. 일하는 것보다 데모를 해서 생활고를 풀어보려는 생각이나 새 정부가 서면 앉아 있어도 먹여 살려 주어야 된다는 따위의 지난날의 풍조는 생각도 못할 일이 되었다. 내뺨 생활의 여행, 근면 정신의 고취, 생산 및 건설의식의 증진, 국민도의심의양양, 국민체위향상, 용공 중립 사상의 배격, 정서 관념의 순화 등 제 방향을 찾아서 사회는 새로워져 가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발 맞추어 관혼상제 차림이 간소화되어 가고 가족 설계, 산아 제한, 피임 문제 등이 거리낌 없이 오늘날 과제로 데뷔하였다.

사회 개혁 진전의 둘째번 열매는 법 질서가 잡히고 장래 발전을 보장하는 법령이 놀랄 만큼 정비 제정되어 새 사회의 기틀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재건 비상 조치법을 비롯하여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 폭력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반공법, 특정 범죄 처벌에 관한 임시 조치법, 농산물 가격 유지법, 윤락 행위 방지법, 물가 조절에 관한 임시 조치법, 범법자의 갱생 보호법 등은 모두 사회 평화와 복지 향상에 관련이 깊은 법률이다. 그중에서도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은 인구의 7할을 넘는 농민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짐체 속에서 영위해 온 가난한 살림을 구제하리라는 데서 획기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해방 후 헌정이 베풀어진 지 14년 동안 지지부진했던이런 사회복지법의 제정은 혁명정부에서 마련한 정치, 경제, 문화면 관계 60여 종의 새 법령, 그리고 내년 1월 20일까지 단행하겠다는 구법 (일정 때 및 미군정하 법령) 5백여 종의 정비와 아울러 5·16혁명의 이념과 성과를 엮는 문헌이 될 것이다. 법령 정비의 힘을 입어 폭력, 돈 보따리 뺨에 의해 선악이 혼돈되고 정의가 죽어버리던 우리 사회의 그레샴 법칙도 지양되어가고 있다. 구약과 부패를 씻고 질서가 잡힌 증거이다.

이런 진전이 경제 부문의 재건 5개년 계획과 더불어 새 사회건설을 지향하는 희망의 토대고 지난해의 성과인 것 같다.

제야의 중용림은 그 위에서 전진을 신호한다.

(필자·한국일보 사회부 차장)

(P55에서)

것을 열거하여 보는 것도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사건 보도는 동독이나 서독에서 모두 대대적으로 취급하였다.

즉 이 사건의 주인공인 디크만씨는 동독 인민 회의의 의장이기는 하나 국제 공산당원은 아니고 동독 통일당의 당원도 아닌 동씨가 서독 말부르크 대학생인 크라우스·호른 학생과 몇 동지들의 강연 초청으로 동시(同市)인 대학촌에 나타났을 때 불상사가 발생하였던 것이라 한다.

동씨 초청으로 공산 동독의 정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해 오고 있는 호른학생은 다만 동독 인민 의회 의장인 동씨의 통일 독일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려는 것에서 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강연회장 부근에서는 동씨 반대의 데모가 일어나 야단법석을 이루었으며 강연중 투석도 되어 몇 번이고 그 강연은 중단되었었다.

이것은 동년 1월 14일 밤 일인데 노이에스·도이취란트지는 익15일부터 최대한의 선동 선전으로써 없는 말까지 허위 날조하여 일개 학생들의 반대 데모에 그친 동사건을 과장하여 그 배후에서는 자유 서독의 정치가들의 흉책이라고까지 하여 악선전 자료로써 대서특필했다는 사실을 볼 때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한 사회의 공기로써 정중히 동사건을 다루고 있는 서독의 유명한 디·벨트지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필자·공군중령(空軍中領)·공본공보과장(空本公報課長))

동남아(東南亞) 사태(事態)와 미국(美國)의 위치(位置)

뉴스위크 지 동남아 특과원 로버트·S·엘레간트



미국이 동남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중공과의 전쟁도 불사한다는 확고한 사태를 갖는다면 동남아는 계속하여 사방 진영에 남아있을 것이다.

모택동(毛澤東)과 월맹(越盟)의 호志明(胡志明)은 지난해 11월 중요한 전략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그들은 1962년을 통하여 동남아에 있어서의 게릴라 압력을 강화할 것을 결정했음이 명백하다. 더구나 불행히도 오늘날 공산 침략을 받고 있는 월남과 언제 침략을 받을지 모르는 태국 및 캄보디아가 전의를 상실하고 있으며 미국의 원조 없이는 대공전에 승리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월 필자는 비엔티엔으로부터 폰콘에 이르는 험벗고 건조한 북부라오스를 여행하였으며 미군이 라오스전에 직접 무렵 개입을 하지 않는 한 라오스는 적화할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북부 라오스에는 반란군의 쿙레 대위가 지휘하는 부대를 추격하는 친서방군의 쿠프라시스 아베이 대령의 사령부가 있다. 립강 건너의

고지대에는 반란군이 점거하고 있는 마을이 있다. 그러나 기관총을 장비한 지프차 등 기동력을 갖춘 쿠프라시스의 친서방군이 도강을 하지 못하고 폰콘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전진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쿠프라시스 대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의 전진을 저지하는 것은 강 건너편의 험악한 지형인 것이다. 사실상 8백명의 동 대대의 전진을 반란군은 불과 30명 정도의 저격병으로서 저지하고 있는 것이다.

쿙레 대위는 전투도 하지 않고 자레 평야를 확보함으로써 친서방 왕정군의 군사적 우위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공격의 초점을 월남으로 옮겼다. 그러나 공산 게릴라의 압력이 잠증하고 있는 월남의 고 딘 디엠 대령의 정부는 고 대통령의 정책 고집으로 말미암아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고 대통령은 미국의 충고에 냉담하며 특히 라오스에서의 미국의 태도를 보고 나서는 더하다. 필자가 마지막으로 그를 방문했을 때 지도상의 공산 게릴라 준동 지역을 지적하며 흥분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라오스 휴전 이후 어째서 미국이 공산 파테트라오로 하여금 남부 라오스의 체폰을 점거하게 했는지 알 수 없다. 체폰은 현재 월남으로 침투하는 공산 게릴라의 거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동남아에서의 미국의 미지근한 태도를 비난하는 것은 고 딘 디엠 대통령뿐이 아닌 것이다. 태국의 사릴 타나랄 원술도 미국의 태도를 강경한 말과 희미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월 태국의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세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아세아의 적은 나라들은 공산 위협에 대해서 속수무책의 상태이며 동남아 조약 기구 역시 미국이 지도력을 상실함으로써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동남아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만약 미국이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 동맹국들은 이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제 미국이 만약 동남아를 방위하기 위하여 직접 무렵 개입을 한다면 중공은 어떠한 태도로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중공의 경제가 대규모의 군사 행동을 지탱할 능력이 없으므로 중공과의 전면전쟁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핵전쟁을 불사하면서 소련이 중공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미국의 강경한 행동이 지연된다면 중공은 자체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고 중공의 경제는 현대 경제 체제를 갖추게 될지도 모른다. 미국은 그들의 미지근한 태도를 가지고서는 동남아를 수호할 수 없음을 하루 속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민족성(民族性)의 개조(改造)와 국가재건(國家再建)

—아침하는 습성을 청산하자—

김성식(金成植)



1.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춘원이 <민족개조론>을 개벽지상에 실렸다가 사회로부터 대단한 비난을 받았고 또 개벽사 사장도 두들겨 맞았던 적이 있었다. 그 무렵 어떤 날 밤 한 시 경에 당주동(唐珠洞)에 있는 춘원의 집 대문을 두들기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몇 날 전에 누가 와서 사회의 여론이 나쁘니 춘원이 몸조심하라고 일러준 터라 춘원이 나가는 것보다 그 부인되는 허여사(許女史)가 나가서 대문을 열어 주어야 할 형편이었다. 그러나 춘원은 허여사를 제껴놓고 자신이 직접 대문을 열어주었다.

그때에 청년 3인이 보자기에 쓴 무엇(그것은 아마 무기였을 것이다)을 절그렁 거리며 춘원이 안내하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노기를 띤 눈초리를 하면서 보자기를 방바닥에 놓았다. 다음 순간 허여사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그중 한 청년은 허여사 더러 물을 달라고 명령조로 말하였다. 허여사는 이 사람들의 춘원을 해치려고 온 사람인 줄 직감하고 좀처럼 춘원의 걸을 떠나지 않았다. 그 때 춘원은 태연자약하고 허여사 더러 왜 물을 떠오지 않느냐고 어성을 높이면서 속히 떠오라고 말하였다. 그때 허여사를 보는 춘원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어 나오는 것 같았다는 것이다. 허여사는 할 수 없이 일어나 허둥지둥 물을 떠가지고 들어왔다. 그때 방바닥에 있던 보자기 뭉치는 없어지고 춘원과 청년 사이에는 보통말을 주고 받고 있었다. 아마도 춘원의 확고부동의 신념을 청년들은 느끼고 돌아간 모양이다.

그때부터 4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군사혁명을 맞고 인간 개조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이 인간 개조란 말은 우리 민족성을 개조하자는 의미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사실 지금의 우리는 암만해도 우리의 민족성을 개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라와 민족은 망할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때가 많다. 남들은 모두 자립독행하고 있는데 하필 우리 민족만 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는 반드시 곡절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나?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얻은 좋지 못한 성격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것이 아닌가? 사실 한때 춘원을 비난하던 이 사회는 지금 춘원을 선견지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때가 많고 지금은 춘원의 <민족개조론>이 다시 모잠지를 통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민족성을 개조하여야 되겠는가?

2.

일찍이 버나드·쇼는 <건강한 사람은 자기 몸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고 건전한 국민은 자기 민족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것은 그 반대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으니 즉 약한 사람일수록 자기 몸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건전한 국민일수록 자기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근심함이 많다는 뜻도 된다. 그와 같이 우리 민족은 지금 병들어 있어서 내외인을 막론하고 이 민족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민족인가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민족의 병을 고치지 않고는 그대로 있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이 골수에 깊이 든 병집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잘 살도록 집 테두리만 다스리고 있었다. 외양만 화려한 무덤같이 번드르하게 꾸며 놓고 민주 제도라 문화 민족이라 하면서 자고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 혁명을 계기로 하고 근본적인 수술을 통하여 민족 재건을 도모하게 된 것이다.

민족의 깊은 병을 고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민족성의 나쁜 점을 개조한다는 뜻이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였거니와 아름다운 민족성을 가져야 그 민족은 번영하게 되는 것이니 우리 민족성을 개조한 뒤에 우리 국가의 흥륭과 번영도 기대될 수 있는 일이다.

재건논단(再建論壇)

그런데 우리 민족성에서 개조되어야 할 요소가 비밀비재이나 그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 있는 성격은 아침(아부근성)하는 버릇이다. 이 아침하는 버릇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우리 민족의 제2의 천성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밖에 모든 게으른 것 거짓말 잘하는 것 시기하는 것 등의 대개가 이 아침하는

근성에서 유래된다고 하겠다. 거기에는 깊은 역사적 연유가 있다.

멀리는 고사하고 가까이 이조 500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보아도 우리 민족의 지배자는 변함이 없는 같은 정치를 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생활에도 하등의 변화가 없었다. 이조 시대에는 권문세가, 일제 때에는 총독, 자유당 때는 대통령이, 모든 지배자는 우리 민족과 국민을 압박하였고 우리 민족은 그와 같은 권세있는 사람에 무조건 복종하며 살아 왔다. 그리하여 민족의 생활이란 도탄에 빠진 생활이었다. 생활의 최저선에서 방황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생활이었다. 그리하여 <생불여사(生不如死)>라는 말이 자기도 모르는 세에 입 밖으로 튀어 나오게 된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유보다도 권세의 주변에서 살아 왔고 따라서 자기를 날로 새롭게 하는 자유란 꿈에도 맛을 보지 못했고 다만 권세에 복종하고 그것을 잡은 사람을 섬기는 남의 인간으로 살아온 것이다.

원래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보아도 늘 남의 나라의 바람받이에 서 있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정치적 변동에 따라 움직였고 사대하기를 예사로 하였으며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하여 그 앞에 굴복하고 만 것이다. 밖으로는 우리 민족은 남의 민족을 섬겼고 안으로는 권문세가를 섬겨 온 것이다. 아침하는 습성은 이와 같은 내외 사정에서 생긴 것이다. 그런데 이 아침과 권세와는 서로 정비례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니 권세가 강하면 아침도 많아지고 또 아침이 많아질수록 권세는 남용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생기면서부터 권세는 남용되고 아침도 늘어갔다. 이조 500년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가 바로 권문세가의 횡포와 그들 문화에서 아침하는 무리들의 행장의 기록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아침이란 본시 있었던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다만 집권자와 세도가 너무 크니까 그 밑에서 살아 나가기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할 수가 있다. 원래 중간 계급이 없는 우리 사회는 양반과 서민으로 구별되어서 양반은 지배 계급을 형성하고 서민은 피지배 계급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계급 사이에는 메꿀 수 없는 넓은 도랑이 있다. 그런 도랑을 메꿀 수 있는 계급은 중산 계급인데 그만 봉쇄된 사회 속에서는 그와 같은 계급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중산 계급은 영국에서 예를 들어보면 그 성격이 위 계급에 아침하지 않고 아래 계급에 대하여 강하지 않는다. 문자 그대로 위와 아래에 통할 수 있는 계급이다. 따라서 위 계급의 압박도 받지 않고 아래 계급의 아침을 받을 정도로 권세를 남용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는 존재다. 이와 같은 계급이 성장하였더라면 오늘의 과제인 민주주의도 쉽게 해결될 수가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형편이 우리의 지금의 사정이다. 그와 반대로 상부와 하부의 간격이 넓어 있었으니까 상부는 지배하는 것 권세를 부리는 것으로 그 존재성이 규정되어 있고 하부는 상부의 권세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을 천성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계급의 교류도 없었다. 양반이 몰락하여 서민 계급이 된다는가 서민이 치부하여 서민 계급이 될 수 있도록 상공업이 발달하지 못하였다. 또 대지주들도 일제 시대를 거쳐 그대로 있다가 대부분 몰락한 형편에 이르렀고 일제 시대에 상공업 서민 계급으로 전환된 양반이나 지주도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이리하여 양반 관념과 서민 관념은 그대로 오늘날까지 계속되어서 파· 지·문벌의 싸움이 또한 남아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봉쇄된 사회에서 지배와 피지배 두 계급이 형성되었다. 또 두 계급이 형성됨과 동시에 사회는 개방적이 되지 못하고 더욱 봉쇄적이 되는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권세를 잡은 자는 더욱 피지배자의 해방의 길을 막아 놓게 되고 그것을 맞는 것으로 지배자의 에너지를 탕진되게 되는 것이고 그 반면에 피지배자는 그들의 지배자의 질곡으로부터 도망할 길을 잃어 버리고 말게 된다. 나면서 죽기까지 서민 계급은 양반 계급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서양에서는 중세 시대 농노들이 영주의 압박을 피하여 자치 도시로 도망가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고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만든다>라는 속담까지 생기게 되었던 것이나 그러나 우리나라는 압박받는 서민 계급을 해방시킬 만한 도시도 이조 시대에는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대대손손이 서민은 양반의 횡포를 견디며 살아야 되었다. 여기서부터 아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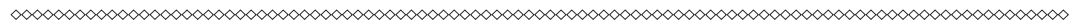
이 생기게 되었으니 같은 피지배자라도 상전에 아침을 잘하면 그래도 가혹한 압박은 면할 수가 있었다. 이리하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횡포한 권문세가에 아침하는 무리는 일증월가(日增月加)하였다. 지방 감사로 내려가면 마음껏 착취하였고 여기에 아침하는 관속들이 감사의 창고에서 흘러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게 된다. 힘든 노력보다 상전에 아침하는 것이 쉽게 편안히 살아가는 길이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처음에 가혹한 압박에 못 이겨 시작한 아침하는 버릇이 차차 상습화해지고 그것을 안일하게 살아가는 한 방편으로 삼게 되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비열한 노릇, 거짓말, 허례허식, 그리고 부패 등 온갖 좋지 못한 버릇이다 생기게 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침하는 버릇이 도가 넘치게 되면 자기의 출세를 위하여 자기보다 나은 상대방을 모함에 빠뜨리고 그 위에 올라서는 잔인한 행위까지 나타나게 된다. 내가 잘해서 출세한다는 생각이 아침해서 출세하는 버릇으로 변하고 그것이 다시 남을 모함에 넣는 버릇으로 변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조의 당파 싸움에 나타난 것이었으며 일제 시대의 친일파 속에 재현되었다가 대한민국이 되면서부터 다시 적극적으로 표면화해졌던 것이다. 이제 새삼스럽게 죽은 이의 이야기를 끄집어 낸다고 하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하나 우리 민족의 일부가 어느 정도로 아침하여 출세하기를 좋아하느냐의 본모습을 위하여 내가 들은 말을 하나 하겠다. 이 말은 고 만송(晩松)에 관한 것인데 만송은 부통령후보로 서기 전 벌써부터 완전한 폐인이었다. 업혀다녔고 안면 신경이 마비되어 밥을 입에 넣어도 한 옆으로 떨어지는 참혹한 폐인이었다. 이런 사람을 가두어 놓고 이박사보다 나이 젊다는 핑계로 부통령을 세워서 만대의 영화를 누리보려던 것이 자유당의 중요 간부가 아니었던가? 기막힌 말이다. 방귀를 끼어서 시원하겠다는 말의 류가 아닌 정도로 숨막히는 이야기이다. 이러니 이조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의사(義士)가 남의 모함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겠으며 일제 시대에 일본인에 아침하는 무리들 때문에 얼마나 무고한 사람이 형무소에서 고생을 하였겠으며 대한민국이 되어서도 얼마나 많은 애국 애족하는 국민이 사회로부터 은퇴하고 있었겠는가?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상전에 아침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자기의 무능을 은폐하기 위하여 상관에 아부하는 것도 만의 하나는 있을 수도 있는 일이나 어찌해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없애기 위하여 상전에 아침하며 모함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타협과 협조가 없는 싸움이 계속되어 온 것이다. 또한 오늘의 모든 불의와 부정이 이 아침하는 버릇에서 생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되겠다.

3.

민족성을 개조하자! 그것으로 국가제건을 완수하자! 오늘의 혁명정부에도 상관에 아침하는 무리들은 없는가? 깡패를 잡아도 좋고 부정 선거인, 반혁명분자 등등 모두 법으로 다스려도 좋다. 그러나 아침하는 부하가 있을 때 이것을 묵인하여 둔다면 이조와 자유당의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 모름지기 상관이나 위정자는 눈에 보이는 범법자를 처단하기에 앞서서 눈에 띄이지 않는 아침하는 무리를 엄벌하여야 될 것이다. 생생가계는 꼴뚜기가 망친다는 말이 있는데 실로 이조나 자유당



속(俗) 담(談) 춘(春) 추(秋)



고객자(孤客子)

28. 죽기는 살기보다 어렵다

부조리의 철학을 다룬 까무는 어지간히 살풍경한 말을 했었다. “인간은 마땅히 자살감이다. 살아야 할 이유란 하나도 없다.”고—
부조리 그 자체가 곧 조리일지도 모르기는 하지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면 죽어야 할 이유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이니 죽어야 할 이유는 더욱 없다고나 할까?
죽음이 무엇일까? 죽음의 문제는 동서 철인이 2천여 년 동안에 걸쳐 깨어들어가도 아직 뿌리를 발견 못하고 있으니 죽은 자엔 입이 없어 죽음의 증언을 구할 길이 없기 때문인가?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대한 천만 가지 의문은 하나도 증언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단 한가지 만은 백퍼센트의 확률을 가지고 증언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가 죽는다’라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못 믿어도 죽음만은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언제 우리를 방문해 올지 모르는 불초지객이 또한 죽음이라는 손님이다. 아니, 그보다도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포켓에 넣고 다니는 것이고 인간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 죽음이다. 인간이 오직 하나 믿을 수 있는 측근자이다. 현대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싫어하고 이 백퍼센트의 확률을 가진 죽음을 부정하기를 좋아한다.

시대의 한국은 모두 이런 아침하는 무리에 의하여 망하였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여야 될 것이다.

이제 나는 이 글이 군인 사회의 잡지에 실리게 되는 관계로 군인 사회에 대하여 특히 이 아침하는 습성을 완전히 청산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물론 군인 사회는 훈련과 규율과 명령과 복종으로 영위되느니 만큼 아침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군인들도 우리 민족의 일부인지라 감히 아침하는 버릇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사람은 늘 자기의 약점을 반성함으로써 실수없이 살아가 수 있는 것이니 우리도 우리의 약점을 늘 돌이켜 생각하고 그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인 사회란 솔직하고 단순하고 확실히 되어 있으므로 상관은 명령할 수 있고 부하는 그것에 복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관이 부하를 압박한다든가 부하가 상관에 아침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사회 생활은 복잡하여서 한편 사회에서 아침하는 버릇이 나타난다고 하면 다른 편 사회에서는 이를 공격하여 서로 견제를 할 수가 있으나 군인 사회는 단순하여서 만일에 아침하는 버릇이 생긴다고 하면 군기는 문란하고 군인 정신은 부패하여 갈 수밖에 없다. 아침을 받아들이기 좋아하는 상관이 있다고 하면 누가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일반사회나 군인사회를 막론하고 상관이 권세를 남용하면 반드시 아침하는 무리가 생기게 되는 법이다. 또 아침을 받기 싫어하는 상관도 가장 드문 일이다. 그러므로 아침을 막는 길은 상관은 정의의 명령을 발할 것이고 부하는 그것에 순종하는 습성을 기르는 데 있고 또 상관은 아침하는 부하를 제거해야 하고 부하도 그와 같은 습성을 가지지 않아야 될 것이다.

아침의 버릇을 고치는 일,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가 민주 사회를 좋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는 아침이란 것은 없고 오직 정정당당만 있기 때문이다. 사회 정의가 수립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국가에 있어서 아침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아침을 없앤다는 것과 사회 정의를 수립한다는 말은 서로 통하는 말이고 또 사회 정의를 세운다는 것과 민주 사회를 건설한다는 말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주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우리 민족성의 고질이라고 볼 수 있는 아침하는 습성을 이 기회에 청산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고려대학교(高麗大學校)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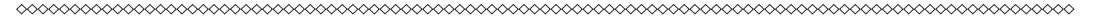
(33쪽에서)

고 있는 예가 많다. 서양에서는 남이야 아이스 케이크를 구어먹든 전봇대로 이를 쏘시든 자기에게 피해가 없는 일에는 간섭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도 앞으로는 남의 사생활에는 관심을 갖지 말고 공동 생활에 관심을 갖도록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국민 운동으로 이를 해야만 참말로 민주주의 국가를 재건할 수 있다고 본다.

봄에 산에서 꽃을 꺾어가지고 오는 사람보고 “왜 꽃을 꺾으시오?”하면 “당신 산이요?”하고 반문한다. “내 산도 당신 산도 아니고, 우리의 산이요. 그러니까 내가 꺾지 말라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도의라면 보통 어렵게 생각하기가 쉽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의 1인으로 살아가는 데 기분 좋게 살기 위하여 우리 각기가 지켜야 할 규칙이 즉 공중 도의인 것이다. 하나의 생활 과학인 것이다.

<필자·서울지방법원 소년부지원장>



인간이 가장 믿을 수 있고 인간에 가장 가깝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인생은 죽음을 부정하려고 하지마는 인간은 죽음과 더불어 있는 것이 아닐까? 죽음이란 인간의 속성이 아니고 본질일지도 모른다. 사람이 죽음을 겁낸다는 것은 생을 부정하는 것과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인간은 아무리 죽음을 싫어하고 부정하려 해도 이 엄연한 사실을 어떻게든 할 수 없었다. 오직 하나의 길 이 있다면 죽음을 초월할 수 밖에는 없다. 이래서 종교가 생겨났는지도 모른다. 모든 종교는 죽음의 문제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르다 할지라도 생사관의 궁극점은 동일하다. 죽음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종교의 힘이다.

삼목 청(三木淸)이라는 일본의 철학자가 그의 철학 노트에서 이런 말을 했었다. 20대나 50대와의 생사관이 달라졌다. 죽음에 접하는 연령이 되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고 은근하게도 친근감을 가지기도 한다고. 이것은 사실일 것이다. 죽음이란 인간만이 가지는 단계이고 날이 저물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가을이 되면 다음 철인 겨울의 준비를 한다. 죽음의 연령에 접근하면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된다. 이 같은 준비는 거의 무의식이다. 이 무의식적인 것에 죽음에 관한 어떠한 의미가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스무살을 전후할 어느 때라고 기억된다. 환갑을 지낸 조부를 따라 산소에 갔을 때 참배를 하고 난 뒤 조부는 지팡이로 증조부의 묘소 근방에 선을 그으며 “여기가 나의 묘터다. 내가 죽으면 꼭 여기에 이렇게 묻어야 한다.”하시며 좌향(座向)까지 상세히 설명하셨다. 나는 그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죽으면 그만인데 자기 묘터를 걱정하다니—’그때의 조부의 모습을 상기하면 이해되는 점이 없지 않다. 첫째 조부는 그 묘터를 지극히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계셨다. 죽음이란 지극히 당연한 것이란 얼굴이었고 말씨였다. 사람은 죽음을 싫어하는 본능과 함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본능도 가지고 있다.

공중도의(公衆道義)와 개인(個人)의 자각(自覺)

권순영(權純永)



내가 Y대학의 강사로 나가던 때다. 시내버스 속에는 Y대학생들로 차 있다. 내가 앉은 앞에 Y대학생이 서서 담배를 피고 있다. 나는 명령조로 “학생 담배 꺼” 그에게 말했다. “왜 남의 일에 간섭하십니까?”하고 그는 대답한다. “그대의 담뱃불이 잘못하여 내 양복에 떨어지면 내 양복이 타지 않나! 그리고 그대가 피는 담배 연기가 내 코로 들어오지 않는가! 그러니 그대의 일이 아니고 내게 관한 일이며, 우리들의 일이 아닌가?”라고 말해도 그 학생은 담배를 끄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나는 Y대학의 강사 K인데……”하였더니 그제서야 “누구신지 몰라피었습니다.”하며 담배를 껐다.

우리뿐만 아니라 유교가 문화의 기본인 동양의 사회에 있어서는 누군지 아는 사람에게 대하여서는 도의가 잘 지켜져서 예의의 동방이라는 칭호까지 받고 있다. 그러나 누구인지 모르는 타인과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무례하기 짝이 없다. 유교의 기본 원리는 임금에게는 충성을 하고 부모에게는 효도를 하며 형제간에는 우애가 있어야 하며 하는 따위의 좁은 대인관계의 윤리규범이다. 현대의 최고교육을 받은 대학생도 내가 자기의 스승이라고 할때야 겨우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도의를 지킨다. 이것이 동양 사회의 약점이며 민주주의가 이 나라에 잘 실천 안되는 암이기도 하다. 어떤 권위에 대해서는 복종을 하지만 개인과 개인이 인간적인 면에서 평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대인 관계는 원만치가 못하다. 앞으로의 우리 나라의 교육은 이러한 면에 가중하여 인간을 개선하며 동시에 민족성을 고쳐야 하겠다.

수년 전에 관광버스를 타고 강화도에 갔던 일이 있다. 돌아오는 길에 차내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하고 떠들기 시작한다. 승객들이 그러는 것은 또 참을수 있다. 그러나 여행사측에서 확성기를 준비하여 지명하면 한사람씩 운전대에 나와서 독창할 것을 강요한다. 잘 부르는 노래이며 자원해서 하는 것이라면 오락프로그램으로 보았는데 술이 취해 가지고 돼지 목따는 소리를 하니 참고 듣기가 어려웠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술을 권하는 것을

그러는데 요즘의 세대가 바뀐 것만은 사실이다. 죽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겨를이 요즘의 우리에게 없다.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기 전에 삶이 무엇인가부터 알기에 바쁘다. 그래서 까무와 같은 살풍경한 결론이 나오기도 하는지 알 수 없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결론을 얻기 전에는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인가에 미쳐 생각이 가지를 않는다. 그러나 이 결론은 죽음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지 않는가도 여겨진다.

아무리 성공적으로 진행된 무대도 막을 서둘러 내리면 모처럼의 전공(前功)도 송두리째 망치는 경우가 많다. 죽음이란 인생에 있어서 이 막과 같은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죽음의 태도 여하가 그 사람의 전 생애를 좌우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코 아무렇게나 죽을 수는 없다. 빛나는 죽음은 빛나는 삶을 의미하게 되니까. 몬테뉴는 죽음을 배우는 것이 철학이라고 했는데 ‘죽기는 살기보다 어렵다.’라는 우리 속담은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곤잘 한 마디로 묶은 표현이다.

29. 남자(男子)는 죽을 때 전장(戰場)에서 죽어라

라는 말이 있다.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싸움터에 한번 나가보지 못한다면 이보다 초라한 생애는 없다는 뜻이다. 전장에서의 장렬한 죽음이야말로 가장 남아다운 죽음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아침의 흥안 저녁에 백공이 되어 돌아오다.’라는 문자도 있다. 죽음을 초개시(草芥視)하는 것이 우리 무인의 생사관이다.

생각하면 사람은 단 한번 밖에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는 것이니 생이란 비길 데 없이 존귀한 것이다. 그러나 죽음도 생과 마찬가지로 단 한번 밖에는 죽을 수 없다. 두 번 태어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 죽어볼 수는 없다. 죽음의 존귀함은 삶의 존귀함과 조금도 다른 바가 없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내 남 할 것 없이 살기가 바쁘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재건논단(再建論壇)

거절하였더니 나보고 거만하다고 시비를 건다. 일요일에 휴양차 관광버스를 탔다가 욕을 툭툭히 보고 그 후부터는 관광버스를 다시는 안 탄다.

봄에 경주 불국사(佛國寺)에 갔었을 때 일이다. 명칭이 호텔인데 목욕물도 데워주지 않고, 옆 방의 손님들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마작을 하여 잠을 못 이루었다.

가을에 속리산(俗離山) 범주사(法住寺)에 갔었을 때의 일이다. 전날밤 잠을 못 자서 폭 쉬려고 여승 옆의 조용한 방을 얻어 첫잠이 들어서 곧히 잠들고 있었을 때 밖에서 술 취한 사람의 떠드는 목소리에 잠을 깨었다. 그 회화의 내용은 그 도의 도의원(道議員)이 여승 보고 우리가 자고 있는 방을 자기들을 위하여 비워달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국내 여행의 귀중한 경험을 쌓은 후부터는 부득이 국내 여행을 중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국민의 공중 도의가 없어지고는 우리나라에는 관광 사업이 발전하기 어렵다고 느껴졌다. 외국인이 비싼 여비를 들여가면서 고생하려 이역만리 한국을 방문할 리가 없다.

1958년 가을 일본에 갔었을 때 대판(大阪)에서 동경까지 보통 야간 열차 3등을 타보았다. 이것은 일본인의 공중도의를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기차 여행을 해보면 차내가 조용하다. 이야기가 옆의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 조용히 한다. 그런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주간 열차는 말할 것도 없이 침대 열차도 소란하기가 술집 같다. 바쁜 세상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침대 열차를 이용하는 것인데 남이야 잠을 자든 말든 내가 상관할 바가 있느냐는 식으로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떠들어 댄다. 일본의 삼등 열차는 조용한 정도가 미국의 수준이었다. 이것을 보고 나는 참말로 놀랐다. 일본은 과연 동양에서는 경제뿐 아니라 문화면에서도 세계 수준에 도달한 유일한 나라라는 것을 느꼈다.

우리나라의 침대 열차에서 술 마시며 떠드는 친구도 비행기(국제선)를 타면 떠들지 못할 것이다. 그때는 외국인들이 소동하고 조용히 드러누워 있는 것을 본받을 것이다. 나는 공동 사회에서 떠들지 않고 조용 조용히 생활할 줄 아는 것이 문명인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재고할 점이 있다고 본다.

나는 중학 3학년 때에 금강산(金剛山) 수학여행을 갔었다. 비로봉에서 하루 저녁을 잤는데 그곳에는 구메 산장이라는 여관 하나밖에 없다. 우리 학생 일행이 묵고 있는 날 저녁 공교롭게도 당시의 조선 총독부의 정무 총감부인, 도지사 부인 등 일본 고관부인들이 같은 여관에 투숙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떠들고 놀았다. 고관 부인들은 참다 못하여 밤 1시가 되어서 수행 온 경찰 서장을 통하여 학생들이 조용히 해주기를 부탁해 왔다. 그 때에 학생 이외에 다른 손님도 있으니 그 손님들을 위하여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으면 그 교섭이 성공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경찰 서장은 정무차감각하 부인이 투숙하고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반항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일부러 더 떠들었다. 차차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이 때에 우리를 인솔하고 갔던 통구선생(樋口先生) 일인(日人)은 고관 부인이면 제 일이나? 학생을 이해하고 하루 저녁쯤 잠을 못 자면 어떠냐고

생각할 겨를이 없다. 다윈의 적자생존, 약육강식이라는 진화론의 법칙이 한때 제국주의에 부채질을 하기도 했지만은 오늘의 세계가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약육강식에 의해서 전 인류가 또다시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의 생활에서 흔히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 “살기 위해서”—속이고 죽이고 도둑질도 하고……모두가 살기 위해서라는 연막으로 둘러 씌우려 든다. 살기 위해서 하는 인간 행위는 엄연한 한계가 있음에도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간 사회가 문자 그대로 약육강식하는 금수의 사회와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는가?

30.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는 우리 속담은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상이 없지 않다. 우리는 이 속담을 엄격히 검토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군자(君子)는 대로행(大路行)”이라 했다. 군자는 대로를 뚫듯이 확보하는 것이고 결코 어둠침침한 뒷 골목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군자의 길이다. 서울은 마땅히 뚫뚫히 걸어갈 수 있는 공로(公路)를 걸어서 갈 일이지 남몰래 밤길을 건너나 산길을 질러서 간다면 이는 결코 군자의 길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31. 길을 두고 뒤편 간다

는 속담이 생겨났는지도 모를 일이다. 길을 두고 구태여 뒤편을 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분명히 길을 뚫뚫히 걸어갈 수 없는 죄인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공로로 가서는 어떠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자임에 틀림 없을 것이다.

5월 혁명 전의 우리 사회는 매우 혼란되고 어두운 세상이었다.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을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이었다. 정정당당히 서울을 가려고

항의를 하여 회담은 실패로 돌아가고 우리는 밤새껏 떠돌았다.

그때 우리 일행은 통구 선생을 영웅시하고 존경하여 졸업 때까지 학생들 간에 인기가 있었다. 지금 나이를 먹고 그때의 통구 선생의 태도를 생각해 보면 그가 전부 잘했다고는 볼 수 없다. 사춘기 소년의 심리를 이해하고 학생을 위하여 투쟁해 준 것은 교육자로서 훌륭하다고 본다. 그러나 공동생활을 하는데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경찰 서장의 교섭 방법도 훌륭하였다. 반항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감정을 자극하는 언사를 썼던 점, 즉 교섭한 경찰 서장이나 이를 거부한 선생이나 모두 미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박약하였다. 학생이나 고관부인이나 인간으로는 동등하다. 누구나 여행을 할 자유가 있으며 돈을 내고 여관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또 그 여관을 많은 돈을 내고 독점 사용 계약도 할 수 있다. 그런 때에는 밤새도록 자지 않고 떠들어도 아무에게도 피해가 없다. 그러나 한 여관을 공동 사용하는 데는 행동에 제한이 있으며 거기에는 당연히 공중도의가 따르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는 통구 선생의 태도는 교육자로서 재고할 점이 있다고 본다. 학생 시대에 공동 사회 생활하는 데 개인으로서 지켜야 할 공중 도의를 무시하여도 좋다는 관념을 넣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워싱턴에서 미국 의회를 시찰할 때 일이다. 길을 건너는 데 정지 신호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길을 건너려고 하였다. 그때 우리 일행을 안내하던 뉴저지 주의 의원이 나를 붙들면서 “귀하는 스페어 생명이 있습니까? 교통 신호에는 판사도 국회의원도 없습니다. 신호를 위반하면 생명을 빼앗기는 것 뿐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사람 말대로 교통 신호를 지킨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며, 자기의 생명을 존중해서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중도의를 지키는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 각자가 자각한다면 우리 사회는 명랑해지고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그 후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교통 규칙을 잘 지키나 보기 위하여 새벽 3시, 4시에 사람이 없는 거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호텔에서 내려다 보았다. 사람이나 자동차가 하나도 없어도 자동차는 파란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뉴욕시의 지하철 정거장 내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되어 있다. 미국에 갔다고 한국에서의 습관이 일조일석에 쉽게 변경되지를 않는다. 지하철 정거장이 한국의 기차 정거장같이만 생각이 되어 담배를 곧잘 피어 물었다. 그때마다 주위의 서양 사람들이 나를 흘끔 흘끔 바라본다. 그러면 나는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나 또는 양복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 하고 나의 몸을 살펴봐도 아무 이상이 없음을 발견한 후에야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면 지하철을 기다리는 수백 명 중에 담배 피우는 것은 오직 코리아·첼덴만인 나뿐이다. 주의, 금연, 위반하면 25불 벌금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 미국 사람이 나를 보기를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25불 벌금 낼 각오로 담배를 피우고 있고나 생각하고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내가 미국을 시찰 간 것이 아니고 내가 쇼를 보여주려고 미국에 간 것 같다.

미국에서 바(Bar)에 가보면 참 조용하다. 혼자 온 사람이 많다. 그래서 옆에 앉은 사람

드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밤길이나 그렇지 않으면 피 길을 걸어서 서울을 가려고 들었다. 모두들 도둑 길을 걸었던 것이다. 대로나 공로는 텅텅 비어 있는데 뒷골목은 사람들이 짝 차서 비좁았다.

32. 두드리라 그러면 문은 열리리

라고 가르쳐 주었지만 그러나 그 문은 앞문이고 정문을 말한 것이지 결코 뒷문은 아니었지만 뒷골목만을 걸어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정문은 두드리 볼 생각은 하지 않고 구태여 뒷문만을 두드렸다. 밤길이나 뒷골목만을 택하고 뒷문이나 봉창(封窓)만을 두드리는 세상이었으니 어찌 사회가 혼란하고 질서가 문란하지 않았으랴.

그러나 한편 우리는 이와 같은 사회 현상을 국민만을 나무람 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로 가는 공로를 가로막은 자와 앞문은 굳게 철창을 하고 뒷문이나 봉창만을 비스듬히 열어둔 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자는 과연 누구였던가?

5월 군사혁명에 서울로 가는 공로를 환하게 터어 놓았고 뒷문과 봉창을 막는 동시에 정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 사람은 누구나 공로를 택하지 않으면 서울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었고 정문을 택하지 않고는 정동(正棟)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

한때 우리 사회에 ‘모로 써도 감투만 쓰면 제일이다’라는 시어가 유행하였다. 또 ‘모로 쓰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것이 감투가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다. 부패와 부정의 총본산(總本山)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모든 구악과 부패를 일소하고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바로잡는 국민 운동이며 신 생활 운동이란 누구나 공로를 확보케 하는 운동이며 정문을 정정당당한 자세로 두드리게 하는 운동이 아니겠는가.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행치 않는 것이 군자의 길이다. 공산주의자들의 말들은 이치에 맞지 않고 그들의 걷는 길은 모두가 지하도다. 그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대로를 꺼려하며 귓속말로

재건논단(再建論壇)

하고 곧 친하게 되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심심치 않게 술을 마시게 된다. 피아노가 있는데 손님 중에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친다. 그러면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초면부지의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즐겁게 논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ㅼ는 살기가 참만하다. 걸핏하면 겁이 날르고 맥주병이 날르고 한다. 그래서 ㅼ에 가려면 가족에게 유언을 하던지 생명 보험에 들고 비장한 각오를 하고 용기를 내서 결사적으로 가야 한다.

나의 명동 어떤 ㅼ에서 목격담. 옆 테이블에서 샴페인을 터뜨렸다. 그것을 본 부지의 술 마시던 친구가 ‘근사한데’ 하였다. 샴페인 터뜨리던 친구가 하는 말이 ‘남이 샴페인을 터뜨리던 말던 네가 무슨 상관이야? 건방진 자식 같으니’우리는 축하하는 의미로 그랬는데 노형이 그렇게 화내실 것 없지 않으시오’누가 너보고 축하해 달랬어’집이 많은 나는 싸움의 종말도 구경 못하고 ㅼ에서 나와버렸다.

이 광경을 보고 나는 ㅼ라는 제도는 우리 국민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공개한 장소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친할 수 있고 사교적이며 공격적이지 아닌 서구인이나 ㅼ는 적합한 시설같이 생각된다. 우리 국민은 공개적인 것을 싫어한다. 서구인은 사람보는 데서도 공연히 키스를 한다. 또 우리는 사교적이 못 된다. 자기 방위적이며 공격적이다. 이는 나의 생각으로는 열등감과 욕구불만과 외세의 지배를 받아서 갈등이 많은 것이 술에 취하면 공세적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 같다. 하루종일의 직장에서의 노고를 풀고 위안을 받으려고 술 마시러 ㅼ에 갔다가 같은 술친구와 싸우지 않으면 여급(女給)하고 싸우기가 일수이다. 우리나라에 서구의 제도를 수입하기 전에 공중도의에 관한 민주주의의 훈련 단계가 필요한 것 같이 생각된다. 가령 서구에서 축구 볼만 수입하고 축구 룰을 배우지 않으면 축구 경기하다가 부상자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ㅼ의 이용법을 몰라서 술마시다가 부상자를 내는 것이다.

어떤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병정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구두를 신은 채 그들 앞에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려놓았다. 을이 갑보고 다리를 좀 내려 놓으라고 부탁하였다. 갑은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행동에 자유가 있으며 미국 사람들은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다리를 내려놓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갑과 을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그 사건이 그 직장의 장에게까지 알려졌다.

그 직장의 장은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을 다녀온 사람이었는데 갑이 공중도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관정이 내렸다. 이상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풍습이 잘못 전해진 것이 많다. 민주주의에는 개인의 행동의 자유가 있지만 남에게 불유쾌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의 행동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와 방종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공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데 대하여서는 무관심한 데 비하여 남의 순전한 사생활에 관심이 많다. ‘남의 제사에 감 놓아라, 밥 놓아라.’하는 격언과 같이 자기에게 아무 관련이 없는 일에 간섭을 하 (29면에 계속)

속삭일 줄밖에 모른다. 이것은 그들의 언행이 모두가 정도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원래 속삭이는 말 가운데 적당한 말은 없고 도둑 길에 정도는 없는 법이니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국가제건에 국민이 총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우리는 이러한 자를 심분 경계할 일이다.

33.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니’철조망보다 방첩망이 긴요하다. 세상에는 세 가지의 무서운 끝이 있다고 했다. 칼끝, 혀끝, 붓끝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혀끝이 가장 무섭다. 말 한마디가 능히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천하를 뒤집을 수도 있는 것이다.

34. 절구가 깊으면 주둥이 긴 개가 든다

귀가 얇고 입이 가벼운 사람에게 간첩은 접근한다. 술이 우거지면 범이 들고 그릇이 더러우면 걸음을 담는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우리 스스로가 간첩을 불러들이는 언행이 적지 않다. 우리 속담에

35. 등치고 간(肝)내 먹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 간첩의 방법이 바로 이 속담과 같다. 이 속담은 사람을 속이는 수단이 비범하다는 뜻이지 마는 간첩은 그 수단과 기술이 더욱 교묘하여 등을 치지 않고 간을 내 먹는다. 등치고 간 내 먹는 것은 기술 부족이고 괴뢰 간첩은 우리 속담 그대로 ‘세워놓고 눈알 ㅼ 간다’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36.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서야 하는 조심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튼튼해 보인 돌다리가 뜻밖에 무너지듯이 ‘설마 이 사람이……’하던 자가 뜻밖에 간첩일 경우가 없다고 아무도 보장 못한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실례를

서비스 정신(情神)과 사회생활(社會生活)

박술음(朴術音)

서비스란 말은 서양 문명의 수입과 함께 들어온 것으로서 처음에 봉사라고 번역하였을 때는 몹시 서투르게 느껴졌다. 그것은 봉사라는 한문 자체가 널리 쓰여지지 않았음에 기인도 하였으려니와 서비스라는 말에는 봉사라는 비교적 새로운 말로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뜻이 있음에도 한 가지 까닭은 있었다.

그러기에 아직도 주유소를 영어 그대로 서비스 스테이션이니, 접대부를 서비스 걸이니 쓰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주유소를 봉사소, 접대부를 봉사부라고 부르기도 어색하지 않겠는가? 마치 프로포즈라는 말을 특히 현대 여성들이 흔히 쓰는 이유로 청혼이라는 노골적인 언사 쓰기가 면구하기도 하려니와 어쩐지 예전 중매 아비를 통하여서의 정식적 절차를 이 청혼이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과는 다르다.

여기에서 나는 서비스라는 말의 뜻을 밝혀 나가며 봉사라고 번역하여 마땅한 경우에 그 정신을 풀이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엮어 보려 한다. 이타니 시중들기니 섬김이니 등등의 봉사의 유의어가 뜻하는 것으로서는 현 사회의 상층을 이루면서 아물기 어렵겠고 오직 봉사만이 우리가 매어달려 볼 최후의 줄인 것 같이 생각되기 때문이다.

서비스에는 일, 하인 노릇, 근무, 이익, 편익, 소용, 공급, 공급 시설, 음식 제공, 제공된 음식, 접시, 가솔린이나 오일이나 물 등을 자동차에 공급하는 곳, 기계 및 전기 시설 등의 부속품 등을 살 수 있는 곳, 예배, 종교 의식, 정구 운동 시작 때의 공 넣기 등의 뜻 이외에 ‘사람이나 시설이나 어떤 주의를 돕기 위한 행동’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봉사라고 옳고 싶은 내용이다.

한국의 국민은 너무나 가난하다. 이조 시대 봉건 제도 아래서는 관리들에게 빼앗겼고, 일제 때는 일본인에게 재산은 물론 말까지 빼앗겼었고, 6·25 사변에는 그나마 남았던 것마저 재떨미로 되고 말았으니 이제 지주도 없고 재벌도 없고, 우리는 모두가 재산이라고는 없는 알거지 신세가 되었다.

우리 불행엔 끝이 없어서 전쟁으로 또한 많은 젊은이가 희생되니 아버지 없는 어린이들과 남편 잃은 여성과 의지할 곳 없는 늙은 분들이 집도 없고 옷도 없고 밥도 없어 지친 몸에 머리는 미칠 듯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전쟁 중 대공 투쟁에서 큰 상처를 입은 상이군경(傷痍軍警)

적지 않게 보지 않았는가?

37. 물은 건너보아야 깊고 알음을 알고

길고 짧은은 겨누어보아야 아는 것이며 사람은 겪어보아야 그 인품을 알 수 있다. 명심보감에 만심해저(萬尋海底)는 알 길이 있어도 지척의 흥중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천지의 사이에 만물의 가운데에서 오직 사람만이 가장 귀한데 천지의 사이에 만물의 가운데에서 오직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가슴 속인가 하노라. 그래서

38. 아는 도끼에 발 찍히는

만례가 혼한 것이 간첩이랑 어디 동떨어진 곳에서 숨어드는 것이 아니고 신변에 있기가 일수이다. 그렇다고 중국의 전란 시대처럼

39. 사람을 보거든 도적으로 알라

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평소에 조금만 주의한다면 수상한 자는 곧 발견할 수가 있는 법이고 또 그렇게 조심성 있는 자에게는 좀처럼 간첩이 접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40. 바늘 끝도 자리가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옛날 어느 산골에 미모의 과부가 있었다. 밤이면 못 남자들이 담장 가에서 으스덕 거리는 바람에 과부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어느 날 과부는 가까이 있는 절의 스님을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했더니 스님은 종을 치며 종소리가 어떻게 들리느냐고 물었다. 과부의 귀에는 이렇게 들렸다. “딩·딩 개가하라. 딩·딩 개가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들리노라고 말한 즉 스님은 그렇다면 개가를 하시오. 그 못 남자들은 당신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여드는 것이요. 말하자면 당신이 불러들이고 있는

재건논단(再建論壇)

들조차 생활 방도를 잃고 가두에 방황하며 구원의 손을 기다려 보는 길 이외에 어찌할 바를 알 길이 없었으니 문제의 심각함이 비할 데 없었다.

민중의 살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할 정치인들은 맡겨진 권리를 이용하여 부정과 부패의 생활을 서슴지 않았고 어떤 기관의 운영 책임을 진 많은 지도적 인물들은 사업체를 일으켜 보기는커녕 그것을 파먹어 대부분 결단을 내어 놓았으며 공

무원들은 음성 수입에 눈이 어두워 일의 정당한 처리에 소홀하였으니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 것인지 목자 없는 양떼가 되어 버렸었다.

이에 따라 민심은 극도로 악화하여 남의 돈 빚진 것 값을 생각 전혀 않고 강패를 꾸며 남의 것 털어먹기에 일부 장정들은 여념이 없었으며, 의리도 정조도 신의도 엄치도 체면도 모두 돈과 바꾸게 되었으니 흠이 안 간 집이 별로 없고 틈 안 간 기관이 보기 드물 정도였다. 그리하여 이대로 나가다가는 스스로 아주 망해 버릴 수밖에 없던 때에 신 생활을 강력히 추진하는 운동이 맹렬하게 일어났으니 이것이 혁명이고 즉 봉사 정신 발양 운동이다.

우리 한국민 개개인이 일대일로 선진국 사람들과 겨누어 볼 때 손색이 별로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머리가 남만 못한가? 체력이 남에게 떨어지나? 한 판 씨름을 당당히 해볼 만한데 단체로서는 아주 빈약하다. 배 전체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자기도 살 터인데 자기 혼자만의 안일만 탐하다 보니 어느새 돌보는 사람 없는 배는 깨어져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수중고혼(水中孤魂)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되는 현실이다.

내가 학교에 관계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지난번 입학 시험에 관계하였었다는바 성적 사정에 부정한 처사가 있을 때에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뜻의 맹약서를 당국의 요청대로 내면서 한없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교육자로서 왜 과거에 부정입학을 시킨 사람이 있었을까? 남의 스승이라는 사람이 맹약서가 두려워서 부정을 억지로 범하지 않도록 되었다면 한심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원동력으로 생물학자 다윈은 적자생존을 지적했고, 역시 생물학자인 크로포트킨은 상부상조를 들었다. 두 가지가 다 옳은 말이나 오늘같이 폐쇄된 한국 사회에서는 후자인 서로 돕기를 권장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은 일제 말기와 피난 시에 그 태도 목숨이 붙어난 것은 구래의 가족 제도, 이웃 사촌의 관념, 한국은 인정의 나라라는 관용 및 미국 원조 물자의 덕택이었기 때문이다.

오늘 세계 정책의 가장 뚜렷한 목표는 궁핍을 막자는 것인데 이것을 실현하는 데는 서로 주먹질하여 빼앗아 먹는 것이 아니라 적은 마음, 적은 분량으로도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해주는 생활이 첫 걸음이다. 그러면 답안은 나왔다. 즉 건전한 사회생활은 궁핍 제거에 있고, 궁핍 제거에는 봉사 정신이 상책이라고. 이번 혁명으로 봉사 정신을 망각했던 책임자들의 별 받고 있는 실정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다. 어떤 사회에서나 모든 사람이 자기 몫의 먹을 것을 먹고 자기가 할 일을 하면 건전한 사회는 이룩된다. 누구나 이제는 깨었으므로 이용 당할 사람은 없다. 혼자 살 수는 없는 세상으로 되었으니 남을 위해주어야 자기도 위함을 받을 것임은 누구나가 너무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필자·미문중고(微文中高) 교장)

것이라고 말했다는 고담(古談)이 있다. 이는 그 과부의 심지가 단단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경고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이와 같은 간첩의 무리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언행이 없는가 항상 단단한 심지를 가져야겠다는 것이다. 정말

41. 옛말에 그른 말은 없다

속담이 옛말이라면 속담엔 그른 말이 없다.

42. 아이 말도 귀담아들을 때가 있다

는 격으로 속담이라고 해서 웃어넘기거나 그야말로 속담으로만 그칠 것이 못 된다. 천만자의 글을 한 구절로 멋있게 엮은 것이 속담이고 인생의 살아있는 철학이다.

43. 수영이 석 자라도 먹어야 산다

는 속담은 의식이 죽어야 예의를 안다는 한학의 문자보다도 더 절실하지마는 의식이 죽어서 비로소 예의를 안다는 대구로는 ‘금강산 구경도 식후’라는 속담과 뜻이 통한다. ‘먹는 것은 남이 몰라도 입는 것은 남이 안다.’라는 속담에 뿔이 돋쳐

44. 의복(衣服)이 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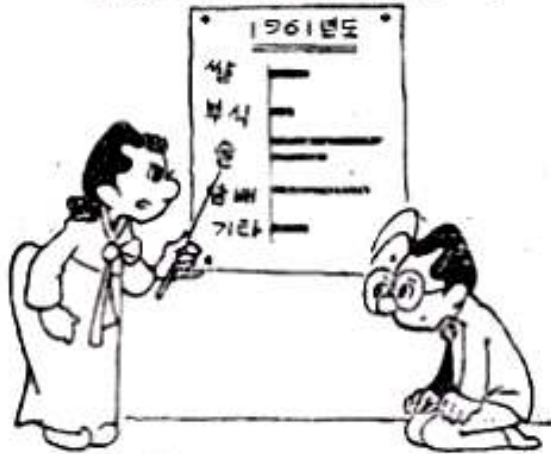
라는 속담이 한때 우리 사회에 문자 그대로 날개를 펼쳤던 것이다. 들어가면 죽을 먹는 사람이라도 나오면 파리에 가져다 놓아도 손색이 없는 유행의 침단을 가는 옷차림이었으니까. 소박한 상대성 원리를 빌린다면 그와 같은 사치한 옷차림이 아니고는 행세를 할 수 없는 사회 풍조라는 상대 한층 더 의복을 날개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행세한 것이 아니고 의복이란 날개가 행세하는 세상(世相)이었다. 이제 이 같은 퇴폐한 사조가 점차 청산되어 가고 있는 것은 지극히 즐거운 현상이며 한강 가의 기적을 이룩하는 하나의 큰 교향악의 전주문(前奏門)이 것이다. (끝)

→송구영신(送舊迎新)[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음]

送舊迎新

이상민(李相旻)

「자 - 그럼 지금부터 프리핑을 시작할테나 끝난후에 기탄없는 의견을 제출하기 바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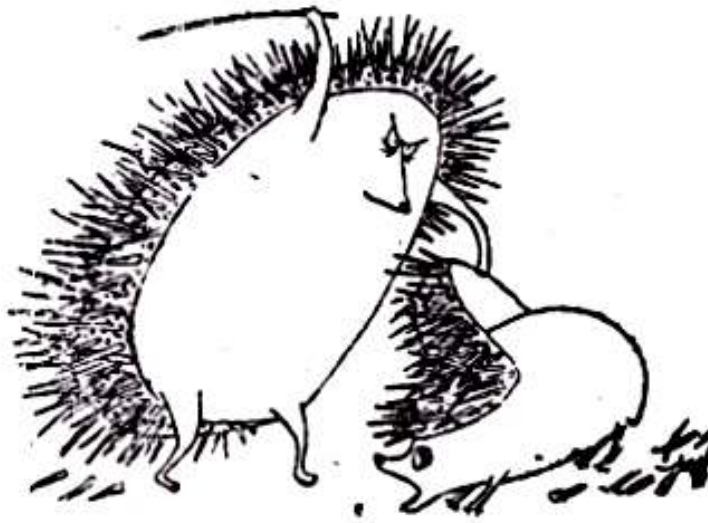
→호선생왕(虎先生任)! 사무인계(事務引繼)하러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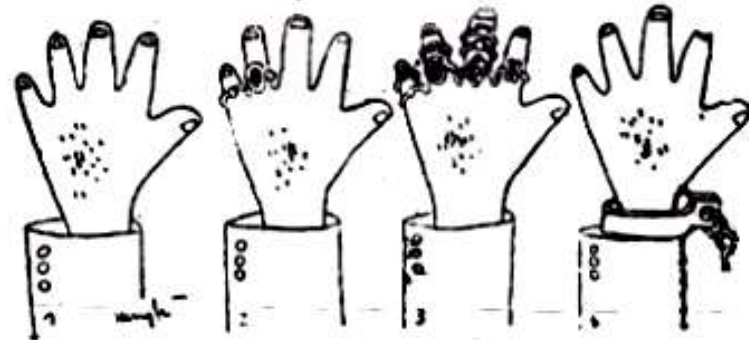
미켈 사형은 저기 연동에서 아직 연기가 안오르는 공장에서 속히 연기가 오르게 하는것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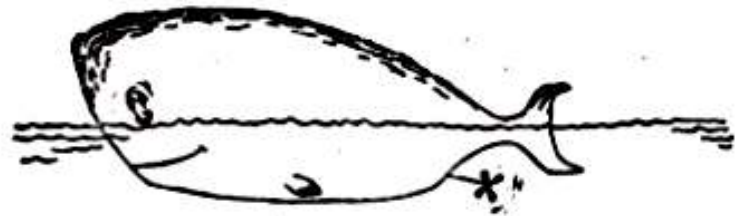
「저 - 가독 복음 방송반 입니다 이번 이 새해를 맞이하여 선생님의 건설적인 의견을 한 말씀 해 주세요---



△고슴도치의 달초(撻撻)▽



△아름다운가락지니 아름다운팔찌에로▽



△무제(無題)▽

해외걸작만화(海外傑作漫畫)

기텔·칸펠작(作)

수술대(手術臺)에 오른 4개 구악(四個舊惡)

우리의 구악 속에는 몇 가지의 근원적인 병든 사조가 있다. 이 병든 사조는 방금 진행중에 있는 민족성 개조라는 수술대에 올려져서 절단 수술을 받고 있는 중이다. 여기 1962년의 새 아침을 맞아 이 병든 사조의 정체를 해부해서 축출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감투론(論)

조풍연(趙豐衍)

서장(序章) '감투'의 어의



양자(楊子) 「방언(方言)」에는 상자류(箱子類)라 하였고, 「광운(廣韻)」에는 머리를 덮는 것이라고 하였다. 고대 변(巾)(필자 주 땅이름)에 발달된 것으로 사모(紗帽)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사모는 조복의 의식용(儀式用)으로 되었으나 감투는 일상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문조만록(聞韶漫錄)에 보면 임진왜란 이후 사족들이 갓을 썼다고 하는 것을 보면 감투도 이때부터 쓰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근자에는 벼슬하는 자만 감투를 쓰고 평민은 쓰지 못하였으므로 사관(仕官)하는 자를 “감투를 썼다”고 하는 말이 생겼다. (학원사(學園社) 대백과사전)

제1장 위장용어(僞裝用語) '감투'

과연 감투는 머리에 쓰는 것이요, 벼슬아치가 쓰는 것임에 틀림없다. 사농공상의 서열에서 맨 꼭대기가 사관 한 자라면 바로 그 꼭대기에 얹힌 것이 감투다. 말하자면 감투는 그것을 쓴 자의 계급을 나타내는 유니폼이다. 알다시피 유니폼은 자신의 자격을 과시함과 동시에 명시하는 것이니, 착용한 이상에는 의무 이행이 따르는 게 원칙이다. 일단 감투를 쓴 자가 행동경(行篤敬)하고 언충실(言忠實)하지 못하면 모름지기 감투와 함께 모가지가 날아가는 법이다.

그것을 무시하고 밀도 끝도 없이 해방 후에 유행한 감투라는 용어는 권력이라는 무형물의 상징어로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감투를 쓰던 자들이 지니었던 권력을 가진 자의 통칭이다. 사실로, 그런 자들이 감투처럼 유니폼을 착용하고 그 유니폼에 값하는 책임을 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말쑥한 신사 차림은 하였으며 민주주의 사회의 공복(公僕)이라는 일을 맡았으면서 별로 책임감도 없는 부류들의 통칭이 감투다. 일언이폐지(一言以蔽之) 감투는 탐관오리의 별칭처럼 되었다.

왜냐하면 벼슬 안 하던 사람이 벼슬을 하면 감투 썼다하는 것은 사리에 타당하다. 그러나 ‘큰 감투’ ‘작은 감투’라는 말은 어디 당한 소리인가. 대관절 그 크고 작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권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면 아니다.

모든 공복이 탐관오리는 물론 아니었다. 그러기 때문에 사관(仕官)하는 사람을 우리 서민은 두 갈래로 구별해 대한다. “저 사람은 일을 맡았군.”한다던가, “저 사람 중책을 졌는데—”한다던가 하는, 의지당연(宜之當然)의 벼슬아치와, “이크 큰 감투 썼군”하는 것과의 차이는 천양지판(天壤之判)이다.

그러니까 감투는 백과사전의 풀이와는 현실적으로 위장되어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두말할 것 없이 좋은 말은 아니다.

제2장 의자(椅子)의 위력(威力)

감투는 오늘날 벼슬아치에만 쓰이는 말은 아니다. 사(士)를 빼고도 농공상(農工商) 어느 것이든지 어쨌든 권력만 행할 수 있는 터이면 모두 감투다. 은행장이 되어도 “감투 썼다”하고 심지어 초등학교 사친회 이사쯤 되어도 “감투 썼다”한다. 물론 조합장도 감투요, 신문 윤리 위원도 감투다. 이렇고 보면, 어떠한 공직이나 보수나 권력과는 상관없는 명예직에도 감투는 통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감투라는 어의에서 흘러나온 애칭에 불과하며 일종의 아이러니가 있다. 그러므로 감투가 위장 용어라는 본질이 이로써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권력의 심볼들이 사실상 감투나 모자는 쓰지 않아도 책상과 의자만은 저마다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책상과 의자는 직위에 따라 대소와 양불량(良不良)이 다르니, 굳이 말한다면 감투가 아니라 의자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어느 사회를 가든지 자리가 제일 중요하고 생존경쟁의 하나로 자리 다툼이 매우 치열할지던 자리 즉 현대어로 의자의 위력이 현실적이 아닌가 한다.

왜 그러면 “큰 자리 차지했군” 하지 않고서 “큰 감투 썼군”하는 말이 더 실감이 났던가. 여기 대해서는 감투란 말이 고개를 들고 전지전창(傳之傳唱)된 시기가 8·15 해방 직후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일본 통치 아래서는 고등문관시험이라도 패스 안해 가지고는 사관다운 사관을 못하던 터인데, 해방이 되자 막혔던 붓물이 터지듯 사관자가 축출하여 우선 감투가 절실감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자리 역시 무형의 상징어임에 틀림없다. 앉을 자리도 없이 비록 삼배 조각에 대서한 복덕방일망정

상하의 자리가 분명하고 강패의 세계나 구치인의 세계나 지하 공작하는 공산당의 세계에도 자리가 있고 자리다툼이 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이렇게 깨고 들면 자리를 유형으로 나타내는 의자도 어찌 수상해지고 점차 감투와 성격이 닮아간다.

제3장 자리를 지키는 위력

자리는 위력 행사를 위해 마련된 것은 아니고, 권력의 계층에 쫓아서 상하가 구별된 것은 아니다. 필요불가결의 원칙에 의해 마련된 자리요 계층이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 자리에 그 인물이 앉아 있는 것은 필요불가결할뿐더러 가장 질서가 잡힌 소이연(所以然)이다. 다만 이 자리가 때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는 것은 사람의 살갓이 때의 흐름에 따라 탈피하는 것처럼 자연스런 신진대사일 뿐이다.

사람의 살갓은 칼로 도려내기라도 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밀리지 않듯이 사람의 자리도 제멋대로 밀릴 수는 없다. 한편 때가 끼거나 강렬한 일사(日射)를 받고 한겨울 허물이 줄지에 벗겨지는 경우가 사람의 자리 바뀔 때도 물론 있다. 또 악균이 들어 화농(化膿)하여 수술을 요하는 경우도 있다. 정형수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모두 자연이 준 건강 상태는 아닌데, 생명을 보유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수가 많다. 그러나 이는 살갓 그것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백혈구와 대결하는 적혈구라든가 두뇌라는 지성이 작용하는 것 뿐이다. 위에서 굽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옆자리나 뒷자리를 탐내서 다투질하다가 마침내 중상과 모략에 소일(消日)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가장 빠르게 뒷자리로 옮길 수 있는 첩경은 그 맡은 자리를 지키는 일이다. 자리를 지킨다는 일은 자리에 고정하는 일은 아니다. 벽돌을 하나하나 튼튼히 그리고 쾌속히 쌓는 자만이 더 높이 담을 쌓을 수 있는 것과 똑같다. 자리를 잘 지키는 자는 멀지 않아 더 높은 자리를 지키게 될 것이다.

“가장 참고 견디는 자는 가장 많은 일을 한다.”(밀턴)

무서운 말이다.

“시기소이(視其所以), 관기소유(觀其所有), 참기소안(察其所安), 인언수재(人焉廋哉)”(논어(論語))

(사람의 행위에 그 하는 바를 보고 그 동기를 관찰하고 그 상태를 살필 때 그 사람의 본성은 드러나고 이해된다.) 여기 적당한 말인지 아닌지 모르나 얼른 생각나는대로 어쨌든 인용하고 싶은 말이다. 또 하나 「논어」에서 끌어대면

“덕불고(德不孤), 필유린(必有隣)”

(착한 행위에는 반드시 이해자가 있다)하는 가장 보편된 교훈이다.

혁명 과업 장기 건설에는 나는 “제자리를 지켜라”하는 구호가 어느 때이고 반드시 나오리라고 믿는다.

제4장 제자리와 남의 자리

제 자리에 충실하여 고수하는 것만도 기특한 일이라고 하겠으나 옆에 불똥이 떨어져도 제 자리만 지키는 것은 마차 끄는 말이나 다름없다.

어느 사람이 미국에 가서 야구 구경을 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한다.

미국의 야구장은 좌석이 꽤 길게 붙어서 땀땀이 복도가 있다. 아이스크림을 사 먹자니까 복도를 지나는 아이스크림 장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그러나 손을 번쩍 드니까 아이스크림 장수는 크림을 바로 제 앞의 사람에게 주고서 패스시켜 달라고 한다. 그 사람이 크림을 받아 다시 그 옆의 사람에게 주고, 그러니까 그 옆의 사람은 다시 그 옆의 사람에게……이리하여 아이스크림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여행을 해 도착되었다. 이번에는 아이스크림 값으로 돈이 또한 사람의 손에서 손으로 여행을 한다. 그것이 만약 거스름돈을 요할 때는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횡단여행을 할 것이었다.

그 사람들이 조금도 싫은 낯을 안 하고 입을 담은 채 넘겨주고 하는 것이 꼭 감명적이었다고 한다.

나도 몇 차례 미국인과 더불어 식사를 함께 한 일이 있는데 그들은 소금 그릇이 제 자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으면 팔을 뻗쳐 집어올려서 그렇게 안 하고 그 소금 그릇 앞에 앉은 사람에게 소금 그릇을 집어 달라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네와 아주 다른 점이다. 바로 일전에 나는 어느 국수집에 들어갔었는데 파그릇이 구석에 놓여 있었다. 그것을 차마 그 앞에 앉은 낯선 손에게 집어 달라 할 수 없고, 집자니 내 옆의 사람 음식 위로 팔을 뻗쳐야 하겠으므로 하는 수없이 심부름꾼에게 파를 달라 한 적이 있다. 예나 대면 미국인들이 조금도 거리낌 없이 소금이나 후춧가루 그릇을 집어 달라고 함이 얼마나 현실적이지요 우호적인가 느낀 일이 있는데 미국의 야구장에서 아이스크림과 돈이 횡단 여행을 한다는 것은 꽤 신기하게 들렸다.

그러나 눈을 돌이켜 야구하는 경기장을 보면 신기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야구란 원래 제 자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남의 실수를 커버해 주는 운동 경기이다. 가령 내야비구(內野飛球)를 걸렸을 때, 투수가 손을 번쩍 든다. 그것은 제가 잡겠다는 신호다. 그러나 그가 혹 실수할까봐 쇼터나 제 베이스를 밟고 투구를 기다리는가 하면 어느 틈에 우익수 아니면 포수가 일루수 뒤에 대서고 있다. 야구의 참맛은 타격전에 있으나 투수전에 그치고 마는 경우에도 아름답고 재미있는 까닭은 바로 이 협동 작전의 아름다움을 무시 못하는 때문이다.

제 자리를 지키면서 남의 자리를 뒷받침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고방식이고, 아름다운 인생의 플레이이다.

중장(終章) 감투여 안녕……

미국 얘기만 끌어내서 죄송하나 그곳의 대학에서는 신입생을 프레시맨이라고 골잘 부르는가 보다. 여기로 말하면 꽤 학대도 받고 기합도 받는 모양이다. 학대야 치고 빼앗는 것은 아니고 기숙사 같은 데서 하치 심부름도 잘 걸리고 이따금 상급생에게 아이스크림 페나 사 바쳐야 하는 모양인데 일부 대학에서는 프레시맨들의 표적이 나도록 일정기간 신입생만 쓰는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다. “나는 신입생이외다”표를 달고 다니는 셈이다.

이 사람들은 물론 1년만 있으면 이미 신입생들은 아니요 버젓한 상급생이 될 것이 약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고난을 치르는 것 뿐이다.

나는 그런 풍습이 좋다고는 느끼지 않지만 구태여 우리나라에서도 감투를 과시하고 싶으면 신입사원 미스터 리를 드러내는 어느 일정기간만 감투 착용을 허용하도록 함이 어떨까. 수치가 아니라 당당한 자량의 표시가 될 수도 있다.

<필자·소년한국일보 주간>

공짜론(論)

정비석(鄭飛石)



벌써 78년 전의 일이지만 그 무렵에 나는 혼자서 지방 여행을 다니다가 우연히 천안역에서 하룻밤을 자게 된 일이 있었다. 여관에서 저녁밥을 먹고 거리 구경을 나오니 객사에서 그다지 머지 않은 곳에 가설 극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극장에서는 야간상영을 앞두고 손님들을 모으느라고 옥상에서 트럼펫을 유창하게 불어대고 있었다. 나는 저물어가는 객지에서 유창한 트럼펫 소리를 듣는 순간, 아릇한 향수감이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극장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하여 극장 문전에 당도해보니 이날 밤의 상영물은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국산 영화였다. 나는 시간도 보내고 시골 관람객들의 관람 풍경도 살펴볼 겸 해서 서슴지 않고 관람권 한 장을 사 가지고 장내로 들어갔다.

장내에 들어서서 우선 놀란 것은 관람객이 초만원에 이룩 있다는 점이었다. 워낙 소규모의 가설 극장이어서 수용 인원이 2백여 명이 될까말까한 정도이기는 했지만 여하튼 수용 인원의 다소는 막론하고 그만큼 초만원을 이루었다면 흥행면으로 보아서는 대성공이라고 볼 수 밖에 없었다.

(음—지방 영화관의 흥행 성적이 이만하다면 국산 영화의 장래는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구나……) 나는 지방 인사들이 영화에 그만큼 관심이 깊어진 것을 크게 기뻐하며 좌석에 앉지도 못하고 선 채로 구경하였다. 영화의 내용이 그다지 신동하지 않아서 끝까지 서서 구경할 가치는 없어 보이기에 나는 절반쯤 구경하고 극장을 나오다가 문지기를 보고 축하의 뜻을 겸해서 이렇게 말을 걸었다.

‘오늘밤 흥행 성적이 대단하구려!’

그러자 문간에 섰던 사람은 쓰디쓴 표정으로 고개를 내저으며 다음과 같이 대구하는 것이었다.

‘뉘요… 사람이 많이 들었대구요. 구경꾼은 많아도 죄다 공짜뿐이고 정작 표를 사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20명도 채 못 됩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대경실색을 하였다. 유료 관람객은 20명도 채 못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죄다 공짜라고 하니 나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 연유를 자세히 물어보았더니 그는 매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는데 그의 설명을 들어보면 모두가 그럴듯하였다.

공짜 관람객들을 종류별로 따져보면 거의 전체가 극장 경영과 직접 간접으로 관계가 깊은 경찰관, 소방서원, 청년단원, 상이군인, 군청이나 읍사무소의 직원들로서 극장 경영주로서는 어느 면으로 보나 그들을 괘시할 수가 없으니 결국은 공짜로 들여보내주게 되는데 그것도 본인만 공짜로 들어가면 좋으련만 공짜 관람객 한 사람이 으레 가족과 친구들까지 열을 지어서 데리고 온다는 것이었다.

듣고 보니 그럴상 싶었다. 천안같이 작은 도시에 사는 사람으로서 상기 몇 개의 단체와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그리고 보면 2백여 명도 채 못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극장은 망하는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국산 영화의 발전이라는 것도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 어찌 천안읍에 한한 일이며, 그것이 어찌 영화 하나에만 한한 일이라. 사업가가 정부의 재물을 공짜로 먹으려는 데서 경제가 피폐하였고 공무원이 돈을 공짜로 먹는데서 국정이 부패하였고 개개인이 남의 호주머니 돈을 공짜로 낚아 내려는 데서 사회가 혼란해졌다. 그리고 보면 공짜를 좋아한다는 것은 분명히 망국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대체 이 세상에는 공짜라는 것이 있을 리가 없다. 상품을 제조하는 데는 생산비가 반드시 들 것이므로 그 상품을 입수하자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요, 영화를 구경하자면 관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상식이 아니고 무엇이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은 한사코 대가를 받아가면서 남의 것에는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것은 도둑놈의 심사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런 현상은 서울에도 상당하지만 서울보다는 부산이나 대구같은 이류도시가 더하고 이류도시보다는 삼류도시가 더하다. 그리하여 천안같은 소도시에 이르러서는 2백여 명 관람객에 유료 입장자가 20명도 채 못 된다는 희비극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공짜를 좋아하는 기풍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 수준이 낮은 데서 오는 강식약육(強食弱肉)의 원시적인 유풂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도대체 그러한 공짜 기풍이 성행하는 원인은 어디있는 것일까. 그 원인은 물질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뉘니 뉘니해도 첫째는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생활이 풍족해서 관람료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누가 구차스럽게 체통을 손상해가면서 공짜 구경을 하려고

덤비랴. 영화는 보고 싶은데 돈은 없으니까 볼까불 권력이나 직권을 등에 지고 공짜를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관람료쯤은 문제가 아닌 사람일수록 오히려 음악회나 영화 구경을 공짜로 하려고 애쓰는 기풍이 농후한데, 그것은 물질적이기보다는 기분과 심리적인 면에서 오는 현상으로서 그 심리아말로 관존민비(官尊民卑) 사상에서 오는 타기(唾棄)할 특권의식의 발로인 것이다. 나는 이러 이리한 사람인데 내 지방에서 흥행하는 음악회나 극장에 내가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심리—그것이야말로 특권의식의 단적인 발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참고삼아 그런 모임에 가서 실지 풍경을 한번 살펴보자. 공짜 관람객일수록 우대석에 큰 얼굴로 버티고 앉아 있는 광경을 목도하게 되는데 공짜 관람자가 상당한 유료 관람객보다도 크게 도사리고 앉아서 큰 기침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법칙에도 벗어나는 일이거나와 도의적으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현상은 선진 국가에서는 약에 쓰러 해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인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그 방면의 감독자라고 해서 혹은 그 지방의 유력자라고 해서 무슨 일이나 공짜로 통해도 무방하다고 한다면 체신직원(遞信職員)은 우편물을 공짜로 내는 것이 당연하고 세무관리는 세금 일체를 납부하지 않아도 좋다는 이론이 성립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라가 결단이고 말 것이 아니던가. 그런 의미에서 나는 철도국원이 공무집행 이외의 사사(私事) 여행에도 무임승차가 허용되는 것을 반대하는 자의 한 사람이다.

공짜 기풍이 성행한다면 그 결과가 사회 발전에 미치는 악영향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만큼 크다고 하겠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공짜 기풍은 참재적인 특권의식의 발로이기도 한만큼 공짜가 성행하면 그만큼 반민주적인 기풍이 조장된다. 그리고 바늘도둑이 결국에는 소도둑 된다는 속담 격으로 영화 구경이나 연극 구경을 공짜로 한다는 의식은 거기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 심리가 바로 뇌물을 바라는 심리와 연결되어서 사회 문란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것만이 아니다. 무엇에나 공짜가 많아지면 그 방면의 산업은 그만큼 경제적 타격을 받아서 위축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유료 관람자 없는 영화제작이 어떻게 운영되며 책이 공짜로만 빼앗긴다면 출판업자가 어떻게 사업을 계속하며 물품을 그냥 가져간다면 산업 공장을 무슨 힘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겠는가.

그나 그뿐이라. 공짜를 바란다는 것은 환언하면 불로소득을 바라는 심리인만큼 그것은 필연적으로 근로정신을 약화시켜서 사회 전체를 후퇴하게 하는 두려워할 만한 현상을 초래하게 되기까지 한다.

이상 말한 바와 같이 관람권 일매를 공짜로 얻으려는 심리는 그것이 지극히 적은 일 같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권력을 남용하여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국가를 망치는 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에는 정당한 보수를 치르고 떳떳하게 얻는 새로운 기풍을 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기풍이야말로 참된 민주 사회 건설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강력히 주장하려 한다.

<필자·작가>

강패론(論)

성백의(成百義)



한글 큰사전을 보면 ‘강패란 불량배의 속된 말’이라고 쓰여 있다. 불량배란 불량한 무리의 집단을 말하고 반사회적이며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합리적 단체를 의미하고 있다.

해방 후 억눌렸던 일정(日政)의 속박에서 벗어난 우리 사회에는 조수처럼 밀려온 자유와 민주주의의 부산물로 강패라는 불량배가 생겼으며 그 수는 날로 증가하여 5·16 직전까지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강패라는 말을 언제부터 누가 먼저 쓰게 되었는지 그 어원이나 어의는 찾아내기 어려운 일이나 해방 후 ‘가다’어깨‘강패’‘맘모스족’이라는 순서로 변화되어 왔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겠다.

해방 직후 학생들이 어깨에다 대나무 솜뭉치 등을 넣어 될 수 있는대로 어깨를 넓게 보이려고 애쓴 소위 ‘뺑가다’의 풍조가 있었는데 그때는 주로 ‘가다’라는 말로 표현되었으며 직접적인 폭력 행사보다 위협으로서 상대방을 억누르려는 시도가 컸었다. 그때 있었던 우화가 생각난다. 전차 안에서 어느 여학생이 유난히 넓은 어깨를 가진 남학생을 발견하고 호기심이 나서 그 남학생을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남학생은 여학생이 쳐다보는 시선에 호뭇함을 느끼고 여학생이 전차에서 내리자 쫓아서 내려 따라가게 되었다. 여학생도 따라오는 것이 싫지 않았던지 같이 걷게 되었는데 좁은 길로 들어가서 어깨가 서로 맞부딪치게 되었다. 그 바람에 남학생의 어깨에 끼어 있었던 대나무가 틀어져서 한쪽 어깨가 갑자기 비뚤어지더니 소매 사이로 나무가 빠져 나오게 되자 남학생은 얼굴을 붉히면서 도망하였던 것이다. 그때 여학생은 강통이었구나 하고 한 마디 하고 집으로 가서 한바탕 웃었다고 하였다.

‘가다’라는 말은 일본어로 ‘어깨’를

뜻하고 있는 말이다. 우화 중에 여학생이 '깡통'이란 말은 속이 빈 것을 말한 것인데 공부하는 안 하고 놀기만 하는 학생의 머릿 속을 표현한 것이다. 사람에 따라 '깡패'라는 말의 어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려고 하나 그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깡'이라는 것은 무법적인 서부식 깡 영화에서 영향을 받은 무지하고 광적인 젊음의 모방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뜻함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보며 '패'란 말은 무리의 속된 뜻으로서 서부식인 '깡'에서의 '깡'과 한국적인 '패'가 복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는 우리 사회의 특색 있는 반사회적 암으로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사회 문제이다. 깡패라고 하면 그 대상을 주로 젊은 사람으로 한다. 그 역사적 발전 과정이나 분류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더 연구하여야겠지만 이 깡패 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 문제이다. 영미(英美)에 있어서는 '비트닉' 독일에는 '가죽잠바' 일본에는 '태양족'이라는 청소년들의 집단이 있어 성인들의 골치를 앓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4·19 이후 깡패에서 진화한 일부의 청소년들이 '맘모스족'이라는 이름으로 비트닉을 흉내 내고 있다. 비트닉의 특색은 그룹의 신조를 만들어 규율을 세우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 폭력을 금지한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하는 등등의 전통 있는 명예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맘모스족은 무분별하고 광포적인 행동으로 원시적으로 돌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시 시대의 동물의 이름을 쓰고 있다. 그들은 극히 반사회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영웅심을 자극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우습게 여기고 있따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5·16전의 깡패의 연령 분포는 10대부터 40대까지로 되어 있어 소위 2세·3세·4세·5세까지의 비조직의 조직으로서 번창하고 있었다. 깡패 사회의 조직은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보스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적으로 구분되어 '파'와 '단'으로 대립되어 있다. 5세는 주로 10대 청소년들로서 퇴학을 위시하여 학교에서의 버림받고 가정에서의 불만을 채우려고 거리에 모여 선량한 학생들을 상대로 폭행과 금품을 탈취하고 선배(형들—사회에서의 최고의 존칭은 형님이다)들의 심부름을 하며 빵집이나 음악감상실 등에서 노는 집단이다. 4세는 20대 청년들로서 고교는 졸업하였으나 가정 환경으로 또는 대학 응시에 불합격이 되고 희망한 진학이나 취직도 못하여 무직자로서 할 일이 없고 보니 거리에 나다니다가 깡패 사회에 흡수되어 선배들에게 인정받고 싸움이 있을 때 선봉에 서며 습격 등을 하여 스킬과 불안 속에서 지내는 집단인데 10대 청년들이 계속 진급하는 경우도 많다. 3세·2세는 성인으로서 깡패 생활을 생계를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삼고 입찰을 할 때라던가 정치인들의 사주를 받아 직업적 활동을 하며 밀수입 암거래(暗去來) 등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폭력은 되도록 후배들에게 맡기는 것이 물색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1세는 총지도자적인 위치에서 정치적 지위도 가졌고 정치인들과의 결탁으로 이권 운동 부정 선거 등의 지휘를 하여 왔기 때문에 깡패 정치라는 말도 쓰여졌던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로 화(化)한 깡패는 왜 되는 것이며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의 의문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인간으로 경멸하고 멸시하기 전에 가져야 할 것이다.

그들도 그들의 행동이나 생활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항상 불안과 갈등으로 그 사회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회는 너무도 차고 그들을 천대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따뜻하게 이해해 주고 선도하여야 할 것이다.

깡패가 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다. 첫째 그들은 따뜻하고 원만한 가정에서 자라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관계 계모 계부 형제 간의 시기 경제적인 불안과 정서적 갈등에서 견디어 내지 못하고 가정에서 뛰어 나오며 학교에서의 물이해적인 선생과의 대립과 전쟁과 재해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청소년들을 깡패라는 낙오자로 만드는 것이다. 둘째로는 이렇게 된 그들을 사회에서는 오히려 천대하고 멸시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불행을 더욱 악화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버림을 받아 자기들끼리의 사회를 이루고 반사회적 수단으로 살아가고 마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인생 행로에 있어서의 사춘기적 특성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순된 생활에 적응을 못한 것이다.

이군(李君)은 현재 시내에서 시발택시운전수로 고된 생활을 하며 노모와 동생을 돌보아 주며 새로운 생활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내가 우연히 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영등포로 향하고 있었을 때 그는 나에게 무척 친절할 태도로 대하여 주었으며 요금도 절반 밖에 받지 않고 성실하게 해주었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그를 명칭히 바라만 보고 있었더니 “그는 선생님 다음에도 제 차를 이용해주세요”라고 한마디 말을 남긴 채 가버렸다. 그 일이 있은 후 시내에서 가끔 그를 만나 차를 타곤 하였었다. 그 후 얼마 지나서였다. 내가 충무로 모 다방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쑥하게 차린 청년이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나에게로 다가왔다. 처음에 나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그는 불쑥 자리에 앉으며 선생님 시발택시운전수 이○○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때서야 나는 그가 친절히 나를 대해 준 택시 운전수 이군임을 알아내었다. 뜻밖에 이군을 만나 반가운 마음 그지없었다. 나는 이군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가 과거에 깡패의 두목 '짱구'라는 사실과 그가 깡패 생활을 하게 된 과정을 말하여 주었다. 이군은 당년 28세의 청년으로 그의 고향은 서울이다. 부친은 이군이 초등학교 2년 때부터 첩을 얻어 별거하였으며 모친을 돌보아 주지 않았고 가끔 학비를 타러가는 이군을 구박하고 때리기까지 하여 돌려 보냈었다. 이군은 하는 수 없이 그때

부터 신문을 돌리며 고학을 하여 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그 후 진학하고 싶은 의욕은 컸었으나 모친은 병으로 누워있고 어린 동생도 돌보아야 할 이군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말았다. 이때부터 이군은 자포자기하여 집에서 나와 거리로 다니면서 불량 소년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시내 도심지에서 깡패가 되어 폭력과 비행으로 살아 오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5년 전 폭행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2년간 형무소에서 보내게 되었다. 이군이 형기를 마치고 나왔을 때 자기의 동료들마저 이군을 냉대하게 되자 이군은 더욱 큰 반항의식을 갖게 되어 닥치는대로 싸움과 광적인 깡패 행위로 주위 사람들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밤 우연히 미망인인 오여사(吳女史)를 알게 되어 오여사로부터 따뜻한 모성애를 느끼게 되자 이군은 오여사의 지도를 받게 되었다. 오여사는 자녀도 없는 독신으로 상업을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아들이 6·25 당시 전사한 후 항상 그 아들을 생각하고 아들의 친구들을 만나면 아들과 같이 대하여 주었으며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깡패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오여사의 따뜻한 동정과 이해성 있는 지도가 광포한 이군의 마음을 움직여 어린 양같이 순진하게 만들었고 작년부터 자동차 운전을 배우게 하여 지금과 같이 택시 운전수로 만든 것이라고 이군은 감개무량하게 말하였다. 이군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이군의 모습에서 지난날의 불행했던 과거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만치 선량한 청년임을 발견하였다.

이와같이 이군의 경우는 특례적인 것으로서 불량배의 선도의 가능성을 증명하여 준 것이다.

인간의 행동에는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다 그 행동에 원인이 있으며 동기가 있다. 그러므로 깡패들의 사회적 적응을 시도하기 위한 선도책을 조화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우리 사회는 이들 반사회적 암인 깡패들을 천대와 멸시를 하기 전에 그들을 먼저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적응시켜 건전한 인간으로서 사회에 받아드리려는 국가 전체적 시도가 하루 속히 준비되어야 하며 영보적인 상상으로 처벌하거나 억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일종의 정신적으로 건강치 못한 사람으로 마음의 병을 가진 환자로 친절하고 동정적이며 과학적이고 개별적인 보호 정책으로서 치료하지 않으면 결코 선도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깡패도 우리와 같이 같은 동족이며 대한의 아들 딸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필자·고려대학교 심리학 교수>

백론(論)

이녕조(李寧照)



우리나라 사람치고 '백'이라는 낱말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말 사전을 아무리 뒤져도 이런 말은 없다. 해방 후에 생겨 동안 이후에 유행을 본 외래어 '슬랭'이기 때문이다.

외래어 중에는 워낙 엉뚱한 것이 많다. 본래의 뜻이 와전된 것,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 지어진 것이 그 대부분인 것이다.

P·R이란 말이 있다. 상업의 선전이나 광고의 대명사로 불리어지는 외래어이다. 그러나 피·알의 본뜻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과 기업 간의 상호 연락을 두고 한 말이다.

이것은 뜻이 와전된 외래어의 일례지만 '백'이란 말은 순전히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말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의 외래어는 아니다. 외래품 판금법(販禁法)이 시행된 후 외국 상품은 일체 매매를 못하게 되었으나 원료는 외산이라도 우리나라에서 가공한 상품은 하등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메이드인·코리아의 이치에 들어맞는 까닭이다. 이런 방식으로 따진다면 '백'이란 말도 외국산 원료로 만든 국산 말이라 할 수 있다.

'백'이란 영어 어 백(Back)에서 따온 말이다. 그러나 이 '백'과 '백'의 뜻은 전혀 다르다. 명사의 경우 '백'은 등, 뒤, 후부, 영(嶺) 등의 뜻을 지니나 '백'은 자기를 보호 내지 협조해 주는 어떤 힘을 말한다.

무척 편리하고 고마운 이 힘은 때로는 광물성(鑛物性)의 힘인 경우가 많다. 사람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힘, 이것이 '백'의 관념이다. 아마 배후에서 보살펴 주는 권력이란 뜻으로 '백'이라고 불리어 전해졌을 것이다.

인간은 원래 기대고 싶어하는 동물이다. 자기 자신보다 강한 것, 큰 것, 많은 것을 보면 무조건 경외감을 느낀다. 그리고는 곧 의뢰하는 본능이 고개 들고 일어난다. 독립에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수속 절차가 수반되고 수많은 세비(稅費)가 부과되지만 의탁 및 예측에는 까다로운 절차도 없고 세비의 부과도 없다. 다만 자기 자신을 담보로 걸어두는 것 외에는—아담과 이브의 아들 카인은 질투에 사로잡혀 동생 아벨을 죽였다. 아벨의 피로 젖은 땅을 떠나며 카인은 신에게 하소연한다.

“저를 보면 사람들은 죽이려고 덤빌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그 일곱 갑절이나 복수를 받을 것이라 예언하며 카인 지킴이를 언약한다. 즉 신은 카인의 '백'이 되길

자진한 것이다. (구약성경(舊約聖經) 창세기(創世記) 4.16)

카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죄로 마땅히 사형에 처해져야만 했을 텐데 창세의 법 해석은 그 기준이 달랐던지 어쨌든 카인은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

이같이 태초에 ‘뺨’이 있었으니 타락하고 슬픈 카인의 후예에겐 더할 나위 없다. 에덴의 동쪽을 떠난 카인은 늦 땅으로 가서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에 적혀있는 늦이란 바로 한국의 서울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가리만치 우리나라 사람은 한때 ‘뺨’에만 매달려 살았다. 자유당 전성 시절의 일이다. 모든 행정은 ‘뺨’에 시종했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고 일컬어진 부패 일로의 세상에서 크고 작은 굶고 가는 가지가지 형태의 ‘뺨’이 횡행하였다.

이 시절의 ‘뺨’을 통틀어 ‘뺨·미러식 뺨’이라고 부른다. ‘뺨·미러’란 자동차 운전대 앞에 달린 거울이다. 사람이 정면으로 얼굴을 비쳐보기 위해 있는 거울이 아니라 뒤에 오는 차들을 비쳐보고 살펴보는 거울인 것이다. 즉 자유당 시절엔 그 뒤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 뺨의 문제점이었다. 어떤 직장에 있어서도 소위 거물급의 줄로 들어온 사람과 중견급의 추천으로 취직이 된 사람과는 스스로 대우가 달랐다. 뺨·미러로 뺨을 비쳐 본 결과에 의한 것이다.

학식들의 피를 제물로 하여 이루어진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이 ‘뺨’은 그대로 목숨을 유지했다. 다만 내용이 바뀌었을 뿐이다. 이 ‘뺨’을 명명하여 ‘뺨식 뺨’이라 한다. ‘핸드뺨식 뺨’이라는 뜻이다. 다시 설명하면 핸드뺨 즉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 ‘뺨’의 초점이 되었던 것이다. 자유당 때의 구약의 주인공 부정 축재의 원흉도 핸드뺨의 사정에 따라 적당히 처리되었다. 직장의 티·오 핸드뺨 속에서 극장표 꺼내듯 꺼내어졌다.

이 참으로 오랜 암흑 시대를 거쳐 국민들은 지칠대로 지쳤다. ‘뺨’을 지니지 못했던 사람은 못했던 사람 대로 ‘뺨’을 지닌 사람은 또 지닌 사람대로 지쳐버리고 말았다.

이 중에서도 가장 비참했던 사람은 ‘뺨’을 간절히 구하고 다녔으나 결국 얻지 못하였던 사람이다. 어떠한 일의 성사를 위하여 신발이 닳도록 ‘뺨’을 찾아 순례 행각을 거듭하였으나 끝내 성사를 못 본 군상(群像) 그리고 ‘뺨’을 간절히 원하였으나 손이 영 닿지를 아니하여 단념하는 체하고 있던 인물상. 이들은 세상이 다시금 개조되자 자기 자신이야말로 가장 결백무후한 인생이었음을 주장하며 적지 아니 나섰다.

이 우후죽순은 엉뚱한 신화를 믿고 있다. 못내 갈구하다 못 얻은 ‘뺨’에의 희원(希願)이다. 인간으로선 가장 매력 없고 불품도 없는 그들이 사회에 있어서는 가장 위험 인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제방에 스며드는 한방울의 물에도 비길 수 있다. 한 방울이 두 방울이 되고 두 방울이 한 줄기가 되어 끝내 제방을 가르기도 하는 까닭이다.

우리들은 이른 새벽에 우리들의 골목을 말끔히 쓸어 내었다. 문전에 쌓였던 쓰레기, 앞마당에 널려 있던 종이 조각, 새끼 부스러기 그리고 담장에 썩어져 있던 지저분한 낙서들을 모조리 쓸어내고 닦아내었다. ‘뺨’도 이 중 쓰레기의 한 가지다. 이제 비질한 정갈한 골목 어귀에서 우리들은 이 쓰레기를 불에 깨끗이 사워야만 한다. 그러나 홀로 결백을 주장하는 우후죽순족은 아니라도 ‘뺨’으로 생을 부지한 카인의 후예에게 ‘뺨’을 향한 동경은 저버릴 수 없는 유전질(遺傳質)이기도 하다.

우생학적으로 봐서 이 유전질을 개량 육성하는 데는 단 한 가지의 방도가 있다. 인간이 지닌 내면의 꽃과 그 자웅을 맺게 하는 일이다.

백(Back)이라는 낱말에는 등이나 후부 등의 뜻 말고도 이면이라는 어의도 포함되어 있다. 이면이란 말이 주는 개념은 다분히 3차원적이다. 스스로 부피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어떤 부피 속에 간직되는 이 1면은 인간의 경우 정신 생활을 의미한다.

우리들 생활의 골목에서 일체의 구악을 일소하고 사워 버린 후 그래도 살아남은 ‘뺨’의 웨닉스(불사조)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면적인 것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명명하여 ‘실력식 뺨’이라고나 할는지.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할 반석 같은 ‘뺨’은 우리 스스로가 지니고 있고 또한 지니고 있어야 할 우리 자신의 실력 그것이다.

그러나 무진한 신의 조화에는 지극히 유머러스하고 선의에 넘친 점도 없지 않다. 세상에는 아직도 더운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어서 가끔 주름살이 퍼지도록 반갑고 호뜻하고 꿈 같은 ‘뺨’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는 까닭이다.

미국의 여류작가 지인·웹스터는 키다리 아빠(Daddy Long Legs)라는 소설에서 이 꿈과 같은 ‘뺨’의 기적을 멋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주인공인 소녀 지루우샤는 고아원에서 자라났으나 찌 글재주가 있다 하여 어떤 독지가(篤志家)의 원조로 도시의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그 독지가의 이름도 모르는 대로 화려한 대학의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 지루우샤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다. 얼굴도 모르는 그 독지가를 지루우샤는 ‘키다리 아빠’라고 부르며 편지를 쓰곤 하는데 이 작품은 이 지루우샤의 편지로 엮어진 소설이다. 어느날 부잣집 딸인 친구 아저씨가 학교로 찾아온다. 그 청년 신사를 알게 된 후로 교제가 계속된다. 3년이 지나 지루우샤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자 돈이 많은 그 청년 신사에게서 구혼 받는다. 청년 신사를 사랑하게 된 지루우샤는 학비출자자의 양해를 얻고자 처음으로 독지가를 만나러 간다. 만나고 보니 친절한 ‘키다리 아빠’는 바로 그 청년 신사였다.

대강 이러한 스토리의 소설이다. ‘뺨’치고 이렇게 멋있고 기분 좋고 신나는 ‘뺨’은 없다. 그리고 그 ‘뺨’을 이렇게 날씬하게 흡수해 버린 본보기도 드물다. 역시 경우에 있어서도 ‘뺨’은 후부나 배후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어떤 내지 내면으로 옮기는편이 적역(適譯)인 듯하다. <필자·아동 문학가>



새해

새해가 밝아질 때마다 무대의 막이 오르고 내리는 연극처럼……

그 많은 번덕스런 즐거이, 그 가운데 몇 개의 찌이 머리에 떠오른다.

아직도 미완성에 남아있는 내 회화처럼 새해도 아랑곳없이 컴퍼스 위에 흐트러져 있다.

지난해 시작된 일은 아니지만 슬픈 인상파처럼 영원히 계속되는 잊을 수 없는 사람도 새해를 맞이한다.

막이 내리고 또다시 새해의 막이 올라도 영원성은 계속된다. 이 영원 속에서 살고 싶다.

한 발자국이라도 헛디더 보라. 영원 속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고 말 것이다.

글·그림
백영수(白榮洙)

송년 좌담회

일시 12월 8일 오후 2시
장소 공본정훈감실(空本政訓監室)

참석자

조상진(趙相振) 대위 (31전대)
강신표(姜信杓) 중위 (공군대학)
이근성(李根成) 중사 (인사국)
오정식(吳正植) 하사 (행정감실)
황기연(黃基淵) 문관 (행정감실)
김순옥(金順玉) 문관 (712통신대대)

사회(司會) 민재익(閔載翼) 대위

(기록 · 유기영)

사회 해마다 이맘때면 느끼는 일이지만 특히 올해는 여러 가지로 의의가 깊었던 해인 만큼 이해가 가기 전에 무언가 한마디 남기고 싶습니다. 지난 일을 돌아보고 오는 해를 꿈꾸어보고—어디 조 대위님부터 한마디 해주실까요.

조대위 글쎄요, 하고픈 말이 너무 많기도 하구—하지만 뭣부터 말해야 될지?

사회 주제를 설정하지 않는 좌담회인 만큼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생각이 나는 대로…….

조대위 화제의 실마리는 사회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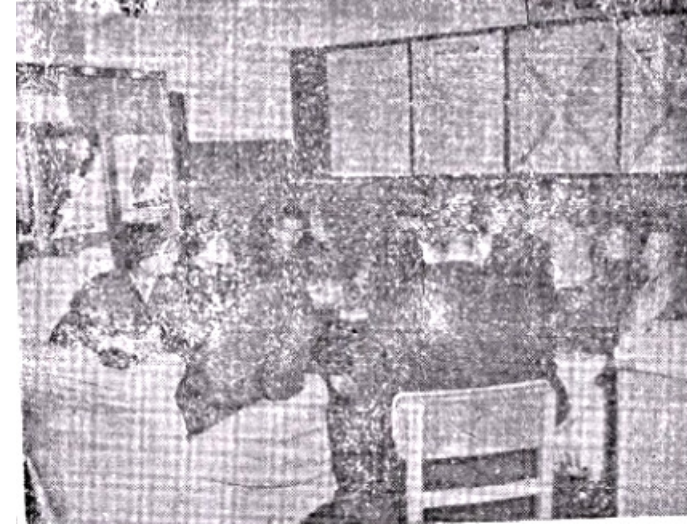
큰 발자국을 남긴 우공(牛公)

사회 올해는 우공이 우리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기고 갔다 하겠죠.

조대위 그 소가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이제 그 바톤을 호공(號公)에게 넘기려 하는데 나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의욕에 비해 진전이 적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걸음처럼 느트면서도 착실하지도 못하고요. 막상 신축년을 보내자니 나는 과연 이 한 해 동안에 한 일이 무엇이나? 이런 생각이 앞서는군요.

사회 누구나 가지기 쉬운 생각이랄까?

조대위 서른 살에 이립(而立)이라는 말이 있으나 서른 살을 넘어서도 ‘립(立)’에 들지 못했으니 내년에는 꼭 ‘립’에 들어야겠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특히 인상적인 것은



좌석

사회 민 대위

- (1) 조 대위 (2) 이 중사 (3) 김 문관
(4) 강 중위 (5) 황 문관 (6) 오 하사



지난 10월 행사 때 맘을 흘렸다는 겁니다. 물론 강변에서 구경한 일반 국민들이 많은 박수갈채를 보내주시었지만 우리들은 공군의 발전상을 유감없이 과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훈련을 했습니다.

사회 특히 올해는 우리 군인이 혁명의 주체였던 만큼 10월 행사도 다른 때 보다 더 큰 의의를 가졌던 것이고 또 그만큼 수고도 컸었습니다.

조대위 하지만 10월 행사 때 100%로 위로를 해준 여인이 있어서 나 개인으로서는 신축년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죠. (웃음소리)

사회 심히 부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웃음소리)

어디 이 중사도 한 마디 없을 수 없겠는데?

이중사 저는 중사로 진급된 해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무척 바빴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 지난 일이고 닥치는 일이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황문관 개인적인 주변에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혁명이 가져온 영향력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면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생활 여러 부문에 비약이 많았음은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올해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혁명 전까지 유행했던 비법적이고 불합리한 사회생활이 청산되어 각종의 부정이 꼬리를 감춘 것도 반가운 일이었지만 부인들이 누구든 무슨 무슨 재간을 부려서 돈벌이를 잘 하는데—하고 당치 않은 바가지를 굶던 버릇도 고쳐진 것이 한결 축하할 일입니다.

강중위 타율적인 힘을 입기는 했으나 국민의 자발적인 실천으로 구악이 씻겨져 가는 것이 크게 인상적입니다.

조대위 혁명 후 학생들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 것이 좋았지요. 4·19 후 학생들이 조금 지나치게 경솔했어요. 내면적인 인간 도야보다 외면적으로 흘렸거든요.



새로운 사회(社會) 질서(秩序)에 내면적(內面的) 자세(姿勢)도 따라야

사회 강 중위님은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 결혼한 사람과는 생각도 좀 다르겠는데? 꼭 압전도 하시고…….
(웃음소리)

강중위 먼저 안정된 생활의 질서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해온 일, 해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이런 단계로서 이제부터는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은 급격한 사회적 변동과 나 자신의 내면적 생활 질서가 아직 완전 융합됐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의 내면 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경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기는 하지만 우선은 스스로가 만든 질서라기보다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율이 강했기 때문이겠죠.

황문관 정말 이 내면적 생활 자세의 변화야말로 우리의 과업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져야 하나까요.

사회 혁명적 외부 질서에 정신 혁명이 미처 뒤따르지 못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 미스·김 여성들에게 이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를테면 화장품 같은 외산(外産)은 금지되었지만 생각은 아직 외산 고급품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

김문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독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수상해요. (웃음소리)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회 당연한 생각이며 가뜰한 생각—(웃음소리)

김문관 새 생활에 부응하는 질서가 아직 만족스럽다고 생각해요. 남의 요구나 남의 눈치에 구애하지 말고 자발적인 실천성이 요청돼요. 그리고 서로 협력해야겠어요.

이중사 화제가 자꾸 5·16으로 초점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전 제 자신에 초점을 두어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줄곧 정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싸워왔고 앞으로도 그래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이 같은 생각이 피동적으로 흐르기 쉬운데 좀 더 패기와 용기가 발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 혁명이란 아무래도 강제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회 변혁에는 능동적인 사람과 피동적인 사람의 대응 태도가 다르다고 보아야겠죠. 외관상으로는 변혁된 것으로 보이면서 내면적으로는 아직 구태의연한 것이 있다면 정신 혁명이 사회적 혁명을 못 따르고 있다는 증거라 하겠죠. 가령 교통질서 같은 것은 외관상으로는 신 질서가 선 것 같으면서 감시가 해이되면 곧 옛날의 타성으로 돌아가려는 경향 따위에서 볼 수 있잖을까요.

일기(日記)

최요안(崔要安)



근자 5, 6년간의 일기장 가즈런히 나의 서가 한모퉁이에 꽂혀어 있다. 모조지에 양장한 두툼하고 불상좋은 일기장들인데 펴보면 빈 칸이 태반이고 일기가 적혀 있는 날은 며칠되지 않는다. 해가 바뀔 때마다 일기를 쓰리라고 마음을 먹고서 일기장을 사거나 얻거나 하건만 노상 그 꼴이었다.

하루는 목은 원고 중에서 무엇인가 참고할 것이 있어 따로 싸서 선반 위에 올려 두었던 한 이름 되는 원고 붓다리를 꺼냈다. 세뎡가루 모양 보오양게 얇은 먼지를 털고 이것저것 뒤적거리자니 피난 2년 동안의 목은 일기 몽치가 튀어나왔다.

그때는 제대로 일기장도 없었던지라 원고지며 시험지며 닳치는 대로 써 놓은 것들인데 상당한 부피였다. 시험지의 것은 글씨가 총총 잇닿아져서 모두 원고지로 환산한다면 5,6백 매는 실히 되어 보였다. 부산 시대에 비교적 일기를 계속해 쓴 기억은 있으나 그렇게 많은 분량이 될 줄은 나도 놀랐다. 그때는 내 나이가 서른 다섯이었던건만 아직 결혼 전이었고 피난 중의 고생과 무료감이 것처럼 일기의 붓을 들게 하였든 양 싶다.

나는 찾던 원고는 제쳐 놓고 20년 전 일기를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낮익은 나의 필적과 더불어 그 속에 적힌 하루의 사고와 지낸 일들이 잣더미 속에서 하나 하나 내 마음속에 소생하는 것을 느꼈다.

“옳아. 이런 일도 있었지. 내가 이때 이런 생각을 다 했었구나..”

나는 입가에 품기는 웃음을 짓씹으며 시간 가는 줄을 잊고 눈이 팔리어었다.

그런데 일기의 2분의1 가량은 그 당시 내 손으로 쓴 것이건만 몹시 생소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일이 있었던가 하고 기억이 살아나지가 않았다.

만약 그 일기가 없었다면 나는 그 사실을 알 길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내가 경험하고 살아온 기록들이었다.

그날그날 머리를 스친 감상

강중위 국민들과 혁명 지도자들의 눈에 다같이 비추어진 이것이 부패다 저것이 부패다 이런 것 없어야겠다는 등의 강한 신념과 용기가 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되요. 우리가 그와 같은 신념과 용기를 가진다면 내면적인 태세와 외면적이 요청의 거리를 단축시킬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디나 아쉬운 가능성 발견(發見)에의 노력(努力)

사회 좀 더 우리 주변에 가까운 구체적인 것으로—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생활 합리화도 꾀하여 본다던가 어떤 독서의 방향을 세워 본다던가 또는 저축을…….

이중사 젊은 사람이니 결혼 문제도 있었고—하지만 법학을 해서 사회의 질서를 더욱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 싶어요.

사회 오(吳) 하사는?

오하사 농촌 개발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지역 사회 개발 사업에 종사하는 23세 나는 여자가 하는 일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보람 있는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사회 그 사람이 여자니까 그런 생각이 든 것 아닐까? (웃음소리)

오하사 아닙니다. 우리가 꼭 해야겠다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강중위 상당히 건설적인 의견들입니다. 혁명과업은 국민 개개인의 마음의 무장과 실천적 협력 없이는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우리 국민이 일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건설적인 의견보다는 어떠한 건설적 의견이 나왔을 때 이에 대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은가 하면 또 된다 안 된다에 대한 방향이 뚜렷해질 않아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노력을 가질 줄 알아야겠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이 일반적으로 적극성을 띤 생활 체험이 적은 탓이 아닌가 해요. 이제 오 하사가 얘기한 농촌 개발은 좋은 생각이나 방법이 뚜렷치 않아서—

사회 40년의 식민지적 생활 양식과 그것이 가져온 사고 방식에 기인된 것이 아닐까요? ‘적극적 생활 체험’이 피치자적 정치 경제 문화 등 환경 속에서는 바라기가 곤란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8백 년의 학대 속에서 정신적인 조약대가 생겨났지만 한국은 30년 동안에 조약대가 마련되지 못했다 할까?

강중위 8백 년이란 학대 속에서 자랄 것이 자랄 수도 있었겠으나 우리나라의 30년은 세계사적 단계로 보아 중요한 시기였다고 하겠죠. 쭉쭉 뻗을 수 있는 시기를 완전히 말할 당했고 시기적으로 보아 오늘의 세대를 담당해야 할 세대가 말할 당했다가

이나 어떤 사상 같은 거라면 일일이 기억에 남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있었던 일들이 즉, 누구하고 술을 마시고 또는 누구를 만났다는 이런 사실들이 도무지 머리에 되살아 나지가 않았다. 이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것이 있다.

1951년 8월 13일(월)

15일 방송할 통화 원고를 오늘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으나 도무지 상이 떠오르지 않는다. 더위에 머리가 짙잠겨 있다. 아무리 애써 보아도 더위를 이겨낼 도리가 없다. 할 수 없이 밤에 쓰기로 하고 영도로 해수욕을 가다. 방파제의 돌출대가 햇빛에 달아서 엉덩이를 댈 수 없게 따갑다.

마음을 잡아 끄는 젊은 여성이 한 사람 내 앞에 나타났다. 몸차림이나 표정과 말이 다 맘에 든다. 80퍼센트 마음에 든다. 이만큼 마음에 안기는 여성은 부산에 와서 그 허구 많게 만난 여성들 중에서 처음이다. 그러나 수 시간 후에 안 사실인데, 그에게는 K라는 이미 가까운 사람이 있었다. K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처자가 있는 몸이지만 그 여자와 보통 이상으로 친밀했다. 그들의 사이가 정상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나 K의 존재는 나로 하여금 희망을 포기하게 했다.

그런 틈바귀에 부비고 들 생각은 나지 않았다. 단념해 놓고도 그 여성의 얼굴이 자꾸 눈에 서린다. 파도같이 고독감이 가슴을 찢어내린다.

나는 암만 생각해도 80퍼센트 맘에 든다는 그 여성의 얼굴이 생각나지 않았고 잘 안다는 K도 누군지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부산에서 만난 여성 중에 제일 좋게 보인 여자인 얼굴이라면 응당 추억이란 주머니 속에 한 자리를 차지했을 상 싶은데 어렴풋이도 생각이 안 났다.

이것을 보면 기억이란 것은 반드시 강하게 감정에 애필한건만 남는다고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세 살 적에 네 살 위인 작은 누님과 함께 우리 집 마당에 있던 오동나무 열매를 장대로 따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 반면에 노총각이 80퍼센트 반한 묘원의 여인은 기억에 남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당시 나의 직장 주변과 다소라도 교제 관계가 있었던 여성들을 하나하나 더듬어 보았는데 55프로 밖에 접수를 매길 수 없는 얼굴까지도 생각나지만 그 80프로는 오리무중에 잠긴 채 도무지 묘연하다.

이걸 볼 때, 우리의 기억이란 액센트만 모아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간혹 중요한 것도 많이 빠뜨리고 있는 상 싶다.

또 하나 예를 들면,

10월 1일 맑음

사무실에 붙어 있기도 진력이 나서 거리로 나오다. 갈 곳은 다방뿐, 이 다방에서 한 시간, 저 다방에서 두 시간……; 어두컴컴해서 다방은 나왔으나 또 갈 곳이 없다. 천막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고, 어디론지 가고만 싶다. 뜬구름같이 마음이

세계(世界) 신문(新聞) 이야기④ <동독편(東獨篇)> (노이에스·도이취란트를 중심으로)

김기점(金基漸)



우리가 공산이나 사회주의 국가의 신문이라고 하면 멀리서 찾아보기보다는 우선 북한 괴뢰의 노동신문을 들 수 있으며 연상하게 된다.

그리고 소련의 「프라우다」지(紙)나 「이즈베스치아」지(紙) 또는 중공의 「인민일보」 등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읽거나 본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은 공산당의 기관지로써 일방적인 허위선전이나 선동조의 기사로 메꾸어 있다거나 살벌한 지면으로 편집되어 있다는 것과 관계인 것이며 인간사회의 적나라한 사실적인 기사라든가 풍부한 인간미나 이미지를 살려서 사회의 다각면을 다루고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임을 얼핏 찾아볼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자유 민주 사회 제도하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치고 소련과 중공을 위시한 사회주의 국가나 사회에서 발견되는 신문에 대한 관심이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이 세상 연구자나 특수 분야의 인사에게 한 한 관심일 정도인 것 같으며 그밖에 사람들은 그 실로 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실로 남아있다.

이곳에서 공산 동독의 대표적인 신문 「노이에스·도이취란트」지를 중심으로 하여 동독에 있어서의 신문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몇몇 신문이 동독에서 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모두가 공산당을 배경(背景) 하거나 이의 외곽 단체의 조종으로 그 실로 선전 도구로서 존재할 뿐이지 민주 언론 창달을 위해 사회의 진정한 공기로써 신문 본연의 자세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도저히 바랄 수 없다고 보겠다.

그러나 공산·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신문이 발행되고 있다는 현실은 사실로서 남아있기에 공산 동독을 사실상 지도하고 있는 것은 동독의 사회주의 통일당의 중앙 위원회 기관지인 「노이에스·도이취란트」지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독이라고 부르고 있는 나라인 독일 민주 공화국의 정치 방향이거나 지도 방침은 앞서 말한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의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노이에스·도이취란트」지에 가장 단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공산 동독의 대표적 기관지인 동지(同紙)는 그 발행 부수에 있어 그 숫자가 알쏭달쏭하다.

우선 그 숫자를 찾아보기에 앞서 말하여 둘 것은 공산 동독의 인구는 현재 서독 인구의 3분의 1에 불과한 1천 7백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특기할 사항은 동서 백림의 냉전이 오랜 세월을 두고 열전과 위기일발의 길을 걸어오는 가운데도 아직까지도 많은 동독 인민이 서독으로 피난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만 두고라도 공산 동독의 실정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감소일로에 있는 동독 인구에다 동독의 일간 신문 총수가 약 40종이며 그 총 발행 부수는 740만 부라고 동독의 1960년도 연감(年鑑)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확실한 숫자인지에는 이론이 있는 모양이다. 동독에서 그 발행 부수에 관해 공표한 바 없거나 자유 서독에서는 2백여만 부라고 하고 있으며 너무나 엄청난 부수의 차이가 동서독 간에 추정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선전적이며 서로의 정책상의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국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왔으나 우리의 사회 상황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의 힘을 못 갖게 했잖았어요?
사회 사람에게 따라 역경이 오히려 그 사람을 위대하게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두 소년 중에서 한 소년은 다리를 다쳤다고 할 때 이 소년은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평범했던 자기 소질에 보다 충실하고 힘을 기울이게 된다는, 말하자면 역경을 비약의 조약대로서—

강중위 비약보다는 말살당하는 예가 많잖을까요? 일제는 너무나 악독해서…….

사회 어디 조 대위께서 한 마디.

조대위 나는 초인이라는 말을 쓰고픈데 규율에서 느끼는 억압감, 환경적인 변화, 이런 것에 앞서는 초인적인 용기와 기상이 필요해요. 신춘년도 저물어가니 소절음을 호랑이 걸음으로 전환해서 내년에는 호랑이 걸음으로 확고한 발 디딤을 내딪자. 마아 이런 생각이죠.

황문관 내년부터는 정말 생활을 계획화해야겠습니다.

사회 산아 제한 같은 것으로 (웃음소리)

오하사 전 국가고시에 합격하자는 생각입니다.

사회 미스·김께서는 보다 아름다운 생각, 빨간 코트 같은 것?—(웃음소리)

김문관 그런 생각 안 해요. (웃음소리)

사회 조 대위님의 임인년 구상은?

조대위 글썽요. 지금은 구체적인 구상이 없으나 원단이 되면 인스피레이션이 있겠지요 (웃음소리) 이제 장기도 갔으니 경제적인 생활 기반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는 다름없죠. 차근차근 견실한 생활 태도를 가져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그럼 총각인 강 중위는 생각도 다르겠는데…….

강중위 그간의 군대 생활을 일단 정리해봐야겠습니다. 물론 결혼 문제도 하나의 과제이고—(웃음소리) 해보고픈 것이 많죠. 실험해 보고픈 것 즉, 생활 실험을…….



권(勸)하고픈 ‘생활 실험(生活實驗)’

사회 생활 실험? 그것 참 매력 있는 말입니다. 많이 듣지 않는 용어같은데 그 새로운 술어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듣고프군요.

강중위 정석해씨가 구라파를 다녀와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새로운 것을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모색해 본다는 뜻일 것이예요. 가능성 있는 생활의 아이디어를 실험해 본다는 뜻으로 미국 사람들의 개척정신이 이 사조의 연원이 아닌가 싶어요. 모험성이 있기도 하지만은 가능성을 실험해 보는 거죠. 성공 실패가 문제가 아니고 성공하면 성공의 실패하면 실패의 원인을 실험이란 과학적 프로세스에서 분석해서 얻는 체험에서 가치를 발견하자는 것이죠. 고정적인 생활의 테두리를 탈피하고 보다 새로운 전진을 시도한다는 거죠.
사회 그것을 우리 생활면에 적합하게끔 방식화해서 새 생활을 운동에 응용합직 합니다.

오랫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헤맨다. T군과 담요 때문에 다뒀다. T 군의 이기주의보다 참을성 없는 내 자신의 성미에 더 울화가 치민다. 밤중에 세탁을 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아무케나 지내려다가도 더러운 옷은 역시 빨아 입고 싶다. T군이라는 게 누군지 역시 생각이 안 난다. 이 같이 기억할 수 없는 조목이 일기 속에서 무수히 발견되었었다. 그런대로 일기 자체는 내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기억보다는 강하게 그리고 매우 선명하게 지난날의 나의 생활의 단편을 엮보여주고 있었다.

돌아보면 10년 일석이란 말과 같이 피난시의 일들도 이미 차츰 기억에서 희미해 가고 있다. 지난 고생은 즐겁다고 가끔 술벗끼리 모이면 이야기의 꽃이 핀다. 그러나 화제에 오르는 추억의 조각들은 다 피상적인 것이고 정말 우리의 혼의 기록은 아닌 것이다.

그것을 남겨주고 소생시켜 주고, 알려주는 것은 그때그때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기뻐하면 기쁜 대로 적어둔 일기뿐이라 하겠다. 일단 시간적으로 거리가 생기면 우리도 과거를 수식하는 버릇이 생긴다. 그러나 일기에는 그런 수식이 없다.

막상 과거를 이야기하자면 나는 나의 생애에 있어서 피난 때 보다는 내가 이역에서 헤매던 20대의 꼬박 10년의 성상이 가장 고생한 시절이었다. 꿈과 현실과 희망과 고뇌 속에 몸부림치던 나로서는 기나긴 10년이였다. 만약 그때 일이 피난 때의 일기 모양 일기로 남아 있었다면 누구보다도 내 자신에게 흥미롭고 고뇌와 이상에 아로새겨진 내 청춘의 생생한 행로를 거울 속에 비추어 보듯 포착할 수 있었으리라고 믿는다. 그거야말로 흘러간 시간의 무늬를 확실히 거짓 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자기가 잘한 이야기나 잘 살던 이야기를 약 광고나 하듯이 되하고 되히는 사람이 있는데, 과거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고뇌했는가, 그 기록이어야 할 것이다. 어떤 분들이 이 글을 읽을지 모르나 필경은 20대의 젊은 분들이 많이 읽을 줄로 믿는 바라 당신의 젊은 시절의 꿈과 고뇌를 일기에 적어두라고 권하고 싶다.

필자가 적어두지 못했던 한이 깊은 그 젊은 날의 일기를 당신들은 드디어 흘러가 버릴 시간의 모래 위에 역역히 남겨두라고 이르고 싶다.

시간은 흘러가도 그 기록은 흘러가지 않을 것이며, 잃어버리기 쉬운 자아를 그 혼의 기록에서 되살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술집에서 나오는 흘러간 이야기……거기에는 혼이 빠져 있다. 혼이 깃들인 흘러간 이야기는 오로지 당신의 젊은 날의 일기만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동독에서는 확실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 상 싶으며 1959년 4월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제3회 신문 회담에는 동독의 주요 신문 편집 책임자가 거의 참가했고 대학 신문학 교수, 사회주의 통일당의 선전 담당 정치국원이 참가한바 있으나 이 때에도 그 숫자에는 하등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단지 신문에 의한 대중 교육 계몽 효과 등을 토의의 의제로 다루었을 뿐이었다. 다만 공산 동독의 당 기관지인 「노이에스도이취란트」지가 대표적인 것으로서 740만 부라는 발행 숫자는 유럽 대륙의 신문 현황으로나 공산권 국가와의 비교로서 미루어 보아도 과장된 숫자로서 틀림이 없다는 것이 정론일 것이라는 것만은 상식을 넘지 않으리라고 보겠다.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사회 체제에 있어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의 정신 감정을 요할 정도라고 해도 망언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동독의 신문은 대부분이 일요일은 휴간되고 있으나 「노이에스도이취란트」지만은 연중무휴로서 매일 6항 내지는 8항의 지면으로 되어 있으며

주말인 토요일에 가서는 4항에 달하는 문학 예술에 관한 부록이 더 첨가 발행되고 있다.

그리고 동지(同志)의 외관과 특징을 든다면 신문 제호(題號)의 우견측(右肩側)에는 반드시 “민국의 무산대중 프롤레타리아어 단결하라.”는 제자(題字)가 박혀 있고

좌측에는 적성(赤星) 가운데 마르크스의 안상이 화각(畫刻)되어 있다.

그런데 근래 와서 공산권 국가의 어느 곳에서도 별로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지 않는데 반하여 이곳에 적혀 있다는 것은 좀 색다른 수법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고전적 공산 용어의 사용과 신문의 편집 방침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계재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인상을 주는 것 같이 보인다.

그리고 일면의 사진은 대담한 수법으로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치 만화가 매일 연재되고 있어 얼핏 화려한 상 싶다.

이에 비하면 북한 괴뢰의 「노동신문」이라든가 소련의 「프라우다」지 같은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딱딱할 뿐 아니라

선전관보조(宣傳官報調)의 냄새를 몹시 강하게 풍기고 있따는 것은 놀라울 것이 못 된다.

다른 공산권 내의 신문도 그러하거나와 역시 공산 동독에 있어서도 자기당이나 당·정부에 대하여 달갑지 않은 기사는 「노이에스도이취란트」지가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쯤은 우리의 상식 밖의 일이 아니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즉 동독의 「노이에스도이취란트」지가 공산 동독의 사회주의 통일당이거나 혹은 독일 민주 공화국으로써 달갑지 않고 좋지 못한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지는 관심거리가 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자유 서독에 대한 악선전의 자료를 제공할 만한 내용으로 편집되고 있는 것도 별로 신기한 일은 못될 것이다.

동독의 신문이 자유 서독의 불행과 불건전함을 대서특필함으로써 자기당이나 동독 공산 정부의 탈을 메꾸어 보려는 노력이란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영속성이 있으며 일반 대중에게 어느 정도 선전의 공평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관하여는 너무나도 현실이 잘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즉 동독으로서 가장 달갑지 않은 사실의 일례를 들건대 공산 동독에서 계속적으로 자유 서독으로 많은 인민이 피난해 오고 있으며 요즘에 와서는 그 무시무시하고도 참인(慘忍)하고도 엄한 경계망을 뚫고 도망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구나 이러한 자유 서독을 찾아 피난 도망해 나오는 공산 동독의 인민의 수효가 감소해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으며 제 아무리 동독의 신문들이 떠들썩하게 서독에 대한 악선전을 하더라도 한낱 선량한 인민에게는 올바른 신문 구실은 못하고 있으며 소위 동독의 신문 구독률이 일세대(一世帶)에 일부식이라는 것 자체도 우스꽝스럽지만 이러한 구매율이란 무엇에 기준하고 있으며 이는 당이나 당 정부의 관계 회람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닌 상 싶다.

동독에서 출판되는 신문 외의 선전 간행물 책자를 통해 앞서 말한 것과는 반해서 공산 동독의 허위선전에 기만되어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지난날의 유물이 되고 일시적인 것으로써 지금에 와서는 그 수효란 그야말로 계정 밖의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은 동·서독 간에 있어서의 언론 출판의 진정한 자유의 단면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도 생각된다.

이러한 공산 동독의 두통거리의 사회 문제를 일체 개방하여 신문이나 기타 발간물을 통해 불명예스러운 것을 다루고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는 「노이에스도이취란트」지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면에 대하여 더듬어 보고자 한다.

동독의 사회주의 통일당의 기관지인 만큼 동지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당의 선전과 반서적인 역선전으로 일관하고 있음은 재언을 요하지 않지만 일견하여 동지는 자유 서독에 대해 공격조의 기사가 심한 것은 물론 이거나와 서독의 수도 ‘본’을 가져다 전쟁 정책에 대한 증오의 극상으로 나치 독일의 부활에 대한 분노의 초점으로 주력하여 반북해서 ‘본’의 어자(語字)를 들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노이에스도이취란트」지의 기사 내용을 구분하여 본다면 대략 다음과 같은 네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전술한 바와 같이 자유 서독을 공격할 목적을 갖고 있는 것과 서독의 전쟁 정책의 진행 나치즘의 부활을 폭로하면서 이와 동시에 공산 동독만은 평화 애호의 나라이고 인민의 자유인 양 독자에게 정반대의 인상을 주도해 나가는 점,

둘째로 국내의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빛 좋은 개살구 모양인 허실한 건설 부흥상을 날조한 것으로써 루포 형식으로 과장 선전조으로써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기사 내용으로 지면 전체의 6할에

가까운 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 셋째로는 외신 기사를 많이 다루고 있으며 특히 이 내용으로는 노동 파업이라든가 소위 후진성 국가에 있어서의 인민 봉기 및 투쟁을 곧 대 자유 투쟁으로 조작 선전하는 것으로 많은 스페이스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로는 스포츠 경기이고 이밖에 일기예보 익주(翌週)의 라디오 T.V의 프롤라든가 약간의 광고 정도로써 지면을 메꾸고 있다.

말하자면 미국이나 영국같이 뉴스 보도와 논설 논평이라든가 해설같은 것을 명확히 구별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 모양이다.

아마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그리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아닌 상 싶다.

그러므로 「노이에스도이취란트」지의 기사에 관해서도 역시 그러한 것을 각별히 분류해 본넷자 헛수고일 것이다.

비단 이러한 은폐적이고 선동과 선전조의 기사와 편집 내용은 동독의 신문들뿐만이 아닌 것이며 가까이 중공 「인민일보」나 북한 괴뢰의 「노동신문」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며 한낱 이러한 편집 수법과 기사 내용은 대개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권 내 사회 체제에 있어 공통적이고 통일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동독의 신문으로써는 자국의 사회주의적 건설의 진행 그 과정에 있어서의 난관의 극복상 등을 어떻게 해서라도 대서특필하여 국민 대중에게 기만적으로 이것을 이해시키고 대중의 사회주의 건설 참여의 의욕을 더욱 북돋우기 위해 갖은 노력과 역량으로써 최대한 경주하는 것이며 이 점 「노이에스도이취란트」지는 인접 자유 서독에 대한 기사를 자당 자국의 정책 수행을 위한 수법으로 지면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은 놀랄 만한 사실은 못 되는 것이다.

이곳에서 1961년 정월 달에 있어 동 「노이에스도이취란트」지가 최대의 지면과 최대의 정력을 기울여 보도한 서독의 대학촌인 말부르크에서 일어난 디—크만췌 사전에 관한

(P26으로)



방공구국(防空救國) 3개월 ④

—제2차 세계 대전시 영국 공군의 불굴의 투혼—



그 다음날 부라이스·노튼에 내습한 독일 공군의 공습으로 지상에 준비하게 늘어서 있던 옥스퍼드 연습기 46대가 완전히 녹아버렸다.

폭격기 2대가 두 개의 격납차(格納車)에 직격탄을 퍼부어 그 안에 있던 46대가 완전히 파괴된 것이다. 비행기를 분산시키지 않은 위험성을 뼈저리게 증시한 것이었다.

비바부룩트 경은 옥스퍼드 기를 분산 퇴피시키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였을 때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옥스퍼드기는 목제기이기 때문에 습기가 차서 격납차에 넣어서 건조 작업 중이었습니다.』

◇불길(不吉)한 사이렌

8월 24일 밤 런던시 서단(西端) 어둠 속에서 시민들은 불길하고도 비명과 같은 음향을 들었다. 음의 역사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소리만큼 불쾌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에 남긴 것은 없었을 것이다.

런던시를 공포와 불안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은 것이 이 공습경보의 사이렌이었던 것이다.

런던 공습의 뉴스는 런던시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히틀러까지도 놀라게 하였다. 왜냐하면 히틀러는 불과 수일 전 독일 공군의 일부가 런던 중심부에 가까운 쿠로이든에 폭탄을 투하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그 부대 지휘관을 전책 처분한 직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오가 전국(戰局)의 귀추를 크게 변동시킨 결과가 되었다.

영국이 다음날 81대의 폭격기로서

백립 야간 보복 폭격을 결행하였기 때문이다. 이 영국 공군의 보복 폭격은 이 전쟁이 시작된 이래 폭격부대에 의한 최대 규모의 것이었다.

이때 출격한 영국 폭격 대원들은 만약 목표가 발견되지 않으면 폭탄을 투하하지 말고 귀환하도록 하라는 명령이 전해졌다. 말하자면 영국측의 조심성 있는 배려였으나 히틀러를 격노시키기에는 충분한 것이었다.

히틀러는 독일 공군에게 즉시 보복 폭격을 연일 연야 감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여기에는 이 같은 보복 폭격으로 영국이 전의를 잃고 독일 측 평화교섭에 응하지 않을까 하는 심산도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 보복 폭격은 오랜 서로 간의 폭격 전의 단초가 된 것이었다. 더욱이 영국이나 독일이 다 처음부터 굴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에서는 많은 미묘한 가정이 성립될 수 있는데 영국 전쟁을 둘러싼 가정만큼 취급하기 힘들고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것은 달리 없을 것이다.

만약 8월 24일부터 25일에 걸친 심야에 이들 독일 공군의 폭격기가 런던 상공에 날라 들어오지 않고 따라서 또한 크릿폴·게이트에 있는 기레스 교회에 직격탄이 던져지지 않았던들 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이날 밤 런던 시내에 폭격한 수발의 폭탄 때문에 처칠 수상은 폭격대사령부에 명령해서 다음날 밤 백립 상공에 폭격기를 투입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시스·게임의 폭격시험 한편에서 독일 측으로서는 타오르는 런던보다 훨씬 군사적 가치가 있는 작전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영국의 남서해안과 런던시 사이에 산재하는 여러 기지는 그때 벌써 거의 모두가 큰 손해를 입고 있었다. 예컨대 8월 15일 서(西)메링에 있는 기지를 습격한 독일 폭격기 38대는 5월 간에 걸쳐 이 기지를 사용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독일 공군은 그때 파크 소장이 지휘하는 제11전투 사단을 재기불능 직전까지 몰아넣어 기지는 사용불능 상태였다. 그뿐 아니라 전투기 보급을 불가능하게 하고서 항공창을 그 공격 목표로 바꾸기 시작하였다.

◇기적

만약 독일 공군이 이 작전을 계속하였다면 그리고 만약 독일 공군의 보급이 끊어지지 않고 조종사의 사기가 유지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영국은 언제까지 견디어 냈을지 모를 일이다.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에 당면한 다우딩 대장은 지휘상에 있는 전투 부대를 부득이 분산 배치시켰다. 그리고 비바부룩트 경은 흡사히 마법의 힘이라도 빌린 것처럼 다우딩 대장 앞으로 전투기를 보내왔다.

전투기대사령부는 이 신에 전투기들을 영국 각처에 있는 기지에 재치 있게 접배(接配)하였다.

이러한 속성 보급을 받은 영국 전투기대가 거둔 전과는 독수리의 날이 지난 직후 과일 대장이 말한 것처럼 진짜 기적이었다.

기적이라는 말이 회상 끝에 따르는 달콤한 감상을 제하고 적용된다고 한다면 독일 공군이 런던 방위를 위해 전투기 기지를 공격하는 데 실패한 편이 훨씬 진짜배기 기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 전투기 기지는 공격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을 것이다.

독수리의 날부터 9월 6일에 걸쳐 영불(英佛) 해협을 건너 내습하는 독일 공군의 격심한 공격에 내맡겨진 이들 기지는 반신불수에 가까운 타격을 받아 기지 전투기대의 후퇴도 불가피하다는 정황에까지 빠져 있었다.

그러나 독일 공군은 9월 7일 기적적으로 그 공격의 중심을 이들 전투기대 기지로부터 비군사적인 런던으로 돌렸던 것이다. 독일 공군의 제공권획득에 대한 도전에 영국 공군이 전술적으로 취약성을 지닌 이들 기지에서 응전할 것을 결정하고 더구나 독일 공군의 공격을 만신에 받는 이들 여러 기지의 운명이 아슬아슬한 판국에 독일 공군의 압력이 일전하여 광막한 런던으로 향해진 것은 그야말로 영국 전쟁을 통해서 최대의 기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투기 기지에 대한 공격이 앞으로 2주간만 더 계속되었다고 하면 제11 전투 사단은 숨이 끊어졌을 것이다.

◇영국(英國) 방공진(防空陣)의 약점(弱點)

독수리의 날에서 6일째 되던 날 독일의 괴뢰 공군상(空軍相)은 공중 전투를 런던에서 전 영국 본토로 넓힐 것을 명령하였다.

괴뢰는 슈파루 대장에게 명해서 제3공군을 편성시키고 리버풀을 주목표로 하는 야간 작전을 담당하게 하였다. 8월 28일 밤부터 연속 사흘밤을 독일 공군의 슈파루가 지휘하는 폭격기 150대는 리버풀 지구에 내습하여 고성능 폭탄 450톤 이상 소이탄(燒夷彈) 천 발 이상을 투하하였다. 그 바람에 리버풀은 4일간 불바다를 이루어 탔다.

제3공군뿐 아니라 제2공군의 폭격기들도 매일 밤 출격하여 영국의 밤하늘은 매일 밤 적기(敵機)로 뒤덮였다. 독일 공군이 노린 것은 공습 경보의 사이렌을 밤새도록 불게 해서 영국 사람들을 잠을 못 자게 하고 항공기 공장의 야근 공인(工員)들로 하여금 긴장 끝에 녹초가 되도록 만들자는 데 있었다.

허리케인이나 스피드·화이어 같은 주간 전투기는 대수도 많고 활약상도 눈부신 것이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으나 야간 전투기인 부리스틀·부렌하임기라든가 테파이안트기, 그라지예타기 등이 독일 야간 폭격을 맞이하여서의 활약은 조잡한 것이었다.

독일 공군의 야간 폭격은 영국 방공 조직의 가장 큰 약점을 노정시켰다.

그것은 야간 전투와 대공 화력의 문제였다. 야간 전투기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4일 간의 전투에서 독일 폭격기의 격추는 불과 4대에 지나지 않았다.

이 시대의 고사포(高射砲)라는 것이 거창한 소리에 비해서 성능은 형편없어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준다는 것이 주목적인 것 같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다.

야간 전투기만 하더라도 당시는 아직 색적용(索敵用) 레이더 설비가 없어 그저 만일의 행운을 바라고 날아다닐 뿐

고사포가 그래도 믿을 만한 편이었다.

제1차 세계 대전 때는 야간 전투기용의 봉화로서 섯페린 비행선이나 고-타구축기에게 고음을 준 썬-치라이트도 1940년대에 와서는 거의 무용지물이었다.

독일 공군기는 썬-치라이트의 광속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고도도 올라가거나 그 고속을 이용해서 급작스럽게 썬-치라이트를 피하고 하였다.

이와 같은 처지에서 영국 본토는 야간 폭격에 대해서는 수비할 만한 기술도 사람도 없이 그대로 무저항인 채 내버려졌다.

유일의 믿을만한 길은 완전한 등화관제(燈火管制)와 영국의 기상 그리고 야간 폭격에는 서투른 독일 공군의 기술 뿐이었다.

그렇지만 영국 공군이 독일 공군의 라디오·비콘 전파를 반사하는 신 발명의 방해 장치를 완성함으로써 피해를 국한시킬 수 있었다.

독일 공군의 비능률-기술 졸렬에 덧붙여 영국의 과학 특히 전파 병기 면에서의 우수성을 아는 사람은 이 단계에서 전국 추세에 분명한 관측을 갖게 되었다.

이와 반대로 독일 공군의 폭격기 승무원들에게는 곤란한 것이 날로 늘어갈 뿐이었다.

◇밤의 협위(脅威)

독일 야간 폭격기의 내습이 새로운 그러나 당연히 올 것으로서 영국에 덤벼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즉시 주간 전투기대의 일이 한가해졌다는 것은 아니다.

독일 제3공군의 야간 공격이 활발해진 것은 런던 주변에 전개하고 있는 파-크 소장 지휘 하의 제11사단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독일 공군 슈파르 부대의 뱃사수미트 109 전투기는 중폭부대(重爆部隊) 활약으로 손이 높게 되어 켈셀링크 휘하인 제2공군 증원에 전전해 갔다. 켈셀링크가 그들을 크게 환영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켈셀링크는 이제야말로 폭격기를 목적지까지 보내고 귀환하는 것은 물론 상한 비행기가 있으면 해협 상공에 전투기망을 펴서 보호할 수도 있게 되었다.

전투기에 의한 서비스는 이것으로 완전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슈파르 지휘하에 있는 전투기를 손에 넣은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켈셀링크에게는 새로운 두통의 씨가 생겨난 것이다.

뱃사수미트 110형 쌍발 중전투기 성능의 결점이 그에게 두려워할 만한 사실을 알린 것이다. 그것은 영국 본토 상륙 작전을 감행한다면 맹렬한 공중 작전을 어느 기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뱃사수미트 110은 빈약해서 연속적으로 쓰기에는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더구나 이 대작전에 씨먹기 위해서 제1선용 전투기가 가까운 장래에 보급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었다.

전후(戰後) 독일 측의 전사(戰史)를 연구한 어느 전문가는 영국이 결정적인 공중전에서 승리를 거둔 전기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라는 명제에 대하여 참으로 이 시기가 그 전기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영국 전쟁에 참가한 독일 공군 장교와 논의한다는 것은 당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잘 알 수가 있다.

◇덕(德)을 본 섬나라

오늘날 서독 공군의 고급 장교로 있는 전 독일 공군 파일럿 한 사람은 '영국은 지리적으로 공군 공격에 대해서는 절호의 지리를 점하고 있었다.'라고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참으로 쾌ષ하기 짝이 없는 해협이었어! 그곳을 건너갔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불쾌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는 영국 본토를 수비할 수 있었던 또다른 자연적 조건을 예증해서

'맑은 날짜라고는 불래야 볼 수 없는 그 악천후는 말할 것도 없고 밤이 정연하게 구획되어 있어 공중에서 언뜻 보기에는 꼭 비행장 같단 말이야 그야말로 그것은 자연의 위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거야.....'

자연적인 악조건, 영국 공군의 전투기, 영국 전토에 흩어져 있는 레이더 등등만 생각하더라도 제공권(制空權)을 잡으려고 한 독일 공군의 기도는 처음부터 희망이 없는 것이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들 사이에는 영국 전쟁은 되풀이되는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오늘날 영국 전쟁은 공식 조사 기록으로 정리되어 신생 독일 공군의 교과서로서 인쇄되었다. 예를 들면 그 가운데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독일 공군의 보급선은 최대한으로 연장되고 예비 비행기도 파일럿도 부족한 것이었다. 여기에 비해 영국은 예비기도 파일럿도 여유가 있어 한참 전쟁 때에도 파일럿에게 휴양을 갖게 할 수도 있었다.'

'만약 이와 함께 영국군의 다우딩 대장이 이때 전쟁에 그 전 전투기 병력을 투입하고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다면 모를지키 독일 공군은 때려 맞아 의기 조상(阻喪)해 가지고 8월에는 제멋대로 흩어져 런던 폭격도 개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서독 공군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다우딩 대장은 과오를 범하였다. 그는 해안에 연한 그리고 독일 공군 기지로부터 공격을 받기 쉬운 남서 잉글랜드의 여러 기지 방위에 몰두하였다. 어째서 비교적 안전한 런던 후방의 기지에서 대편대(大編隊)로 런던 상공을 지키지를 않았을까? 그렇게 하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덜어주었을 것이고 그런 연후에 전투기대는 전장에 나섰으면 좋았을 것이 아닌가?'

또 다음과 같은 논평도 하였다.

'이들 후방 공군기지는 독일 공군으로부터 결코 괴멸적인 타격을 받을 염려는 없다. 왜냐하면 독일 공군의 쌍발 폭격기는 영국 상공 작전에는 부적당한 것이었다. 더구나 단발 전투기는 항속 거리가 짧으며 쌍발 전투기는 성능이 나쁘다. 영국 공군 후방 기지를 철저히 때릴 수 있는 비행기는 그 당시 독일 공군에는 없었다.'

◇영국민(英國國民)들의 자량

전시 중이나 전후를 통해서 영국 국민들이 영국 전쟁에서의 자량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열세의 위치에서 적을 무찔렀다고 하는 말하자면 거인 고리아즈와 다비드의 신화적인 것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로서는 영국 공군의 공을 강조하기 위해서 독일 공군의 우수성을 과장하는 것이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도 필요하였다.

전쟁이 개시된 첫 해에 영국 국민은 독일이 영국 정복에 필요한 병기는 모두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전후에 이 전설에 대해서 사실은 독일 공군도 영국 정복이라는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는 빈약한 장비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예는 없다.

1940년 여름 영국 공군과 같이 독일 공군도 심각한 번뇌를 지니고 있었다.

실제 독일의 장군들은 많은 작전상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하였다.

이 문제 덕택으로 영국은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독일 공군의 기지는 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 각지에 산재해 있었으나 모두가 즉제(卽製)의 영터리였다. 이들 여러 나라가 전쟁 전에 만들어 놓은 기성 기지는 예외였다.

그렇지만 웬만한 기지에서는 부속 시설도 없고 독일군이 마차로 끌고 온 이동용 설비뿐이며 비행장 근처에 있는 농가나 창고가 사령부가 될 경우조차 있었다.

이와 같은 독일 공군의 현실에서 볼 때 옛날부터 잘 정비된 비행장에서 출격하고 있던 영국 공군은 그야말로 구색이 잘 맞는 것이었다.

급조한 기지에 불안을 느끼면서 독일 공군 사령관들은 미증유의 대규모적인 공격을 개시하도록 명령이 내려졌다.

그들이 불안에 쌓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급조한 폭격기와 전투기가 독일 본토의 융카스·뱃사수미트·도루니에·하잉켈 등 각 공장에서 속속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기수에는 팽기로 흉포한 모양의 도안을 그려넣었고 폭음을 올리면서 영국 상공으로 날라갔다. 그러나 이들 비행기가 일단 고장이 나던지 하면 그 수리가 문제였다.

영국에서 비바부르크향(鄉)이 제작하고 있는 것과 같이 완비된 수리 설비와 시스템은 도저히 독일 공군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다. 더욱이 점령 지역이다 급조한 기지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당시의 독일 공군이 수리보다도 신조기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후방 기지에서 대편대의 전투기 부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었다면 독일 공군은 무너졌을 것이라고 하는 논자는 유독 독일 측에 한한 것은 아니었다. 영국 측에도 있다. 그리고 이들 논자는 영국 전쟁에 있어서 가장 미묘한 전술론에 언급하고 있는 셈이다.

다우딩 대장은 개인적으로는 언제나 상황이 허락하는 한 전투기는 대편대를 지어야 한다는 설의 신봉자였다. 그러나 비행 중에 그 여유조차 없었던 단켈크 상공의 싸움은 예외였다.

런던 전방에 전개한 그의 삼각형 방위 기지망에서는 7월, 8월, 9월에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난 새해부터 젊어지고파 수염을 깎는데 넌 기르느냐?"
아 들 "네!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어른이 되어야죠"

김성환

결쳐 전투기의 대편대를 쫓 수는 없었다.

이들 기지로 해서 다우딩 대장이나 파크 소장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2개 중대를 한데 합치는 길이었다.

독일 공군이 전격전으로 위기에 처한 조국 영국을 구하는 데 전력을 다한 이 두 사람의 용사는 전후 전투기 대 사령부에서 깨끗이 버림을 받았다. 파크 소장은 말타도(島)의 사령관으로 되돌아 갔으며 한편 전투기대장 설자이며 영국 전쟁이 낮에 벌어지고 있을 때도 다가올 야간 폭격에 대응한 비책을 짜낸 다우딩 대장은 전후 공군에서 물러난 채 은거 생활을 보내고 있다.

◇볼바다 이룬 런던

9월 7일 점심 때쯤 독일 공군은 히틀러가 분부한 런던 주간 폭격의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늦게 독일 공군은 런던 상공에 쇄도해 왔다.

목표는 템스강 연안에 늘어서 있는 제유(製油) 시설과 울·릿치의 왕립 병기창 같은 군사 시설이었다.

이 런던 공격에는 폭격기가 연(延) 600대 전투기가 300대나 참가하였다.

런던에 도달하기까지 그들은 거의 저항다운 저항을 겪지 않았다. 즉 전투기 기지에 대한 공격과 그리고 항공기 공장에 대한 독일 공군의 선택 폭격이 행해질 위험이 예측되었기 때문에 제11 전투기 사단은 독일 공군의 이 공격에 응전할 수 있는 배치가 되어 있지는 못했다.

제11 전투기 사단의 태반은 파크 소장 담당 구역 주변에 일개 중대 단위로 흩어져 있었다. 거기다 런던은 아직 한 번도 주간 폭격을 받은 일이 없었다. 이제까지 일련의 양동(陽動) 작전에 끌려서 전투기대는 위치를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에섹스에서 동(東)썬섹스까지 길게 전개하면서 독일 공군은 해협을 건너 용이하게 영국 본토 상공에 침입하여 런던을 노렸던 것이다. 독일 공군이 쉽게 런던 상공에 도달하여 약간의 지상 포화를 받았을 뿐 폭격에 성공하고 귀환한 것은 독일 본국에서는 대성공이었다고 떠들썩하였다.

확실히 어둠의 장막이 내려짐에 따라 샌트폴 사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불타오르는 런던의 지옥 같은 광경이 뚜렷하게 육박해 왔다.

이와 같은 큰 화재는 그날 밤 있었던 독일 공군의 조종사들은 이 화염을 목표로 연달아 달려 들었다. 불발은 런던은 사람의 술수로 는 도저히 구제할 길이 없을 것 같았다. 그뿐아니라 야간 폭격에 대한 자위 조치는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용기(勇氣)와 악천후(惡天候)

일시	영국	독일
9월 8일	2	15
9일	28	19
10일	4	1
11일	25	29
12일	4	0
13일	4	1
14일	14	14

그러한 가운데서도 9월의 하루하루는 지나갔다.

9월 7일 이래 위기에 처한 런던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 전쟁 초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독특한 악천후와 어떤 난경에서도 굴하지 않는 영국인들의 용기와 적응 능력이었다.

이 기간에 있어서 영국과 독일의 손실 대수는 각각 다음과 같다.

독일 공군은 이 전과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영국 공군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독일은 영국 본토 침공에는 아직도 커다란 희망을 걸고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상륙 작전까지 손을 대지 않더라도 영국을 평화교섭을 통해서 굴복시키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믿고 있었다.

1940년 9월 15일(일요일) 영국 공군은 제2차 대전 중 가장 고가(高價)한 대상(代償)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영국 의회뿐 아니라 영국 국민 전체의 시계(時計)라고도 할 수 있는 의회 시계탑의 시계가 정오의 시보를 막 알렸을 때 런던 상공에서는 처절한 공중전이 개시되었다. 폭탄은 순식간에 런던시 동남, 남서 지역에 낙하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버킹엄 궁전이나 웨스트민스터 구에 구름 사이를 뚫고 폭탄이 낙하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전술(戰術)

9월 11일 파크 소장은 제11 전투기 사단 지상 관제관에게 새로운 지령을 내렸다.

“대거 내습에 대처하는 전술에 관해서”라는 제목 하의 이 지령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다음 지령의 목적은 제11 사단의 전투기 중대를 가능한 한 항상 2개 중대씩 한데 합쳐서 최대의 전투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데 있다.

1. 스피드화이어 중대는 적전투기 부대에 대처한다.
2. 허리케인 중대는 적의 폭격기 내지는 근접 엄호기에 대처한다.”

아니나 다름게 9월 15일 아침 독일 공군은 해협 대안에서 대편대를 짜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 흡사히 원족(遠征)을 떠나는 학교 생도들의 행렬이 변소에서 꾸물거리는 한 사람의 생도 때문에 언제까지나 떠나지를 못하고 응설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최후의 소편대가 갖추어지기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간을 이용해서 영국 제11 사단에 속하는 지상 관제관은 눈코 뜰 새 없이 사단 예하(隸下)에 있는 각 중대의 합작 편성을 서둘러 그것을 유리한 지점에 배치하였다.

런던 후방에서는 가장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제12 전투기 사단의 사령관 레이·마로리가 빈틈없는 태세로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11시 그동안 독일 공군의 공격을 면한 영국의 레이더망이 프랑스 연안 상공에서 공중 무적 함대라고도 할 만한 독일 공군의 대편대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캐치하였다.

영국 전투기 17개 중대는 지체 없이 떠올라 유리한 고도에 배치되었다.

항공기 공장 방위는 언제나 최우선 되어야 할 임무였다. (계속)

<수필>

새해에 살려는 마음

조경희(趙敬姬)



새해는 올해가 가고 내년이 올해가 되는 해다. 누구든지 올해인 새해를 맞게 되면 감회가 크다.

아무리 절망 속에서 나날을 보낸 사람이라도 새해에는 한 가닥의 희망을 부치게 된다. 이것이 새해라는 새로운 날이 주는 프레젠티인지도 모른다.

올해에는 마음먹은 일을 꼭 성공시켜 보겠다고 다시 한번 두 주먹을 쥐는 날이기도 하다. 해마다 새해가 될 때마다 되풀이하는 순서로 되어 있지만 항상 새로운 느낌으로 맞게 되는 날이다.

올해는 어제의 잘못된 경험을 되풀이하려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인간의 생활이란 어제의 생활이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제의 연장이기 때문에 웬만큼 큰 결심을 하지 않고는 잘못된 잘못대로 타성 같이 따라다니게 마련이다. 따라서 어제까지 건설하던 생활은

오늘 한결 쉬운 생활 태도를 지니게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어제까지 고통 속에서 헤매던 생활이 오늘 별안간 새해가 되었다고 달라지지는 않는다.

마치 그것은 시발지로 떠나서 목적지까지 달리는 역마차가 도중에 말에게 물과 먹이를 먹이고 마차를 손질하는 것처럼 '나'라는 '자아'를 한 번 다시 더듬는 격시다.

도화자는 아니더라도 인간으로서 옹기 살아보겠다는 무장을 새로 한 번 다짐하는 것이 새해이기도 하다.

달리는 마차의 갈 길이 때로는 멀고 험한 것처럼 인간이 옹기 살아가기 위한 길이란 수월치가 않다. 시시각각으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으면 옳다는 길에서 탈선하기가 쉽다. 이 탈선을 방지해 보자는 것이 자기반성이요 새로운 각도가 되겠다.

새해 아침을 당해서 지난해 새해 아침에 것처럼 큰 포부를 가지고 새로운 구상을 하였는데 오늘 아침에 지난날을 돌아보고 것처럼 거들 것이 없는가 하고 한탄하게도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낙심하지 않는 날이 새해 아침이기도 하다.

인간의 고통이란 인류가 시작한 때 전해오는 유산처럼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면 하루 속히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또한 인간의 희망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통을 벗어나기란 단순치 않은 것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때로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 현실에서 도피하는 생활을 한다. 그러나 인간은 어디까지나 현실에 발을 짚고 서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새해 문전까지 따라 올라오는 고통의 보따리에 올해에는 조금이라도 떨어뜨려야겠다는 것이 인간의 염원이기도 하다.

새해 아침이 되었다고 우리들의 생활이 별안간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달라지고 싶은 것이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붉은 태양빛이 어제와 다름없고 새벽에 동이 터오는 여명이 모두 어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같은 날을 다시는 살아보지 못할 뿐 했던 새날처럼 뜻깊게 받아 드리자는 것이다.

다시는 살아보지 못할 뻔했던 날이라고 생각할 때 새날에 대한 감동은 더 큰 바가 있다. 다시는 말하지 못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순간과 같이 새날을 생각하고 싶다. 다시는 못 볼 사람을 만났을 때 일어나오는 감격과 기쁨과 관용 속에서 다짐되는 굳은 각오가 새날에도 필요하다.

어제와 오늘 내일 이렇게 세월은 아무 말도 없이 흐른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는 가까운 벗을 무심한 사람이라고 하고 마냥 흐르기만 하는 세월을 무정하다고 한다. 그러나 세월이 입이 있어서 말을 한다면 세월처럼 말 없이 인간을 지킨 것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세월이라는 색깔도 중량도 없는 흐름에다 인간의 욕구에 적합한 역사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세월이란 자기 고집대로만 흐르는 듯 하지 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세월처럼 탄력성 있는 것이 없어도 생각된다. 세월은 인간의 역량에 따라 고무줄같이 잡아 늘릴 수도 있고 오므릴 수도 있지 않은가 싶다.

무인도에도 바람은 불고 세월은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새해는 올 것이다. 인간이 세월을 어떻게 잡아 다루느냐에 달려서 무인도에서 세월이 지나가는 것 같은 상태는 면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웬일인지 나의 새해가 마치 무인도의 고도에서 맞이하는 기분이다. 외롭다던가 고독하다던가 하는 그런 감은 아니다. 정말 외롭고 고독한 사람은 그 말을 입에도 부치지 않을 상 싶다. 고독이라면 마음과 생각에 따라 다룰 수 있을 것인데 흔히 마음을 두고 고독을 말한다. 그러나 말없이 흐르는 세월과 표정 없는 사색의 흐름이란 마음의 고독에 비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고독하게 살 수 있었느냐는 평가는 얼마나 혼자서 사색하느냐 와도 같다. 사색의 결과는 높은 뜻을 구상하게 마련인데 높은 뜻이란 항상 외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외롭다는 것은 정말 높은 뜻을 더불어 이야기할 벗이 없을 때 엄습하는 바람이다.

높은 뜻 앞에는 외로움이란 계절풍이 시시각각으로 불어오게 마련이다. 이 시시각각으로 불어오는 계절풍을 막아내려면 굳센 의지력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지나간 어제와 오늘 또 앞으로 오는 날이란 이런 의지력의 역사이기도 하다.

어떠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굽히지 않는 의지력을 지켜나갔으면 한다. 새해에는 이런 생활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싶다.

(필자·주간 새나라 편집국장)

시(詩)

희망(希望)에 대하여

이영순(李永純)

그 문이 열리던 날
눈시울에 젖어드는 것이 있었다

투명 속에 황금색 지표를 본다
어둠과 미로의 벽이 무너지면서
나의 마음은 푸름을 달린다

삶을 즐기라 한없이 삶을 즐기라
그것만이 빛나는 미래를 창조한다
설사 미래가 고난의 연쇄반응의 여로(旅路)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증오하며 거부하지 말라

「하늘」

정연희(鄭然喜)



깊이도 넓이도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을 우리는 머리에 이고 살아갑니다.
그 무변대한 하늘에는 우리들 땅을 딛고 사는 인간들은 근접할 도리가 없는 깊고 아름다운 설
화가 있을 것만 같습니다.
만능의 권위와 공평한 여정을 가지고 우주에 군림하는 태양과 행려병(行旅病)에 걸린 낭만적
인 시인과도 같은 구름과 태양 아래 잃어버린 전설을 어둠 속에서야 더듬으며 빛나는 수줍고
영롱한 별들과……

때로는 다정하다가도 사나워지는 요술마님처럼 변덕스러운 바람, 그리고 행려병에 걸린 낭만적인 시인과도
같은 구름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대개는 무심히 혹은 찌푸린 상으로 대하여 살아갑니다.

좁은 땅 위에서 부딪히고 싸우고 울며 소리치면서 점점 그 정직한 자연과 멀어 가는 것 같습니다.

슬픔에 몸부림치고 괴로움에 떨면서도 어찌 하늘을 바라볼 생각을 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늘은 화산과도 같은 증오심도 씻어주려만 대단치도 않은 인생사에 한숨짓고 울면서도 어찌 하늘을 바라
보며 마음을 씻어볼 여유를 찾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늘’하면 신을 그려보는 것이 인간의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범할 수 없는 위엄과 자비를 함께 지니고 조용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한 하늘을 두고 우리는 대개가 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기를 닦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하여 하늘을 보는 때가 하루에 몇 번이나 되는
가 묻고 싶습니다.

신의 공평한 손길과 자비로운 시선을 하늘은 지니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비를 과학은 점차로 배반하고 있습니다.

비를 두려워해야 하고 동화वाद 같은 눈도 반가워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속력은 하늘이라는 공간을 두고 점차로 눈부셔 갑니다.

수면이나 지상이 아닌 공간은 무한의 속력까지도 포용할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렁찬 국조(國造)의 진동을
고된 어제가 미소 짓는
오늘, 맑은 바람은 속삭인다
세상의 하늘 높이 우리러 들어라

죽음도 아닌
아아 너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삶을 거부했지
별도 없는 허공 밑 미로를 헤매이다 헤매이다가
땅을 치며, 몇 번이고 죽음과 자리를 같이 했지

그것은 수면이나 지면이 지니고 있는 여유가 아닌 것입니다.
신비를 저버리는 문명은 밤하늘의 아름다움도 앗아가 버렸습니다.
도회의 밤하늘에는 별이 없습니다.

그리운 이의 눈동자와도 같이 영롱하고 선명하게 빛나는 별이 없습니다.
부드러운 삼축으로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어둠이 없어진 때입니다.

네온으로 붉게 젖은 도회의 밤하늘은 최후의 심판의 징조와도 같은 불안을 몰고 올 뿐입니다.

발화점이 따로 없이 온 세상의 한꺼번에 불바다가 될 것만 같은 그런 빛으로 도회의 밤하늘은 웅숭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잎의 낙엽만도 못한 인간—.

봄의 다사로운 햇빛에 움이 터서

차츰 자란 뒤 한여름의 작열하는 태양 아래에서 왕성하게 푸르렀다가 태양의 손질이 떨어질 때 슬픔을 그려
돌 드러내며 땅 위에 가만히 눕는 낙엽의 정직성을 인간은 답을 줄 모르나 봅니다.

하늘은 인간의 어떠한 작란에도 변모할 리 없습니다.

가만히 더듬어 보면 어쩐지 엄숙해지고 나 자신의 작고 하잘 것 없음을 일깨워 주며 위축을 당하게 만드
는 하늘입니다.

그러나 절대로서 존재하며 우리의 머리 위에 펼쳐진 자비의 지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늘을 자주 우리러보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 죄나 악이 깃들 리 없습니다.

하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착하고 위대하고 너그러운 점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햇빛에 은익(銀翼)을 반짝이며 하늘로 하늘로 치솟아 달리는 비행기.

그 유쾌한 속력과 고도의 통쾌감을 맛보는 비행기를 다루는 사람들.

까마득히 아래로 지구를 두고, 현란한 햇빛과 신비한 구름 속을 비행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잡다한 지상의 속사라던가 번거로움, 눈물도 슬픔도, 그리고 조그맣고 가벼운 기쁨까지도 털어
버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비행 시각일 것입니다.

승화(昇華), 바로 승화의 시각이라 생각됩니다.

창공을 나르면서…… 하늘의 품에 안겨 있는 동안 볼 엄두가 나겠습니까?

활주로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더욱 넓고 더욱 푸르리라 생각됩니다.

사랑스러운 은익을 창공에 점 찍으며 하늘길을 탈리는 사람들은 그 마음도 넓고 푸를 것 같습니다.

신작로(新作路)에서 만난 제트기(機)

박홍근(朴洪根)



참으로 아름다웠다. 한여름, 빛나는 햇볕을 받고 반짝이는 은익의 아름다움을 지금도 나는
잊지를 않고 있다.

대동강 물줄기를 따라 유유히 평양 상공에 나타난 폭격기 편대의 위용, 1950년 7월 초순의
유엔군의 공중 공격의 첫 날의 기억이다.

소위 적기(敵機)가 내습한다는데, 평양 거리와 골목에는 하얗게 사람들이 나와서 폭격기의 구
경을 하고 있었다. 참으로 흥미있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마치, 오늘 우리들이 해마다 한강에서 열리는 항공기의 쇼를 구경하듯, 사람들은 그러한 심
정으로 높은 곳만을 찾았다.

나는 그때, 평양 비행장을 마주 바라다 보는 대동강 이쪽 기슭에 살고 있었다. 어떻게 되었는지 폭격기들이
대동강 위에 나타났던 그때 나는 집에 있었다.

아마 점심을 먹으려고 왔었던 것 같다.

유엔 공군의 첫 폭격은 그야말로 평양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감행되었다.

참으로 기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괴뢰 정권의 붕괴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었던 사람

들에게 유엔 공군의 공격 개시는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 같은 희망과 즐거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 틈에 끼어서 대동강 기슭에서 평양 비행장 폭격을 바라다 보았다. 난생 처음으로 목격하

는 폭격이라, 좀 흥미는 있었는데 그것이 폭격인 줄은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다.

폭격기들이 비행장 상공을 낮게 돌고 있었다. 그러자 지상에서 검은 연기가 뭉클 올랐다. 폭음도 별로 요란하지 않았다.

나는 괴뢰군들이 연막 같은 것을 터뜨리는 줄로만 알았다. “거 이상한데, 왜 폭격은 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내 옆에 있었던 괴뢰군 장성의 아낙네가 <소련 출신이며 소련에서 파견되었던 한국인이었다> 말하기를 소위 남한 군대들은 남한 정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명령이라 공격은 왔었지만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란 내용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고 있었다.

그러자 우리와 함께 구경하고 있었던 나의 중학 시대의 은사인 김선생이 “히, 폭탄이 무거워서두 그냥 안 갈걸, 폭격은 왜 하지 않아요. 저 검은 연기가 뭔데요. 한 번 거뜨히 헤치운거요.”

이렇게 말하고 또 꺾꺾했다.

우리들의 바로 옆에는 방공호(防空壕)가 큰 것이 있었다. 그러나 방공호에 들어간 사람은 없었다. 공산당은

미군의 폭격이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공산당의 선전을 반대로 해석하는 습성을 지녀왔던 나는 그것은, 폭격기는 미국 것이나 타고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일 것이라고 단정을 했다.

물론 유엔군도 있을 것이나 그중에는 한국인도 많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나는 대한민국과 그 아래서 살

고 있는 우리 겨레의 우위성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북한에서는 평양 비행장에 있던 날개가 두 개 있는 구식 비행기밖에 보지를 못했었다.

그 후부터 폭격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 갔다. 그럼에 따라 인명 피해도 자연히 생기게 되었다. 폭격이 처

음된 첫날처럼 쇼를 구경하는 기분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 그 해 8월 어느 날 굉장한 폭격이 있었다.

그 날 아침, 햇볕을 받으며 푸른 하늘에 유유히 떠 있는 B-29의 빛나는 은익의 아름다움에 한동안 무서움

도 잊어버리고 나는 출판사 옥상에서 홀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동안 방공호도 자주 드나들었다. 인민군 징발을 피해 고향으로 도망을 쳤다.

함북(咸北)까지 밤낮, 꼬박 열나흘을 걸었다.

고원의 어떤 집에서 자고 아침에 한참 걸어가는데 바로 앞에서 폭격이 전개되고 있었다. 함께 가고 있었던

사람들과 나는 잠깨발에 들어가 숨었다. 그러만 전투기 몇 대가 빙빙 돌아가는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요란스

럽게 로켓포를 쏘아대는 것이었다. 한참 동안이었다. 이런 시골에 뭐가 있기에 저같이 야단하게 폭격을 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였다. 고요해졌다.

잠깨발을 나와서 큰 길에 나섰다. 불과 백 미터의 거리에서 트럭이 한 대 불이 붙고 있었다. 운전수는 어딜

도망쳤는지 보이지를 알았다.

길바닥에는 탄피가 무수히 뒹굴고 있었다. 그때, 낮에는 기차는 물론 트럭같은 것도 다니지를 못할 때였는데—

평양을 떠나 고원까지 오는 며칠동안 낮은 물론이거니와 밤에도 트럭이나 또다른 차들이 다니는 것을 본 일이 없었다.

어쩌다 한 번 밤에 원산 쪽으로 나가는 트럭 한 대를 보았다. 우리들이 앞서가는 것을 본 트럭은 우리들의

뒤에서 멈췄다. 그리고선 인민군 장교가

“항공이 없어요?”

라고 물었다. 비행기가 뜨지 않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유엔 공군에 몹시 혼란 모양이라고 혼자 속으로 웃

었다. 이야기가 좀 헛나갔는데 불이 붙고 있는 트럭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주 가버린 줄로만 알았던 그라만

이 또다시 나타났다. 그만 우리들은 물 없는 도랑에 뛰어들어서 엎드렸다. 조종사의 머리가 보일 정도로 낮

게 뜨고 있었다.

몇 번인가 그곳을 돌고서는 사라졌다.

다시 걸었다. 좀 앞서가던 동행인은 그때까지도 얼굴이 새파랗게 되어 산기슭에 엎드리고 있는 것이었다. 다

같이 도랑에 엎드렸기는 했으나 그 친구의 모양이 어쩌나 우스웠던지 모르겠다. 그러나 농민들은 유유히 그

곁에서 벼가을을 하고 있지를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을 때 나는 우리들 자신을 또 한 번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은 길주를 지나서였다. 그때도 아침이었다. 하얀 신작로를 걸어 북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나는 별령 땅

바닥에 눕고 말았다.

마치 자동차가 신작로를 가듯 제트기 두 대가 전신주의 높이만큼 떠서 신작로 위를 따라 내 앞에 소리도 없

이 나타났었기 때문이었다. 겨울에 눈길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이를 짓고 일어날 때와 같은 기분이었다. 누가

그 모습을 목격했으면 얼마나 우스웠을까 하는…….

북한 사람들은 제트기를 ‘썩썩기’라고 불렀다. 몹시 낮게 뜨고 소리없이 나타났다가 살아가곤 하였다. 처마

밑을 지나가면서 “피난을 안 가도 좋다.”고 조종사가 어떤 집안에 앉아 있는 할머니를 보고 말했다는 우스운

이야기도 떠돌곤 하였다.

그 제트기의 조종사들도 나는 한국 사람들이라고 믿었다. 지금은 우리 공군이 제트기도 보유하고 있으며 어

떤 신예기도 조종할 수 있게 성장이 되었지만……. (끝)

만약 어느 유성의 한 주민이 우리들을 방문하고자 이 지구를 찾아왔다고 하

면 어느 도시가 그에게 가장 놀랍고 흥미로운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나는 서슴지 않고 뉴욕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파리의 우미함과 사랑스러움을 상찬(賞讚)하고, 런던의 잘 정돈되고 무

게 있는 풍경을 존경하며 이스탄불이나 리오데자 네이로 항에 관해서 자기

나라인 유성에 소식을 전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뉴욕을 보았을 때 가장 큰 감명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

이 하늘 높이 솟아있는 도시를 보고서도 놀라 자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무슨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도대체 이 도시를 제하고 어디서 그와 같이 높은 건물이나 탑이 구름 위

로 솟아있고 또한 근 천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으며 가로

에는 자동차가 홍수를 이루고 무수한 선박이 세계 각처에서 운반해 온 하물(荷物)을 방출하는 데가 있겠는

가 말이다. 뉴욕의 소음, 광채, 부, 착실하고도 날카로운 아름다움, 광대한 것, 이러한 분야에서 볼 때 다른 데서 그 유

례를 찾을 수 없을 것이며 실로 경이중의 경이라고 할 것이다. 이 거대한 도시가 사람들을 멍하게 만드는 매력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나는 언젠가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의 그늘이 깃드는 집에서 몇 개월 동안 살아본 적이 있다. 더욱이 좁

은 십자모에서 전혀 예기치도 않게 아침 햇살을 듬뿍 받으며 솟아있는 이 첨탑(尖塔) 광경에 마주치면 언젠

나 도로 위에서 거닐게 되고 일직선으로 세워져 번쩍 번쩍 빛나는 강철 건물을 아래층에서부터 360 미터나

되는 꼭대기까지 눈으로 훑어 올라가는 것이 버릇이 되어 버렸다. 나는 센트럴·파크로부터 5번가에 걸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고층 건물에서 밤하늘에 비치는 불빛 홍수

를 여러 번 목격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보았을 때도 처음에 보았을 때나 똑같은 감동을 받았다.

언젠가 나는 뉴욕항이 내려다 보이는 집을 한 채 얻어 글을 쓰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끝내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결국 나는 일하는 시간에 안하에 출입하고 있는 대양 항로에

취향하고 있는 선박의 행렬을 창 너머로 줄곧 바라다보는 것으로 정신을 다 빼앗겼던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뉴욕에서 마음에 드는 경치에 익숙해 질라치면 그러한 경치는 머리에서 사라져 버리고 다

시 더 크고 훌륭한 것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뉴욕 구경을 온 런던 시민을 데리고 파크 가(街)를 안내한 한 시

민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뉴욕 구경을 온 런던 시민은 그랜드·센트럴역의 규모가 큰데 놀라서 어안이 병병하여 녀을 잃었다고 히는

데 안내하던 뉴욕 시민이 ‘당신은 지금 이것이 가장 경이적인 구경거리라고 해도 좋소! 그러나 두 번 다시

이곳을 찾아 왔을 때는 가장 훌륭하고 감명 깊었던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오.’라고 말하

였다는 것이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여러모로 특출한 뉴욕시를 찾아온다.

우리들은 먼저 대서양에서 뉴욕항으로 들어가기로 하자. 허드슨강 사이에

긴 맨해튼 지역이 흡사히 확촉처럼 우리들을 향해서 돌출되어 있다. 이 돌출

부는 저 거대한 고층 건물들로 해서 하늘 높이 빌딩의 정글을 이루고 그 하

나 하나가 꼭 쩌서 저마다 키를 자랑하고 있다. 이들 탑은 피라미드를 만든

키오프스 왕도 그 광경을 목격하였다면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그림이나 사진보다도 훨씬 크고 아름다운 자유

의 여신상이 있다. 또한 유명한 브루클린 교가 이스트강에서 롱아일랜드에 걸쳐 그 우미한 아

취를 자랑하고 있다. 허드슨강을 수마일 거슬러 올라가면 조지·워싱턴교의

청회색 맞닿이 시야에 들어온다. 이 다리는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가설

되기 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긴 적교(吊橋)였다.

저쪽에서 놀만디호가 들어오고 있다. 아마도 예선(曳船)에 끌려서 선창에 향

해 있는 퀸·메리호나 렉스호, 유럽호같은 배들과 마주칠지도 모르겠다. 섬의

선단을 통과하면 허드슨 지역으로 들어선다. 맨해튼에서는 비교적 낮은 고층

건물들이 서 있고 울·워스탑도 그 근처에 있다. 이 탑은 한때 세계 최고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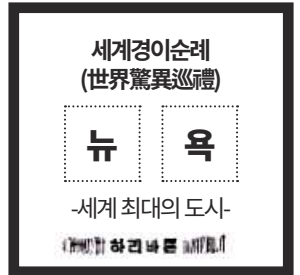
축물로 지목되었을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이보다도 높은 탑이 얼마든지 있

다. 북쪽으로 눈을 돌리면 거기에는 유독 뛰어나게 높이 솟아있는 마천루가

있다. 그 꼭대기에서는 전 뉴욕시뿐 아니라 수 마일 떨어진 곳까지도 바라

다 볼 수 있는 것이다. 실로 그곳에서의 전망 범위 내에는 거의 1천만이 넘

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배에서 육지에 올라 먼저 자동차의 홍수를 보게 된다. 모든 가로에는 30 평방센티미터 간격이라고는 하지만 자동차로 뒤덮여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다시 혼잡하기 이를 데 없는 오란다 지하도를 지나가면 두 개의 거대한 관이 허드슨강의 물속에 묻혀 있어 관 안에는 끊임 없이 흐르는 자동차 홍수가 시속 80키로의 속도로 뉴욕에서 뉴저지주를 향해서 강물 밑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뉴욕 시에서는 자동차로 어디를 가려고 하면 오히려 시간이 걸린다. 너무나 교통량이 폭주하고 차가 넘쳐 흐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혼잡한 가로의 땅 밑을 달러가는 것이 상책이다.

지하철도의 역은 그야말로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수많은 열차가 달리는 소음으로 귀지가 떨어지는 것 같다. 여러분은 개미집을 밟았을 때 개미들이 미친 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양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뉴욕의 지하철은 흡사히 이렇게 발각 뒤집힌 개미집 같이 몇 천 몇 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광경이 저녁 다섯시쯤 되면 그 복잡대는 품이 절항에 달한다. 급행전차가 연달아 들어와 문이 열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꼭 수문을 열어놓았을 때 쏟아져 나오는 물처럼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이 쏟아져 나오는 거와 같은 수의 사람들이 전차에 또한 올라타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빨리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면서 달린다. 이 전차에 타고 있을 때 느닷없이 찬바람이 차내로 들어온다. 이스트가 밑을 전차가 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지 얼마 가서 전차가 정차한다. 우리들은 5분만에 48키로나 달린 셈이 된다. 그리고 도착한 데는 부르크린이다.

이 전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타고 있으면 깜깜한 터널에서 돌연 밝은 데로 빠져나온다. 전차는 거대한 적교 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창밖으로 눈을 돌리면 거기에는 변함없이 솟아있는 마천루가 보이며 아래를 내려다보면 45미터나 되는 밑에 보트가 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러자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다음에는 어디에 닿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그러나 나는 뉴욕이 다만 소음과 차량과 잡담(雜談)의 소용돌이라고 하는 인상을 주기는 싫다. 수백만의 사람이 이곳에서 생활을 즐기고 있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를 싫어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을 사랑하는 이유의 하나로 이곳은 국민 문화의 중심지라는 것이다. 여기서는 음악이나 미술이나 연극이 번영하고 세계 제일의 교향악이나 오페라를 들을 수 있다. 동계에는 하루에 4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극장(영화는 아니요)을 찾아 든다. 또 박물관에는 모든 나라에서 모집한 귀중한 미술품이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능히 충족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많은 공부도 될 것이다. 그리고 절호의 기회를 줄 것이 틀림없다. 이 뉴욕에서는 온갖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밤의 뉴욕! 초겨울 일몰 후 항구에서 아련한 불빛 속에 바라다보이는 맨해튼의 마천루는 믿을 수 없으리만치 아름다운 광경이다.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이 여기에 모여져서

하늘 높이 솟은 수백의 탑 정상으로부터 늘어진 무수한 빛줄로 짜진 것처럼 보인다.

어둠의 장막이 내려져서 70층이 되는 라디오·시티·빌딩의 옥상에 올라가 거기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하계는 흡사히 휘황찬란한 보석이 깔려 있는 듯이 보인다.

타임즈·스퀘어의 상부는 네온사인으로 해서 밤이 낮으로 바뀌어 간다. 그랜드·센트럴역 근처의 강철이나 돌로 이루어진 삼림은 수많은 불빛이 명멸하고 아득히 북방으로 뻗어있는 브로드·웨이는 백색의 광선띠로 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불바다 한복판에 센트럴 공원이 비로드와도 같은 그늘을 만들고 있다. 또한 강 하류나 항구 저쪽에는 수성과 같은 불빛을 지닌 예선들이 검은 물결 위를 움직이고 있다.

나는 유럽에서 언제나 한 외국인(그 사람은 한 번도 자기 나라 밖을 나가보지 못한 사람이었다)이 미국을 경멸하는 듯이 조소하면서 미국이 만들어 낸 것들을 업신여기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전광이 가장 휘황찬란한 때 찍은 뉴욕의 야경 사진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지금 우리들이 서 있는 데와 같은 높이에서 찍은 것이었다. 그 사람은 눈이 뜨그래져서 그것을 보고난 다음 '나는 이 지구상에 이렇게 훌륭하고 멋있는데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미국을 조소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역주자——뉴욕시는 인구 8백만으로 세계 제일의 대도시다. 이 도시는 주로 길이 20키로 폭3.2키로 되는 맨해튼 도상(島上)에 형성되어 있다. 이 섬은 1609년 9월 네덜란드 정부가 허드슨강을 탐험하였을 때 헨리·허드슨이 발견한 것으로써 그 후 1626년 되는 유리구슬 단추 등속으로 그곳에 살고 있던 아메리카·인디안으로부터 사들여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명명하였는데 그때의 인구는 불과 2백 명쯤이고 30동 가량의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다.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뉴욕의 시초였던 것이다.

마천루는 102층이며 높이는 441.6미터로 세계 최고의 건물이고 조지·워싱턴 교는 길이가 1,500미터로서 금문교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로 긴 적교이며 록펠러·센터는 높이 30미터에서 250미터의 고층 건물 15개가 한곳에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서 유명한 유엔 본부 건물도 이곳에 있다.

또한 민주주의의 국가인 미국의 자유와 안전을 상징하는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의 조각가 후레데릭·바솔디(1834-1904년)가 프랑스인들한테 거둔 영세한 기부금 25만불로 제작하여 미국에 기증한 것으로서 총중량은 225톤이며 안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면 정상에 이를 수 있으며 여신상 머리 둘레에는 12명의 사람이 설 수가 있다. 해상 90미터 높이로 우아하고도 초연하게 서 있는 이 여신은 밤이 되면 전기로 조명된 봉화를 높이 쳐들고 있는 모습이 잘 보인다. (끝)

문제에 관한 영안(英案) 수락(4월 1일) △케네디 미 대통령과 맥밀란 영국 수상 키·웨스트에서 라오스 문제 토의(4월 5일) △미, 라오스에 군사 고문단 파견을 결정(4월 19일) △소(蘇) 라오스 휴전 공동 호소에 조건부로 수락(4월 20일) △전 전선에 휴전 명령(5월 3일) △양군 휴전 대표 처음으로 회합(5월 5일) △라오스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동서 14개국의 국제회의 제네바에서 개막(5월 16일) △라오스 문제 제네바 국제회의의 미·영·불 대표가 라오스 휴전 협정에 대한 위반 사실을 들고 회의의 무기 연기를 통고(6월 8일) △영·소 양국 외상 라오스의 전투 중지를 호소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14개국 국제회의를 12일에 재개하기로 합의(6월 11일) △라오스 3파 대표 평화 방안을 모색하는 회합 개최(6월 19일) △라오스 3파 대표 3군을 통합하고 국민 연합 정부 수립에 합의하였다고 공동 성명 (6월 22일)

◇콩고 사태(事態)

△카탕카 정부 루뭇바 수상의 피살을 발표(2월 13일) △소, 루뭇바 피살 문제를 들고 함마술드 유엔 사무 총장의 불신 임안을 안보에 제기(2월 14일) △콩고 정치지도자 국군 회의 카사부부를 연방 대통령으로 추대할 것을 결정(3월 12일) △콩고 각 파간에 통일 정부 수립에 합의(7월 10일) △콩고 상하 양원 아들라씨를 통일 정부 수장으로 선임(8월 2일) △함마술드 유엔 사무 총장 춤베 카탕카 대통령과 회담하고자 비행 중 사고로 순직(9월 18일) △카탕카주 정부와 중앙 정부 간에 잠정적 휴전 성립(9월 20일) △카탕카 정부와 중앙 정부 간에 휴전 협정 성립(10월 14일)

◇백림위기(伯林危機)

△케네디 미 대통과 브렌타노 서독 외상 회담에서 백림 수호를 재확인 (2월 17일) △미·영·불 서백림 권리 고수를 선언(7월 19일) △미·백림 위기에 대처하여 육군 백만 증가하는 32억불 군사비 의회에 요청(7월 25일) △소, 백림 문제에 협상을 통한 해결 각서를 서방측에 전달(8월 4일) △미·영·불 3국 외상 파리에서 백림 위기에 대한 전략 회담(8월 5일) △소, 2개 사단을 동백림에 투입. 미군 경계령 선포(8월 14일) △미·영·불 3개국 백림 경계선 봉쇄 조치에 소(蘇)에 항의 제출 (8월 17일) △백림에 미전투단 천오백 명 진주 명령(8월 8일) △존슨 미 부통령 서독 방문코 서백림 수호를 약속 (8월 19일) △케네디 미 대통령 백림 전략 문제로 미·영·불 서독 외상 워싱턴 회담 개최할 것을 발표(8월 10일) △케네디 미 대통령 소(蘇) 외상 그로미코와 백림 위기를 토의(10월 6일) △맥밀란·그로미코 회담에서 백림 위기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에 합의했다고 성명 (10월 10일)

◇핵실험(核實驗) 중지문제(中止問題)

△제네바 핵실험 중지 회담을 6주간 연장하자는 미 제안을 소 수락(2월 6일) △미·영·소 3국 핵실험 금지 회담 제네바에서 재개 (3월 21일) △핵실험 금지 문제로 케네디·맥밀란 회담(4월 8일) △소, 핵실험 재개를 발표(8월 31일) △미, 소의 TNT 10만 내지 50만 톤 급의 공중

<p>1961년 세계 시사 일지</p> <p>컬·백림봉쇄</p>	<p>유엔관계 라오스 문제 콩고사태 백림위기 핵실험중지문제 알제리아문제</p>	<p>우주경쟁 시도와나토 국제회담 한국관계 공산권동태 각국별사건</p>
---	---	---



◇유엔 관계

△ 안보이사회 콩고의 평화를 위한 아(亞)·아(阿) 3개국 콩고 평화안을 승인(2월 21일) △정치위원회 유엔 제15차 연장 총회 재개(3월 8일) △정치위원회 한국 문제 월말 상정을 발표(3월 8일) △정치위원회 유엔의 권능을 인식하는 조건하에 북한 대표를 한국 문제 토의에 참석시키자는 미국안을 59대14로 가결 (4월 11일) △정치위원회 한국에 관한 일본 안(한국대표참석)을 44대15 기권18표로 가결(4월 14일) △총회 쿠바의 폭격 문제 둘러싸고 논란(4월16일) △정치위원회 중남미7개국의 미 쿠바 간의 평화를 위한 미주 기강의 협조를 요청(4월 19일) △정치위원회 한국 문제 토의를 9월까지 연기하기로 결정(4월 12일) △제15차 총회 폐막(4월 22일) △안보이사회 쿠웨이트 문제로 긴급 조집(7월 1일) △특별 총회 튀니시아 문제(8월 21일) △특별 총회 아·아 블록 양국의 협상을 요청(8월 21일) △제16차 총회 개막(9월 19일) △제16차 총회 의장 몽기·슬립씨를 선출(9월 20일) △시리아 가 입을 승인(10월 13일) △모리타니아 및 외몽고 가 입을 승인(10월 24일) △총회 버마 대표 우·탄트씨를 사무 총장으로 승인(11월 3일) △총회 아주비핵지대화 결의안 채택(11월 24일) △총회 중국 대표권 문제 토의를 개시 (12월 1일)

◇라오스 문제(問題)

△콩레 대위 분·음 수상의 사임을 조건으로 평화 회의 개최 용의 있다고 표명(1월 13일) △케네디 미 대통령 라오스의 중립지지 성명 (1월 23일) △맥밀란 영국 수상 라오스 문제 토의하고자 미국을 방문(3월 26일) △소 라오스

핵실험을 탐지(9월 1일) △소의 핵실험 재개에 대한 케네디·맥밀란 공동 성명 발표(9월 3일) △25개국 중립국 수뇌 회담 소에 핵실험 중지 호소 (9월 4일) △케네디 대통령 미의 핵실험 재개를 선언(9월 5일) △인도네시아 스카루노 대통령 소의 핵실험 재개로 미소 정상 회담 개최를 호소(9월 12일) △미·영·소 3국 핵실험 중지 회담 재개(11월 18일)

◇알제리아 문제(問題)

△알제리아 국민 투표 실시 (1월 6일) △드·골의 알제리아 정책 국민 투표에서 4분의 3을 획득(1월 9일) △알제리아 주둔 불군(佛軍) 반란(4월 22일) △알제리아 불군 반란 항복(4월 26일) △알제리아 협상 개시 (5월 20일) △알제리아 전역에 걸쳐 반불 폭동 발생(7월 5일) △드·골, 알제리아의 독립을 무조건 수락했다고 발표(7월 12일)

◇우주경쟁(宇宙競爭)

△미, (침팬지) 실은 로켓 발사 회수에 성공(1월 31일) △ 소 1,405파운드 유성 간 우주선 발사(2월 12일) △소, 개 실은 우주선 지구 선회로 착륙(3월 9일) △소, 가가린 소령 실은 5톤 위성 발사 1시간 48분만에 생환(4월 11일) △미, 세퍼드 중령 실은 우주선 15분간의 우주 여행에 성공(5월 5일) △미, 그리شم 대위 실은 제2 우주선 발사에 성공(7월 21일) △미, 침팬지 아틀라스·로켓 2회 선회에 성공(11월 29일)

◇씨토티와 나토

△라오스 회의 라오스에 있어서의 공산침을 규탄(3월 24일) △시토티 각료 이사회 라오스 사태 더욱 악화 한편 행동화할 것을 결정(3월 29) △나토 이회 각료 회의 모슬로에서 개최(5월 8일)

◇국제회의(國際會議)

△아세아민족반공연맹 마닐라에서 제7차 대회 개최(5월 2일) △지역 사회 개발 제4차 국제회의 서울 창덕궁에서 개최(5월 6일)하여 12일에 폐회 △벨그라드에서 중립국 42개국 정상회담 개최(8월 31일)

◇한미관계(韓美關係)

△미 국무성 대한 증원액 천오백만 불 발표(4월 18일) △미 국무성 한국군사혁명에 대해 한미간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 계속을 확신한다는 성명 발표(5월 26일) △케네디 대통령 박 의장 방미 초청(9월 12일) △박 의장 13명의 수행원 대동코 방미 등정(11월 11일) △박 의장 워싱턴 도착 케네디 대통령과 제1차 회담(11월 14일) △박 의장 케네디 대통령과 제2차 회담(11월 15일) 국무, 국방, 농무, 상무 장관과도 회담 △박 의장 방미 여정에서 귀국(11월 25일)

◇공산국(共產國) 동태(動態)

△북괴, 유엔 정위안(政委案)의 조건부 참석에 대해 확답 없이 참석만을 시사(4월 17일) △소, 북한 상호 원조 조약 체결(7월 6일) △중공, 소 상호 원조 협정 조인(7월 11일) △소련 공산당 제22차 대회 모스크바에서 개최(10월 17일)

◇각국별(各國別) 사건(事件)

△미, 쿠바와 단교(1월 3일) △남아프리카 연방 영연방에서 탈퇴 성명(5월 31일) △쿠바 반정부군 쿠바 내륙에 상륙(4월 18일) △시에라·네오네 독립(4월 27일) △케네디 미 대통령과 후루시초프 비엔나에서 회담(6월 3일) △이라크·쿠웨이트 합병을 발표(6월 26일) △도미니카에서 반정부 폭동 발생(7월 7일) △서독, 소에 대해 대독 강화는 통일 정부를 상대할 것을 요구(7월 12일) △튀니시아 비제르트 문제로 프랑스와 단교(7월 21일) △브라질 대통령 돌연 사임코 마리지 하원 의장에 권한 인계(8월 25일) △브라질의 굴라르 부통령 대통령에 취임(9월 7일) △터키, 멘데레스 전 수상 조루루 전 외상 포타를칸 전 재무상의 사형 확정(9월 16일) △서독 총선(9월 17일) △미, 월남 파병 검토 차 테일러 장군 파견을 결정(10월 11일) △터키 총선(10월 21일) △터키 정당, 구르셀 장군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데 합의(10월 24일) △서독 의회 마데나위썬를 다시 수상으로 선임(11월 7일) △필리핀 총선 야당의 아카파칼씨 대통령에 당선(11월 16일) △도미니카의 토루히요 정권 붕괴(11월 20일) △케네디 미 대통령 소(蘇) 이즈베스차 편집인 아주베이와 회견(11월 25일)

<편집후기>

민족사의 방향을 결정지은 역사적인 신축년을 보내고 임인 새해를 맞는다.
생각하면 '진군하는 혁명 정신'의 올바른 구현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일들이 꿈만 같다. (민)

× ×

새해에는 자매지 「코메트」가 휴간됨에 따라 「미사일」을 90면으로 증면하기로 했다. 두툼해지는 「미사일」에 더 많은 성원을 바란다. (문)

× ×

감실에서 인쇄소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발자국을 남긴 끝에 또하나의 「미사일」을 내놓는다. 정신무장을 강화하는 식물성 <미사일>은 전투력을 강화하는 광물성 <미사일>에 못지 않게 귀중한 것이라 생각하며 보람을 느껴본다. (현)

× ×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군인으로서 교양이 되고— 이런 내용이 월간 <미사일>에게 주어진 명제임을 알면서도 꾸며놓고 보면 아직 거리가 먼 것만 같다. 다음에는 이 거리를 좀 더 단축시켜야겠다. 신년을 맞아 삼가 장병 여러분의 행운과 건투를 빈다.(유)



↑

자유중국 육전대사령 정위원(鄭爲元) 중장은 지난 12월 12일 내한 인사차 본부로 김 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이날 김 참모총장은 정 중장에게 공군 기념비를 증정하였다. →



그동안 기지 확장 공사에 공로가 컸던 미8군 제2공병 단장 스미스(Smith) 대령에 대한 김 참모총장의 감사장 및 기념품이 지난 12월 20일 장 참모차장에 의하여 수여되었다.

↓





**회
면**

1. 반공을 국시의 제 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이 강화한다.
2. 유연현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현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잠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를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공
약**

미 사 일

월간 9호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겸편집인 · 공군대령 주정호(朱貞鎬)
 인쇄처 · 공군교재창
 인쇄인 · 공군대령 김석환(金石桓)

공군본부 정훈감실

—F-104의 성능—

최대속도	2.2	Mach
순항속도	550	MPH
최대항속거리	800	Mile
실용상승한도	65,000	Ft
순항고도	35,000	Ft

